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기록문화와
제향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기록문화와 제향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기록문화와 제향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목 차

Contents

| | |
|---------------------|-----|
| 발간사 | 5 |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 7 |
|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 7 |
| 9개 서원으로 구성된 연속유산 | 9 |
| 탁월한 보편적 가치 | 12 |
| 기록문화 | 19 |
| 현판 | 19 |
| 기문, 제영 | 22 |
| 서원 고문서 | 25 |
| 고서와 책판 | 28 |
| 제향의례 | 31 |
| 제기와 제물·제복 | 32 |
| 제향종류와 제향절차 | 32 |
| 향사준비 | 33 |
| 향사의례 | 34 |
| 서원별 기록문화와 제향의례 | 35 |
| 영주 소수서원(紹修書院) | 37 |
| 함양 남계서원(濫溪書院) | 65 |
|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 85 |
| 안동 도산서원(陶山書院) | 115 |
| 장성 필암서원(筆巖書院) | 141 |
| 달성 도동서원(道東書院) | 165 |
| 안동 병산서원(屏山書院) | 185 |
| 정읍 무성서원(武城書院) | 209 |
| 논산 돈암서원(遯巖書院) | 227 |
| [부록] 9개 서원별 기록문서 목록 | 247 |

발간사

이 배 용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교육적, 사회적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널리 보편화되었던 성리학의 교육체계와 건축물을 창조하였던 탁월성을 인정받아 2019년 7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성리학의 교육체계는 서원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통해 표현되고 있으며, 건축물과 더불어 9개 서원이 지닌 기록물과 제향의례는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연속유산으로 구성된 9개 서원에는 현재까지도 면면히 내려오고 있는 기록물들과 제향 의례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한국의 서원문화를 만들고 향유 했던 선비들이 추구했던 품격 있는 정신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한번 한국의 서원 문화 전통과 성격을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한국 서원의 유·무형유산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 한국의 서원 도록 3종 현판과 기문, 고문서·고서·책판, 제향의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이들 도록 3종의 주요 내용들을 간추려 새롭게 개정 증보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별책으로 발간된 기존 도록의 사용성을 높이고, 9개 서원이 각기 특성을 지니며 전승한 이들 문화성격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세계유산 등재의 가치와 경과 등 새로운 내용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본 책은 총론, 서원 개설과 9개 서원의 기록문화의 성격을 현판과 기문, 고문서·고서·책판, 제향의례의 순으로 살펴 그 특성과 세계유산 가치를 정리하고, 이어서 9개 서원 별로 독특한 기록물과 제향의례 자료를 도록으로 재편하였습니다. 그리고 9개 서원의 기록문화 자료 목록을 붙임자료로 수록하였습니다.

본 책의 집필과 제작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 연속유산인 9개 서원의 통합홍보와 더 나아가 한국의 서원 문화가 보다 품위 있고 풍부하며, 교육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500년이란 긴 역사를 견디며 온전하게 계승, 보존되어 온 ‘한국의 서원’은 2019년 7월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인이 함께 지켜가야 할 소중한 세계유산이 되었다.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중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건립된 사립학교로 유·무형 가치가 담긴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이다. 한국의 서원은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 제향祭享, Veneration, 강학講學, Learning, 교류와 유식交流·遊息, Interaction 기능을 통해 성리학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교육, 문화, 지성사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대표적 유교 교육기관이자 지성문화의 거점이었다.

조선시대 서원은 성리학 교육과 선현의 제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 교육기관으로, 전통사회의 학문과 도덕, 역사, 그리고 정체성을 담고 있다. 서원에서는 학문과 도덕적 인성人性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고자 했다. 또한 지역 지성인들의 교류 장소인 동시에 여론과 공론 조성의 사회활동 장소이기도 했다. 서원의 건물들은 성리학이 중시하는 균형과 절제가 반영되어 웅대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검소한 모습으로 주변 경관과도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서원의 시작은 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경상도 순흥 지역에 세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효시로 삼는다. 1550년 이황李滉, 1501~1570의 노력으로 백운동서원은 조정으로부터 ‘소수서원紹修書院’으로 사액을 받아,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이후 서원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조선시대를 이끌어 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들 서원 중 세계유산목록에 오른 9개 서원은 대부분 서원 초창기에 건립되었으며, 1871년 서원철폐령으로 전국의 서원 중에서 47개소서원 27, 사우 20만 남고 훼손될 당시에 존속한 서원들이다. 이처럼 9개 서원들은 건립 이후부터 서원의 주요기능과 특징을 온전히 보유하고 관리되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다양하고 풍부한 기록문화와 무형의 제향의례를 통해 장소와 건축물의 진정성과 완전성이 입증되는 아주 특별한 유산이다. 유산이라는 것은 형태적으로 분류를 하여 유형과 무형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보존을 도모하지만, 그 안에 내재된 가치는 손쉽게 유무형으로 나눌 수 없다. 한 유산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요소와 함께 그 속에 담긴 정신, 수행한 기능, 불러일으키는 감정, 연계된 역사적 인물과 사건 등이 모두 얹혀 총체적으로 형성된다.

한국의 서원은 교육과 제향, 인간과 자연의 천인합일을 추구하는 전통 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한국 지성문화의 거점 역할을 하였다. 서원 안에 아직까지 면면히 내려오고 있는 기록물과 제향의례는 유형의 건축물을 통해서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서원의 내실 있는 과거와, 서원을 만들고 향유했던 선비들이 추구했던 품격 있는 정신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한국의 서원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에 기초가 되었던 성리학 교육을 증진한 교육기관의 탁월한 증거로서, 서원에서 향촌 지식인들은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체제와 유형적 구조물들을 창조하였다. 서원의 주요공간은 선현을 흠모하며 제사를 지내는 제향공간, 경서를 읽으며 학습하는 강학공간, 학문하는 긴장에서 벗어나 자연을 감상, 휴식하며 지식을 교류하는 유식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세 공간은 한국 서원의 대표적인 공간 특성이며, 부수적으로 세 공간의 기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지원공간들이 있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 그들은 성리학 경전과 연구를 수행하였고,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세계관과 이상적 인간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향촌 지식인들은 이 유산을 기초로 다양한 사회·정치적 활동들을 통해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전파되는 데 기여하였다.

| | | |
|--|--|---|
|  <p>영주 소수서원 주향 인물 : 안향(1243-1306)</p> |  <p>함양 남계서원 주향 인물 : 정여창(1450-1504)</p> |  <p>경주 옥산서원 주향 인물 : 이언적(1491-1553)</p> |
|  <p>안동 도산서원 주향 인물 : 이황(1501-1570)</p> |  <p>장성 필암서원 주향 인물 : 김인후(1510-1560)</p> |  <p>달성 도동서원 주향 인물 : 김굉필(1454-1504)</p> |
|  <p>안동 병산서원 주향 인물 : 류성룡(1542-1607)</p> |  <p>정읍 무성서원 주향 인물 : 최치원(857-?)</p> |  <p>논산 돈암서원 주향 인물 : 김장생(1548-1631)</p> |

9개 서원으로 구성된 연속유산

세계유산은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자연과 사람의 합작품을 나타내는 문화경관이 있고, 특별한 유형의 유산으로 국경을 초월한 월경유산 Transboundary properties과 연속유산 Serial properties이 있다. 즉 연속유산은 등재하고자 하는 유산이 하나 이상을 구성하고 있을 때 이를 연속유산이라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한 국가 내에서 등재하고자 하는 유산 지역이 하나 이상일 때나, 두 국가 이상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졌을 경우 모두를 연속유산이라 한다. 연속유산은 여러 유산을 하나로 묶어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산을 모두 합해서 어떤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부각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유산의 핵심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등재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더불어 각각의 유산이 위치한 연속유산의 전체적인 유산 보호를 위해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연속유산의 정의와 등재신청 조건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연속유산은 연계성이 확연하게 드러난 두 개 이상의 구성물을 포함해야 한다.
- 구성 요소들은 시간에 따른 문화·사회적, 혹은 기능적 연계성을 반영해야 한다.
- 연속유산의 구성물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기여해야 하며, 무형적인 특성을 포함 할 수 있다.
- 연속유산을 구성하는 유산에 대한 관리의 용이성과 일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유산목록에 오른 ‘한국의 서원’은 한 지역의 단일 서원이 등재된 것이 아닌,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9개 개별 서원들을 하나의 유산으로 묶어 등재한 연속유산이다. 한국의 서원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된 이유를 세계유산위원회 등재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16세기 중반~17세기 중반 성리학 교육기관의 유형을 대표하는 9개의 서원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한국의 성리학과 연관된 문화적 전통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이다. 이 유산은 한국의 중부와 남부 여러 지역에 걸쳐 위치한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의 9개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하 생략

연속유산인 한국의 서원은 한국 성리학 교육기관의 전형으로서 서원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유산이다. 이들은 한국의 서원이 하나의 유형으로 정립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며, 9개 개별 서원들을 통해 한국 서원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영주 소수서원

소수서원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서원이다. 한국 서원의 강학, 제향과 관련된 규정을 최초로 제시하여 이후 건립되는 서원에 영향을 주었다. 이와 관련된 문헌 자료도 풍부하다. 소수서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이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 등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지역유림의 자발적 건립과 한국 서원의 전형적 배치 구성을 지닌 함양 남계서원

남계서원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건립된 서원으로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사례이다. 건축적으로는 한국 서원 건축의 전형적인 배치방식이 처음 등장한 사례이다. 각각의 주요 영역을 구분하여 하나의 축선 상에 배치한 것은 이후 건립되는 서원 배치방식의 전범이 되었다.

기록문화와 관련된 출판 활동의 중심지였던 경주 옥산서원

옥산서원은 출판과 장서의 중심 기구로서의 서원의 역할을 정립하였다. 건축적으로는 서원 영역의 앞에 누마루를 도입하여 교류와 유식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옥산서원 이후 서원에 누마루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학파 중심의 서원 건립의 대표적 사례인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원은 서원이 학문과 학파의 중심 기구로 발전하는 한국 서원발전의 과정을 입증한다. 제향 인물의 강학처를 기반으로 건립되었으며, 강당이 비대칭으로 구성된 특징이 있다. 탁월한 자연경관으로 인하여 일대의 경관을 묘사한 다양한 작품들이 남아있다.

서원의 운영과 관련된 문서와 기록이 잘 남아있는 장성 필암서원

필암서원은 한국의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서원 운동이 서남부지역까지 확산되는 과정을 입증한다. 기록물을 통해 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전의 서원들이 경사 지형을 이용하던 것과는 달리, 이 서원은 평탄한 지형에 적합한 건축물 배치방식을 적용하였다.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건립된 건축 배치가 뛰어난 달성 동동서원

동동서원은 서원 교육 방식의 구체적인 양상을 입증한다. 경사지를 활용한 서원의 건축 배치를 탁월하게 구현하였다. 건축물별로 여러 개의 단을 조성하여 외부의 자연경관을 시각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활용한 것은 경사지 서원의 조성 기법을 잘 보여준다.

교육기관에서 여론 수렴지로의 역할이 확대된 안동 병산서원

병산서원은 서원을 교육기관으로서만이 아니라 만민소 등 사람의 공론장으로도 확대된 사람 활동 중심지로서의 서원의 기능을 입증한다. 많은 학자들의 수용이 가능한 큰 규모의 만대루는 자연경관과의 조화가 탁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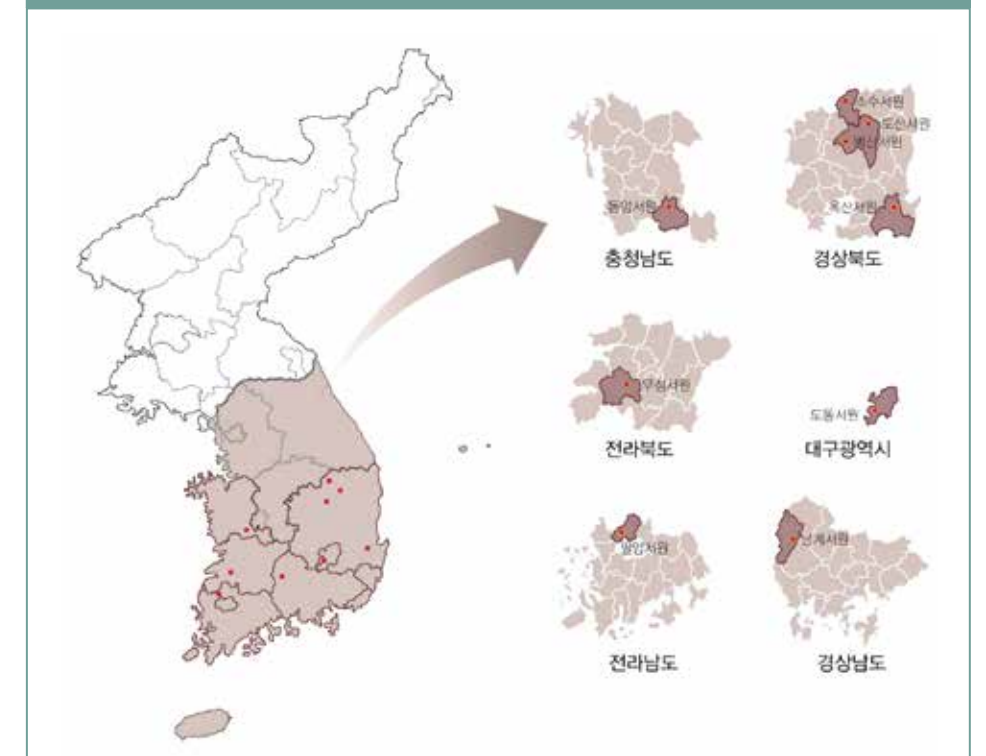
향약을 통한 향촌 교화의 장소였던 정읍 무성서원

무성서원은 한국 서원의 발전과정에서 성리학 이념이 지역 단위의 지식인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확대되는 단계에 속한다. 성리학적 사회질서를 구축하고 향촌을 교화하고자 교육과 사회적 근거지에 설립되었다.

성리학의 실천 이론인 예학 논의의 산실이었던 논산 돈암서원

돈암서원은 성리학의 실천 이론인 예학을 한국적으로 완성한 거점으로서, 응도당을 정침이론에 맞추어 만들었다. 응도당은 정침이론을 한국의 건축언어로 재해석하여 완성한 뛰어난 건물로서 한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례이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위치도(9개 서원)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세계유산의 핵심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보호이다.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의 핵심은 유산에 대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입증이다. 세계유산 제도에서 말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와 미래세대의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재기준, 완전성, 진정성 그리고 해당 유산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호와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한국의 서원’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 기술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 입증을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재기준(Criteria)

(iii) 살아있거나 또는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 혹은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한국의 서원’을 대표하는 9개 서원은 조선시대 교육 및 사회적 활동에서 널리 보편화되었던 성리학의 탁월한 증거이다. 이 유산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 사이에 건립되었으며, 교육을 기초로 형성된 독특한 역사 전통과 성리학의 가치를 나타낸다. 향촌 지식인들은 이 유산을 통해 성리학 교육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체제와 건축물을 창조하였으며, 전국에 걸쳐 성리학이 전파되는데 기여하였다.

| 구 분 | | 서원발전 | 교육체제 | 강학특성 | 제향특성 | 사림활동 |
|-----|------|------|------|------|------|------|
| 1 | 소수서원 | 제도도입 | ● | ● | ● | ◎ |
| 2 | 남계서원 | 설립주체 | ● | ◎ | ● | ● |
| 3 | 육산서원 | 출판활동 | ● | ◎ | ● | ● |
| 4 | 도산서원 | 학맥형성 | ◎ | ● | ● | ● |
| 5 | 필암서원 | 운영방식 | ● | ◎ | ● | ◎ |
| 6 | 도동서원 | 교육체제 | ● | ◎ | ● | ◎ |
| 7 | 병산서원 | 사회활동 | ◎ | ◎ | ● | ● |
| 8 | 무성서원 | 교화활동 | ● | ◎ | ◎ | ● |
| 9 | 돈암서원 | 예학심화 | ● | ● | ● | ◎ |

● 탁월한 충족 ◎ 평균수준의 충족

진정성(Authenticity)

9개 서원은 형태와 디자인, 자재와 구성물질, 전통적 기법과 관리체제, 입지와 주변환경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9개 서원은 서원 설립운동의 초기에 해당하는 16세기 중반부터 약 1세기 기간 동안 건립된 대표적 서원으로서, 역사발전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였다. 제향자의 연고 및 경관을 포함하는 입지 환경,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의 건축 배치, 각 건물의 유형적 형태, 목재와 기와를 사용하는 물질 구성, 보존관리의 체계 등을 원래의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다.

형태와 디자인 측면에서 9개 서원은 서원 역사의 건축적 구현을 보여준다. 한국의 서원은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 공간의 유기적 결합을 하나의 전형적인 형태로 완성하였고, 이를 지금까지 변형 없이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목조 건축기법과 좌식형 생활 관습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건축 형태를 만들어 내었다.

자재와 구성물질, 전통적 기법과 관리체제 측면에서, 한국의 서원은 서원 설립 당시의 건축적 결과물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조선시대 건축기법과 자재로 최소한의 보수를 해오고 있으며, 진정성과 완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전통적인 기법으로 영건하였던 원형을 따라 현재는 공인된 기술인력과 훈련받은 장인들에 의해 최소한의 보수를 행한다. 9개 서원은 문화재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며, 전승되어오는 전통 기술을 적용한다. 목조건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흰개미, 부식, 화재 등에 대해 공인된 전문집단의 관리를 받고, 예방조치를 한다.

9개 서원은 기록유산, 무형유산에 속하는 것들도 잘 보존, 전승하고 있다. 서원을 거처간 인물들이 남긴 전적, 문집, 기문, 목판 등은 잘 보호 관리되고 있으며, 제향은 지금까지 창건 당시의 모습 그대로 계승되어 시행되고 있다. 기록유산과 무형유산 모두 개별유산들이 지속된 전통을 보여준다.

입지와 주변 환경 측면에서, 9개 서원은 설립 당시에 적용되었던 성리학적 경관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각각의 서원은 야경, 계경, 산경, 강경 등의 특색을 갖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서원이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로서 경내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환경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입지와 주변 환경은 대한민국의 문화재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서원의 진정성을 높여준다. 9개 서원은 수 세기간 지속되면서 자연재해, 화재, 전쟁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변화를 겪어오기도 하였지만, 현재까지 진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재건, 수리, 그리고 이진 과정에서도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의 공간 배치를 관철하여 한국 서원의 특징을 유지하였다. 9개 서원은 개발압력이 적은 곳에 위치하여 원래의 경관을 충실히 보존하고 있으며 경관적 가치를 잃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치 보호를 위해 9개 서원에 설정된 경계는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제도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

9개 서원은 창건부터 현재까지 소유권의 큰 변동 없이 유림과 문중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에도 개별유산들을 원회院會라고 하는 자치조직을 구성하여 해당 유산의 관리, 운영, 활용 등과 관련된 사항의 의결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각 서원에 관련된 각종 고문서와 기록유산도 충실히 보호, 관리되고 있으며 유산의 진정성 확보에 기여한다.

완전성(Integrity)

‘한국의 서원’은 한국 성리학의 발전과 서원 유형의 정립 과정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원 9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성 요소는 집합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며, 각각 하나의 온전한 서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전성을 갖추고 있다.

9개 서원은 조선시대 서원의 필수 공간 요소인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을 구성하는 각 건축물뿐만 아니라 원래의 지형, 주변 환경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 제향 공간을 구성하는 사우와 사우 내부의 위패, 전사청 등이 온전하게 존재하며, 강학공간을 구성하는 강당과 재사, 도서관, 각 건물의 편액 등이 온전하다. 누각 등 교류와 유식공간의 구성요소 역시 온전하며, 주변의 경관, 지형 등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서원 주변의 경관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할 중요한 부분은 모두 유산구역(Property zones)이나 완충구역(Buffer zones)에 포함되어 있다.

9개 서원은 도시화, 현대화된 지역과 떨어진 곳에 입지하고 있으며, 입지와 소유관계, 법적 보호 체계의 측면에서 예상되는 위해가 거의 없다. 인공적인 개발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도의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풍화에 의해 쇠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체계 아래 공인받은 전문 기술자들에 의해 최소한의 보수만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유산 자체와 주변 지역까지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며, 경미한 보수라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와 감독을 거쳐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된다. 9개 서원은 한국 서원의 특성을 대표하기에 충분한 범위의 공간을 법적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개발 등 부정적 영향으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고 서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호와 관리(Protection and management)

‘한국의 서원’은 9개의 서원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한국의 서원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온전히 포함하고 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경계가 설정되었다. 또한 서원의 보호·관리는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또한 9개 서원들은 현재 국가 사적으로 각각 지정되어 해당 서원은 물론 주변 지역까지도 보호·관리되고 있다.

9개 서원은 제향-강학-교류와 유식이라는 기능과 유기적인 공간구성을 통해 서원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각각의 기능에 해당되는 건축물과 시설물들이 유산구역에 포함되었고, 서원의 입지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산림, 농경지, 강, 계곡 등이 완충구역에 포함되어 보호·관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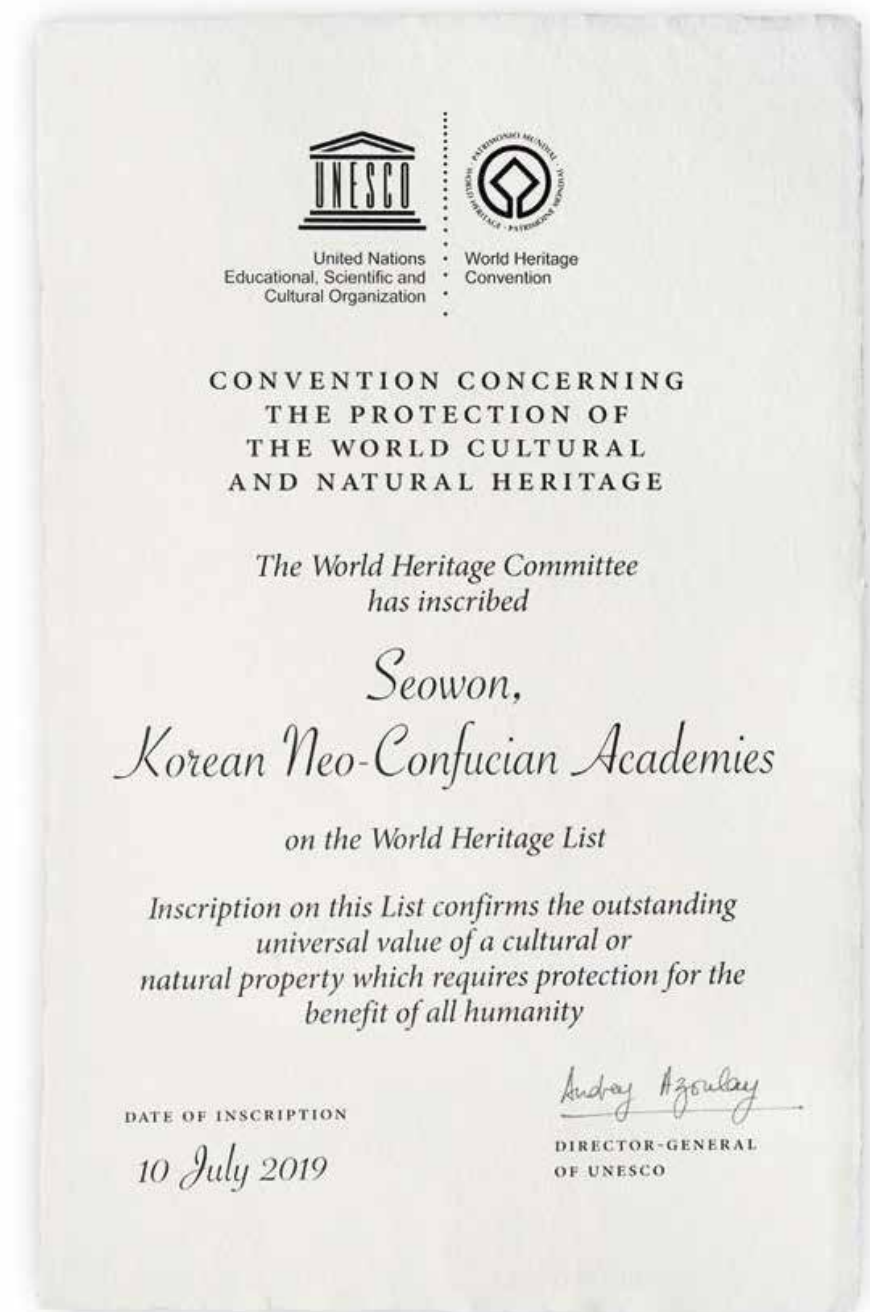
현재까지 9개 서원을 위협하는 개발 및 환경압력 등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요인은 경미하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과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서원 대부분이 목재 건축물인 점을 감안한다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소화설비 및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재해 및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방문객과 관광산업에 의한 서원의 보호·관리에 대한 영향은 향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서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원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9개 서원은 서원별로 유산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중장기 사업을 근거하여 보호 및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연속유산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을 설립하였다. 한국의 서원은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국제적인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 문화재청 및 서원 소재 지방자치단체,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 함께 모니터링 지표를 설정하여 전문가와 시민들이 서원의 정기적인 보존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9개 서원의 주변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신축, 증·개축을 엄격하게 규제받는다. 연속유산으로서 9개 서원이 소재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서원과 주변 환경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해당 서원의 보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서원을 정비, 보수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며 서원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한다. 각 서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호, 관리 외에도 시민들이 서원을 쉽게 접근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서원의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와 같이 9개 서원으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은 독자적인 제향 의례와 의식, 관행을 오래도록 지속하며 전승해왔고 도서관과 출판기능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유산 및 역사기록물들을 생산, 보존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서원은 유교 문화의 다양성과 개성이 집약된 문화유산이자 유·무형 자료가 집약된 보고寶庫이자, 전시관이다. 이러한 한국의 서원은 단지 과거의 박제된 역사유물이 아니며, 지금도 살아 숨 쉬는 정신문화의 본산이자 인성교육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이에 우리들은 서원이 지닌 세계유산 가치와 참된 교육의 기능을 되살려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국 서원의 교육은 지식뿐 아니라 인간의 심성을 끊임없이 바로잡는 인성교육이 중심에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교육은 입신양명立身揚名이 아닌 위기지학爲己之學이 목표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자가 아닌 지역의 선현을 모시고, 스승의 길을 따르면서 향촌 교화를 이끌면서 성리학의 이상세계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한국 서원이 지향했던 다양한 기능과 역할들은 오늘날 인류가 공동으로 지키고 전승해야 할 소중한 교육유산이다. 한국의 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요구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춘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서원의 역사문화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살아있는 유·무형 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과업이자 책임이기도 하다. 한국의 서원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유물이 아닌 미래를 향한 힘이 될 것이며, 한국의 유산을 넘어 세계로, 미래로 영감을 주는 인류의 유산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



기록문화

■ 현판

한국 서원에는 각 서원이 지닌 문화사적 내용, 인적 교류의 실상을 보여주는 현판류懸板類 자료들이 있다. 한국 서원 건물마다 성현이 남긴 경전이나 유명한 학자들의 글에서 인용하여 명칭을 부여하고, 당대 이름난 사람의 글씨를 받아 목판에 새겨 건물에 게시하였다. 특히 국가가 인정해 주는 사액서원의 현판은 서원의 상징이었고, 글씨 또한 당대 최고의 명필이 썼다. 이들 서원의 현판은 설립목적과 기능에 맞게 교육이념이나 철학은 물론, 경전이나 성현이 남긴 구절을 인용하여 심신을 수양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현판류 자료는 크게 당호堂號 편액扁額, 기문記文, 제영題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당호堂號는 대부분 건물의 편액으로, 건물이 지닌 상징적 의미와 가치를 대변하며, 기문記文 자료는 서원의 특성과 역사성, 진정성을 증거 하는 문화유산으로 서원의 유래와 그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해당 서원의 역사와 문화사적 성격을 보여준다. 제영題詠은 서원의 경관 및 서원 문화를 문학적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자료로 작자와 서원과의 관련성, 인적 교류, 작자의 문학과 사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당호堂號와 편액扁額

한국의 서원의 사우, 강당, 재사, 문루 등의 건물에는 당호堂號가 현판懸板으로 걸려 있고 이를 편액扁額이라고도 한다. 당호 현판은 유교적 사원 역할을 하는 서원의 대표적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당호는 건물의 이름이므로 우선 건물의 용도를 표현하며, 용도에 걸맞는 다양한 이름이 부여된다. 그리고 그곳에는 역할 이상의 중요한 상징성이 함축되어 있다.

서원의 독특한 교학 정신이 강당과 동·서재 당호에 함축되어 있고, 문루와 사당의 당호에서도 서원이 제향하는 선현의 지취와 절개를 느낄 수 있으며, 현판을 쓴 작가를 통해서 서원의 학통을 드러낼 수 있다.

한국의 서원은 400여 년의 오랜 역사를 지녔고, 강학講學과 장수藏修, 선현의 제향을 통해 성리학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교육, 문화, 지성사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대표적 유교 교육기관이자 지성문화의 거점이다.

서원은 저명 성리학자를 제향하는 곳이면서, 서원 내에서 젊은 인재들은 지식의 일방적 전수교육이 아닌 강론과 학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서원은 지역별, 학맥별로 다양한 교육·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지역 지성들의 사회사적 활동 장소로 항시 그들이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공간이자 상징적 기구로, 여론과 공론의 결집처이기도 하였다.

각 서원들은 독자적인 제향의례와 의식, 관행을 오래도록 지속하며 전승해왔고 도서관과 출판기능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유산 및 역사기록물들을 생산, 보존한 곳이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서원은 지연地緣과 학연學緣別로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개성이 집약된 문화유산이자, 각종의 유·무형 자료가 집약된 보고寶庫이자, 전시관展示館이다.

문루, 강당의 현판

문루의 당호를 통해 서원의 입지와 경관 특성이 유교적 학습과 함양에 기여하는 의미를 읽을 수가 있다. 영주 소수서원은 정식 문루가 없으나, 경림정景濂亭이 문루의 역할을 한다. 작은 정자 경림정에 오르면 자그마한 시내 죽계천과 경敬자 바위 그리고 송림으로 이루어진 취한대가 보인다.

안동 병산서원의 문루는 만대루晩對樓이다. 만대루는 중국의 시성詩聖으로 불리는 두보의 시구 “취병의만대翠屏宜晩對”에서 딴 것이다. 푸르게 비치는 병풍 같은 절벽은 저녁녘에 바라보기 좋다는 뜻이다. 병산서원 앞 낙동강 건너 병풍처럼 동서로 둘러선 산들은 한낮보다 해가 저쪽에서 비스듬하게 비칠 때 낙동강 물과 병산의 녹음은 햇살에 반사되어 비취빛으로 황홀하게 반짝인다.

장성 필암서원의 문루 확연루廓然樓는 사사로운 마음이 없다면 ‘드넓게 공평할 수 있고 사물이 이르면 순응할 수 있다. ‘廓然而大公 物來而順應’는 정호程灝의 말에서 딴 것이다. 정읍 무성서원의 문루 현가루絃歌樓는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가 수령을 지내던 무성에서 백성을 예약으로 다스린 고사에서 의미를 가져왔다. 백성을 잘 교화할 수 있는 경제적 학문에 교학전통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함양 남계서원의 문루는 풍영루風詠樓이다. 풍영루 기문에 보면 이 누각에 오르면 넓어지는 마음과 편안한 정신이 자연 속에 노닐던 정여창 선생의 풍영風詠하는 기상을 우리러 볼 수 있어 ‘풍영루’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남계서원의 동·서재 앞의 작은 사각형 연못이 있어 감상하는 유상遊賞 공간이다. 연못을 완상하는 마루의 당호 영매헌詠梅軒과 애련헌愛蓮軒도 문루 풍영루와 함께 남계서원의 자연합일 기상을 나타낸다.

한편 강당의 당호를 통해서도 서원 고유의 교학 전통들을 엿볼 수가 있다. 안동 도산서원의 강당 전교당典敎堂의 ‘전교典敎’는 교육을 담당한다는 의미이다. 전교당에서 스승이 거처하는 방협실의 이름은 한존재閑存齋이다. 퇴계 이황의 학문은 경敬을 특히 강조했다. 한존재는 스승이 지녀야 할 자세로 ‘사악함을 막아 참된 마음을 보존하는 경’을 제시한 당호이다.

경주 옥산서원 강당 구인당求仁堂은 마음을 방일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인을 추구하는 의미를 품고 있고, 도동서원의 강당 중정당中正堂의 당당한 모습은 경敬의 마음 자세로 인仁과 의義를 실천함으로써 성인의 경지인 중中和 正에 나아간다는 도동서원의 교학정신이 당호의 의미체계를 통하여 상징화된 것이다.

장성 필암서원의 강당 청절당淸節堂은 청렴결백한 절개를 지켜 벼슬길을 끊은 김인후의 깨끗한 절개를 표상한다. 이처럼 문루 확연루, 사당, 우동사, 강당 청절당의 당호는 일관되게 김인후의 크고 높은 절개를 상징하고 있다.

논산 돈암서원의 강당은 양성당養性堂으로 ‘양성養性’이란 마음공부를 위하여 『맹자』의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가져온 당호이다. 본성을 함양한다는 것은 곧 인仁을 말하는 것으로 양성養性이 추구하는 돈암서원의 교학정신을 당호가 체계적으로 상징한 것이다.

강학의 동·서재 현판

옥산서원은 건물 배치가 매우 정연하고 건물의 당호의 의미 부여도 체계적이다. 옥산서원의 강학 건물들의 당호는 영재들이 선賢을 택하여 이치를 밝히고 자신을 돌이켜 참되게 하는 방식으로 수학하는 양진재兩進齋, 경敬으로 안을 바르게 하고 의義로서 밖을 곧게 수행하는 해립재偕立齋가 그것이다. 학문에 들어서고 학문을 배우고 마음을 닦아 인仁을 추구하며 마침내 인을 체득하는 교학의 과정이 옥산서원의 외삼문에서부터 사당에 이르는 당호에 위계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도산서원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재의 당호는 ‘박약博約’이고 서재의 당호는 ‘홍의弘毅’이다. 결국 박약재·홍의재 당호가 상징하는 바는 스승은 이황이 평생 견지한 경敬을 가르침의 원칙으로 삼고, 학생들은 지식을 넓히고 행동을 예에 맞도록 박문약례博文約禮하는 내용의 공부를 하고, ‘넓은 도량과 굳센 뜻弘毅’을 가지고 평생토록 노력하는 자세로 경敬 공부에 임하라는 것이다. 도산서원의 교학 전통인 경敬 사상을 강당을 중심으로 각 건물의 당호에 담아 상징화한 것이다.

도동서원 강학공간인 동서재는 거인재居仁齋와 거의재居義齋이다. 강당 당호에서 중과정을 표상하고, 앞에 있는 동·서재는 동재가 인仁, 서재가 의義를 상징한다. 경敬의 마음 자세로 인仁과 의義를 실천함으로써 성인의 경지인 중中和 正에 나아간다는 도동서원의 교학정신이 당호의 의미체계를 통하여 상징화된 것이다.

논산 돈암서원의 동재는 거경재居敬齋 서재는 정의재精義齋이다. 거경재와 정의재는 『근사록』의 ‘경敬을 유지함으로써 안을 곧게 하고, 의義를 실천함으로써 밖을 바르게 하는 것이 곧 인이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거경재 정의재는 양성養性이 추구하는 인仁을 달성하기 위한 공부의 자세와 방법을 함축한다. 공부하는 선비들은 마땅히 ‘거경居敬’과 ‘정의精義’로써 양성養性하여 ‘인’을 이루어야 한다는 돈암서원의 교학정신을 당호가 체계적으로 상징한 것이다.

■ 기문 · 제영

기문記文

한국서원의 기문 자료는 편액당호나 제영문과 비교할 때, 기록내용의 사실성에서 커다란 차별성을 지닌 자료원이다. 첫째 기문 자료는 서원의 변화나, 특별한 사안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과정, 상황,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들 기문記文들이 계판되는 것은 당대 각 서원 유림들의 공론과 합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즉 찬자撰者와 서자書者의 선택도 당시의 지위, 의미, 공적에 따라 정해진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셈이다. 따라서 서원의 ‘역사나 변천사’를 반영한 자료로, 계판된 기문 자료들은 일단 ‘기려서 알릴 필요’가 있어 ‘선택되어 게시’된 다양한 역사 자료들인 셈이다.

한국서원의 기문자료들은 매우 다양하며 종합적이다. 이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보면 대개 건물의 창건과 중수 연혁 자료, 인물과 제향 관련 자료, 교육 강화 관련 자료, 서원의 재정 경제 관련 자료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건물의 기문, 즉 창건기·상량문·중수기 등이 50여 건으로 과반수를 상회하며, 제향인물이나 제향 관련 기문 20건, 그리고 원규·학규·절목 등 교육이나 강화 관련 기문 자료는 20여 건에 이른다.

창건과 중수 연혁

서원의 창건과 중수, 사액, 이건 등 사적에 관련된 자료로 창건기, 상량문, 중수기, 개건기 등등의 형태로 전해지며, 배경과 과정, 재원 마련 및 관련 인물들을 설명하여 준다. 창건기 중에는 옥산서원기玉山書院記(1561년, 姜翼 찬), 옥산서원기玉山書院記(1573년, 許曄 찬)가 주목된다. 이들 자료는 년대도 한국 서원 창설기인 16세기 중반으로 앞서고, 기문 내용에 서원 설립 당시의 분위기와 창설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다.

남계서원기의 경우 설립을 주도한 강익이 정여창을 모시는 서원을 건립하게 된 동기, 서원의 규모, 강당과 재실의 명명命名, 그리고 죽계서원 다음으로 세운 남계서원에 거처하는 선비들에 대한 기대를 기록하고 있는 자료이다.

옥산서원기玉山書院記는 이언적 사후 그를 경모하던 경주 유림들이 뜻을 모으고 경주부윤과 경상감사에게 서원의 건립을 요청하게 된 사연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서원 건립을 계기로 경주가 추로지향鄒魯之鄉이 되어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기를 바라는 소망도 담겨 있다.

한편 돈암서원의 양성당기養性堂記(1603년 鄭曄 찬) 같은 경우는 서원 창설의 유서가 되는 양성당의 강화 전통과 당시의 정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 양성당기는 현존하는 돈암서원 현판 중에서 시대가 가장 이른 것으로 사계 김장생이 아한정의 옛 터에 양성당을 세우고 강화활동을 시작할 당시의 정황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치제와 인물 기문

제향인물 관련된 기문으로 제향인물의 학문과 도학, 행적을 칭송하여 기리는 것으로 이 형태로는 전교등서, 문집발간, 화상찬, 제향축문 등등이 있다. 국왕이 내린 전교문으로는 도산서원陶山書院에 걸려있는 1792년(정조 16) 정조의 전교로 규장각 각신 이만수李晩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과시를 치르게 한다는 내용으로 글씨는 정조대왕의 전교를 받들어 이만수가 썼다.

무성서원에는 고운 최치원의 계원필경 간행사실을 기록한 무성서원최선생문집중간기武城書院崔先生文集重刊記(1834년, 朴海彦 찬)가 계판되어 있다.

교육, 강화 기문

서원은 지역별, 학맥별로 다양한 교육·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고 서원별로 독자적인 교육사상과 철학을 토대로 독특한 교육 방식과 운영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서원규약書院規約, 절목節目, 입의立議, 완문完文, 강안講案, 강규講規, 학규學規 등의 기문 자료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도산서원 원규陶山書院院規는 퇴계 이황이 지은 것으로 도산서원 정당 북쪽 벽면에 걸려있다. ‘원규’는 이산서원伊山書院의 교과과정, 공부 방법 등을 규정한 서원규칙으로 이후 이 원규는 영남지역 서원 원규의 모범이 되었다. 소수서원의 백운동서원령白雲洞書院令 1545년은 가장 년대가 빠른 서원 학칙으로 학생들에 대한 음식 제공, 서고 출입, 사당 참배자의 예우와 전송 등 기본적인 규정을 기록한 것으로 이후 여러 서원 규약의 모범이 되었다. 남계서원의 원규院規는 ‘계축 사월 중간癸丑 四月 重刊’이라 적혀있고 원생院生이 독서할 서책과 서원 생활 규칙 및 예절을 아주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다.

이들 원규院規와 학규學規 자료는 고문서로도 많이 남아 있으며, 아주 구체적으로 강회록講會錄, 고강록考講錄 강습례절목講習禮節目, 강례 홀기講禮 笏記 같은 자료가 남아 전하기도 한다.

재정 경제 관련 기문

서원의 재정 및 경제관련 자료로는 전답田畠이나 노비안奴婢案, 액외원생안額外院生案, 원보안院保案, 원직안院直案, 그리고 서원촌書院村 제역除役 등에 관련된 것, 그리고 서원의 중수重修나 거점居接을 위한 관官·사족士族의 현물 증여와 사안별로 이루어지는 의연義損과 각종 부조기 등이 있다. 한편 서원촌書院村의 면세 면역을 바라는 통문通文, 상서上書, 소지류所志類가 기문으로 기록되거나 확증된 사실을 현판으로 만들어 증거를 삼기도 한다.

옥산서원의 전교등서傳敎騰書 1676년은 서원 모입자들이 흩어져 선비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없다는 경연에서의 논의에 따라 숙종이 문묘에 중향된 인물을 제향하는 여러 서원 모입자를 물침勿侵하도록 지시했던 전교傳敎를 보여주고 있으며, 소수서원의 건륭십오년 입안乾隆十五年立案 1750년은 관청에 소속된 4호를 소수서원의 사환으로 부릴 수 있도록 증빙해준 문서로 18세기 소수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제영題詠

서원의 제영시題詠詩는 각 서원의 주인공과 그 후학들이 서원을 건립하게 된 배경이나 이념, 그리고 서원주변 경관의 자연물을 보고 느낀 심회를 시로써 형상화한 작품들이다. 이들 제영시는 서원을 찾는 이들에게 문학적 상상력을 일으키게 할 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자연을 경외敬畏하는 아름다운 마음가짐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제영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원 전체를 두고 읊은 시와 서원 공간의 특정한 건물에 대해 읊은 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서원을 총괄하여 지은 시는 서원 주인공의 인품과 학덕

을 존모하고 직접 배우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을 담고 있다. 필암서원의 하서선생을 그리며, 하서선생, 필암서원에 쓰다라는 작품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서원 공간의 특정 건물이나 주변풍광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내재된 참된 가치를 주로 담은 소수서원의 경험정과 돈암서원의 양성당제영, 양성당 십경등의 작품을 들 수 있다.

제영시는 서원에 대해 제영시를 남겼을 경우, 그 후학들이 차운시次韻詩를 남긴다. 소수서원의 주세붕은 우뚝한 산색을 공경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시냇물 소리는 정자에 은거한 사람의 마음과 감통한다고 읊었다. 경험정에 은거하여 본성을 함양하는 사람의 공경하는 자세가 산 빛깔, 물소리와 감통感通한다는 소회所懷를 읊은 것이다. 경험정景濂亭에는 많은 시판이 걸려 있는데, 신재 주세붕과 퇴계 이황이 시를 남긴 이후, 시대와 역사는 다르지만 많은 후학들이 경험정에 올라 선현을 추억하고 주변 풍광이 주는 현재적 심회를 시 속에 담아내었다.

필암서원의 경우 송강 정철鄭澈 1536-1593은 필암서원에 제향된 하서 김인후1510-1560를 회상하며 회하서懷河西라는 칠언절구의 시를 지어 그의 출처에 대한 절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청음 김상헌金尙憲, 1570-1652도 칠언절구로 김인후의 절의와 글씨, 그리고 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경관을 읊은 팔경, 십경시 등도 있는데, 서원의 공간을 명명한 의미와 주변 풍광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내재된 참된 가치를 읊은 시들도 있다. 소수서원의 경험정과 돈암서원의 양성당제영, 양성당십경 등의 작품을 들 수 있다. 서원 주변의 빼어난 산수 경관을 팔경시八景詩나 십경시十景詩로 창작한 것으로 돈암서원의 양성당십영養性堂十詠은 주변의 빼어난 산수 경관을 10개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시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런 집경시나 연작시 형태로 읊은 제영시들은 서원의 특화된 자료나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서원 고문서

각 서원의 운영과정에서 작성된 서원 고문서들은 서원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1차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각 서원들은 작성된 고문서들을 엄격히 관리하여 잘 보존해 왔다.

현재 각 서원에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를 내용별로 구분해 보면 창건과 연혁, 조직과 운영 경제운영, 교육·제향, 향촌사회사자료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창건과정 등 서원 연혁과 관련된 자료로는, 서원의 역사를 기록한 고왕록류考往錄類와 창건과정 또는 사액·증건·추향追享 또는 휘철 등 서원의 중요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사적事蹟 및 일기류日記類 등이 있다.

서원 조직과 운영 자료

서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련된 자료로는, 원장 등 서원임원과 서원생들의 명단인 원임안院任案·원생안院生案, 그리고 인적 교류와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제향 참여와 방문자들

의 기록인 알묘류謁廟類 심원록尋院錄 등이 있다. 이와 대표적인 자료로는 서원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주체이자 구성원인 원임院任과 원생院生 명부인 소수서원의 임사록任事錄과 입원록入院錄이 있다. 소수서원 임사록은 서원 창건시인 1542년부터 1718년까지 177년 동안 재임하였던 원장의 명단이 기록된 문서로 원장의 성명과 자字, 재직기간과 과거급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원장의 선출 성격과 시대별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입원록入院錄은 1543년부터 1672년의 연도별 입원생入院生의 성명, 거주지 및 급제 여부가 기록되어 있다. 원생들의 성격과 지역적 분포와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서원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서원 방명록에 해당하는 심원록尋院錄이 있다. 옥산서원의 심원록은 창건시부터 20세기 초까지 총 103책이 전한다. 여기에는 서원을 방문한 중앙의 고위관료들뿐만 아니라 도내道內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방문 인사들의 성명과 거주지, 본관 등이 기록되어 있다.

서원경제 관련 자료

서원 경제와 관련된 자료로는 전답안, 노비안, 추수기, 신공안身貢案, 원속안院屬案, 지출장부인 용하기用下記, 서원 소유 재물을 인수 인계한 문서인 전장기傳掌記, 도록都錄 등 다양한 문서가 있다. 이들 자료는 서원 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전답안은 서원 소유 전답의 규모와 위치, 토지 확보 방법 및 경작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노비안은 서원 노비의 소유 과정과 이름, 나이, 혼인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공안身貢案은 노비들이 서원 측에 내는 경제적 부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전답과 노비 외에 서원 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원속院屬, 속점屬固, 속사屬寺 및 기부·부조 등과 관련된 많은 자료가 있다. 그리고 각 서원에는 이들 원속의 면역을 관에 호소하는 상서·소지 및 관에서 발급해준 완문 등을 소장하고 있다.

노비안 자료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필암서원의 노비보奴婢譜이다 이 노비보는 1744년-1752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노비명과 나이, 부인妻·지아비夫와 그 신분이 기재되어 있다. 매우 희귀하고, 자료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필암서원 다른 문서와 함께 보물 587호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서원 경제력의 총체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전장기, 도록 등이 있다. 이들 문서는 서원의 수입, 지출 상황을 기록한 일종의 경리장부로, 원장 교체시 인수인계의 절차로 작성된 자료이다. 도산서원에는 건립 초창기인 16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의 전장기를 소장하고 있고, 옥산서원에서도 도록, 회계록 등 130여 책을 소장하고 있다. 서원에는 비정기적인 기부와 부조도 이루어졌는데 그 대표적 예로는 소수서원의 등록騰錄과 운원잡록雲院雜錄, 남계서원의 서원부보록書院裒寶錄이 있다. 운원잡록은 소수서원 건립 초창기에 지방관의 현물기부를 기록한 것으로 초창기 서원의 경우 지방관의 보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남계서원의 부보록은 1555년-1559년의 기록으로 서원운영을 위해 서책과 재곡財穀을 모은다는 뜻이다. 명단 및 기부금, 벼, 콩, 서적, 노비, 어물, 소금, 종이 등의 다양한 내용이 확인된다.

교육과 제향관련 자료

교육과 관련된 자료로는 거재록居齋錄, 강회록講會錄과 성적 기록부인 강안지講案紙 및 입원생을 선발하는 천안薦案 등이 있고, 제향과 관련된 것으로는 홀기笏記, 제수단자祭需單子, 제향절목祭享節目 등이 있다. 소수서원의 강소잡록講所雜錄은 1826년-1828년 강학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해두었으며, 1795년의 도산서원 강회록講會錄은 정조가 도산서원에 어정주서백선御定朱書百選을 하사한 것을 계기로 개설한 것으로 강회의 경과 및 강장講長과 강생講生 60여 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또 서원 원생들을 선발하고 교육을 평가한 자료로 옥산서원 천안薦案과 강안지講案紙가 있다. 옥산서원 천안薦案은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반의 자료로 천거 유생 명단과 천주薦主가 기재되어 있는데, 춘추향사와 각종모임이 있을 때마다 천거하였다. 천거 유생명단 아래에는 고강考講과 급제여부를 표기하였고, 강지講紙는 1802년과 1817년에 실시한 고강考講의 성적 기록부로 시험과목에 따라 성적을 통通·약略·조粗·불不로 기록하고 성적 아래에 채점자의 서압을 하고 있다.

지역 지성사 활동관련 자료

서원이 향촌사회 내 정치사회 활동 중심지로서 기능한 모습을 증거하는 다양한 문서들도 있다. 관에 청원하는 문서인 소지류所志類, 관에서 서원의 청원을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문서인 완문完文·입안立案, 서원에서 의논하여 합의된 사항을 기록한 입의立議·완의完議, 서원 상호간에 연락문서인 통문通文 등이 있다.

소지류와 완문 등은 대부분 서원에 소속된 사찰, 피역인, 소속 점店 등에 대한 관의 침탈에 대한 면역·면세 등 서원경제와 관련된 것이다. 특히 통문은 발행처는 대부분 서원·향교 및 각 문중 등이고 그 내용은 서원건립과 배향配享·추향追享 문제, 문묘중사운동, 중건시 부조, 문집간행시 부조, 충효열에 대한 표창 등이고, 19세기 중반이후에는 사족 상호간에 갈등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각종 시비와 관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보면 지역사회 내 서원의 사회적 활동의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서원은 지방사립들의 공론公論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림 공론은 조선 중기 이후 정치사의 전개과정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쳤는데, 서원을 중심으로 한 지방사립들은 중앙의 정파政派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중앙정계에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파의 정치적 입장을 뒷받침하는 연명상소儒疏를 올렸다. 이러한 연명상소가 극대화 된 것이 만인소萬人疏로 도산서원의 ‘사도세자 추존만인소思悼世子 追尊萬人疏’는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할 것을 청하는 것으로 퇴계의 후손인 이휘병을 소수疏首로 하여 모두 10,094명의 영남 사림이 참여하였다.

■ 고서·책판

한국 서원의 도서관, 출판 기능

서원은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으로 그 정신적인 가치와 교육적 기능 못지않게 많은 고서와 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지식의 보물창고였다. 서원의 기록유산으로 남은 고서와 책판은 당시의 서원관리와 지적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 것으로 책의 보급과 열람이 어려웠던 시대에 지식 확산과 문화의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원의 고서는 강학과 학문연구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으로 수집되거나 스스로 출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잘 알려진 대부분의 서원은 비교적 큰 규모의 장서를 형성하였고 이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서원은 그 설립의 일차적인 목적이 학문 연구에 있었고, 이를 위한 도서의 수집, 열람 및 보존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요즈음의 대학 도서관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원의 서적 출판은 각 감영과 함께 지방 출판문화의 중심 장소로서 문화형성과 지식 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 서원에는 간행을 책임지는 유사有司와 간소刊所가 있었으며 주로 교육용 서적을 비롯하여 서원에 배향된 인물의 문집文集과 유고遺稿 등의 간행이 이루어졌다. 간행된 서책은 다른 서원 및 각 문중에 배포되었으며 중앙기구인 홍문관, 규장각 등에 올려 지기도 하였다.

서원에는 원생들의 교육을 위해 경서經書를 비롯하여 역사서, 그리고 서원의 제향인물이나 그의 학맥을 잇는 인사들의 문집류 등 다양한 자료들이 보존되었다. 또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서원의 책판은 서원 출판의 결과물로 남은 것이며 당시 지식의 생산, 보급, 수용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의 삶의 역정을 현대적으로 증언해 주는 살아있는 사료들이다.

서원 고서의 소장과정

서원은 기증받거나 구입하는 방식으로 초기에는 서적을 마련하였고, 그 내용은 주로 성리학의 기본 서적과 중국 역사서가 많았으며, 후기에는 개인 문집의 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1541년(중종 36) 최초로 건립된 소수서원의 경우 설립자인 주세붕周世鵬이 성리학 관련 서적과 중국 역사서를 구입하고 여기에 유림의 기증서적을 더하여 서원 장서를 구비하였다. 각 서원에서는 장서목록을 작성하고 열람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책의 양이 많은 경우 서적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규院規에 밝히고 멸실과 훼손을 막기도 하였으며, 서고書庫 관리 규정을 두기도 하였다.

서원 서적의 수집 방법은 국왕으로부터 하사 받는 것을 비롯하여 문인이나 서원으로부터 기증받거나 구입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왕이 내려 준 내사본內賜本 : 서원에 국왕이 하사하는 내사본은 특별한 책이면서 동시에 그 서원의 위상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므로 매우 귀하게 관리되었다. 도산서원의 경우 초기에 작성된 서책목록인 서책질書冊秩에는 총 182종의 서적을 내사, 기증, 구입 등으로 구분하

여 기록하였는데 내사본 16종은 대부분 성리학 서적이다. 내사된 책은 내사기內賜記가 기록되고 내사인內賜印이 찍혀있다. 국왕이 편액을 내린 사액서원에 대해서는 국왕이 서적을 하사하는 것이 관례였다. 국가에서 서적을 간행, 반포할 경우라든가 국가의 장서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서적의 하사가 있었다.

문인과 서원으로부터의 기증 : 서원의 장서 수집에 있어 기증은 주요한 수집 경로 중 하나이다. 특히 다른 서원이나 지방관아 또는 개인이 기증한 사례가 많다. 예컨대 도산서원의 서책질을 보면 중앙기관과, 도관찰사, 지방 수령 등이 많은데, 이 중 관리들은 대부분 재직중 부임지에서 간행한 서책을 기증하였다.

서책의 구입과 간행 : 서원의 서책 구입은 강학과 성리학 연구를 위한 필수자료를 구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책목록에는 ‘매득買得’, ‘무득買得’, ‘무치買置’ 등으로 표시하여 구입한 서적임을 구분하였다. 이미 간행된 책을 구입하기도 하지만, 책판 소장처에 종이를 보내 인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원에서는 서적 간행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규모가 큰 서원에서는 목활자를 소장하기도 하였다. 서원의 간행 서적은 그 서원의 특수성과 당색, 학문적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

서원 장서의 이용과 보존

서원에는 인쇄된 책으로 남은 고서뿐만 아니라 직접 쓰고 제본한 성책류成冊類 기록과 고문서들 중에는 서원의 소장서적 목록이 함께 수록된 서책질이나 전장기의 경우 서적의 종류와 입수경로가 상세히 나타난다. 그리고 서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열람하고 대출한 기록도 있다.

각 서원에서는 장서와 책판의 관리를 위하여 목록을 작성하였고 서원의 규정院規에 유출을 막도록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관청으로부터 공증을 받기도 하였다. 서원에서는 완문을 작성하여 책임자가 서적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며 분실되면 다른 것을 구해 놓도록 정하기도 하였고, 서적 보관한 곳의 출입을 제한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것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서적간행을 위한 책판을 관리한 기록도 많이 남아있다. 각 서원에서는 책판의 수량과 작자 등을 표기하고 이것을 관청에 올려 국가에서 서원의 책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기록을 보면 서원에서는 매년 여러 번 점검하며 책판의 현황을 확인하였고, 소장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서원의 장서 중 서원 설립 초기에 수집된 것은 특히 귀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화유산이다. 영주 소수서원의 경우 건립되는 과정에서 서적을 마련하는 내용이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른 시기부터 수집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44년(중종 39)에 작성된 소수서원의 장서 목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원장서 목록이다. 안동의 도산서원은 사액된 이후 소장 장서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고 이것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금까지 많은 자료가 전

해진다. 경주의 옥산서원 소장 장서도 잘 남아있어 한국의 서원 장서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서원별 소장 고서와 책판

소수서원은 창설기부터 막대한 양의 서적을 보유했으나 현재는 많이 유실되어 고서 30종 145책, 책판은 죽계지竹溪志 117장 등 4종 428장이 남아 있고 모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331호로 지정되고 현재 소수서원과 소수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남계서원에는 한주선생문집寒州先生文集 등 저명 학자들의 문집류 고서류가 147건, 제향인인 정여창과 류진의 문집 책인 일두선생문집一蠹先生文集, 개암선생문집介庵先生文集 책판 377건이 소장되어 있다.

옥산서원은 도산서원과 더불어 현존 우리나라 서원 중 가장 많은 고서와 책판을 수장하고 있는데 약 4,000책에 이르는 방대한 고서와 더불어 책판으로 제향자인 회재 이언적의 문집 회재선생집을 포함해서 총 19종 1,121장이 소장되어 있다. 도산서원의 고서와 책판은 훼손과 멸실이 거의 없이 고스란히 보존되었기 때문에 양적 질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며 고서는 1,026종 4,605책이다. 책판은 28종 3,928점이다. 퇴계 이황의 수택본과 역동서원 소장본 및 도산서당 소장본 등 임란이전 시기에 간행된 서적이 상당부분 남아있다. 도산서원은 하사받은 내사본이 매우 많고 퇴계의 문도와 후학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도서가 수집되는 특징을 보인다. 현재 남아있는 책을 보면 주자대전, 주자어류, 성리대전 등의 성리서와 논어, 춘추, 시전 등 사서삼경이 내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필암서원에는 책판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데 하서 김인후의 문집목판으로 초간본 목판 1매, 중간본 목판 258매, 세 번째의 목판 391매로 총 650매가 남아있다. 그리고 1568년(선조 1)에 새긴 백련초해 13판과 유묵 4판, 그리고 인종이 김인후에게 하사한 묵죽도 판 3판이 전해지고, 1610년(광해 2)에 새긴 초서천자문 18판, 무이구곡 18판 등이 전해진다. 도동서원에도 고서 10종 26책과 책판 1종 71판 등이 남아있는데, 고서는 경현록景賢錄,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오경백편五經百篇 등의 내사본이 주류를 이룬다. 책판은 경현록景賢錄 1판이 장판각에 소장되어 있다.

병산서원의 고서는 1,071종 3,039책이 조사되었으며, 기록유산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서애 류성룡의 저술로 국보로 지정된 징비록과 보물로 지정된 난후잡록, 진사록, 군문등록 등이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과 도체찰사 등을 역임하였던 류성룡이 전란 때 겪었던 사건과 군사 정책 등을 수록해 놓은 자료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책판은 모두 25종 1,907매가 보존되고 있다. 무성서원의 고서는 무성서원지를 비롯한 8종이 남아있으며 대부분 19세기 말 이후에 간행된 것이다. 돈암서원도 출판·인쇄 문화의 전통을 보여주는데 돈암서원의 책판은 총 1,841판으로 가례집람과 상례비요 등의 예서와 함께 김장생, 김집 부자의 문집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돈암서원의 예서출판은 서인 예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곳으로 의미가 있는데 특히 돈암서원에서 간행한 상례비요喪禮備要, 가례집람家禮輯覽, 의례문해속儀禮問解續 등 예서 3종은 예학서의 간행에 있어서 서원의 역할을 파악하는 단초가 된다.

한국의 서원은 유교의 예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의례화된 곳이다. 서원은 교육의 강학기능과 함께 제향의례를 통하여 선현의 학덕學德과 행의行誼를 추앙하였다.

서원 유생들은 평소에는 강당에 모여 글공부를 하며, 매달 초하루와 보름 등 삭망朔望에 분향을 하는 알묘謁廟를 하고, 봄과 가을 두 차례 사당에서 향사를 지냈다. 사족士族들은 이를 통해서 지방사회를 교화敎化하고자 하면서 서원을 선현에 대한 제향공간으로 기능하게 하였다.

제향의례

■ 제기와 제물, 제복

서원 제향은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처음 세우고 제례를 위해 제식祭式과 홀기笏記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주세붕은 향교 석전釋奠과 『가례家禮』등을 참고하여 향사홀기와 진설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황도 향교 석전을 참고하여 백운동서원의 제식을 개정하였다.

『국조오례의』에 주현향교 석전의 문묘 주향위와 배향위의 진설은 2보 2궐, 8변 8두, 2생이고. 종향위는 1보 1궐, 2변 2두, 1생이었다. 이에 주세붕과 이황은 향교 석전을 참고하여, 서원의 진설을 2보 2궐, 4변 4두, 1생으로 하였다. 그래서 서원 향사에는 소수서원의 사례를 따라 2보 2궐, 4변 4두로 하였다. 그리고 후대에 제물을 감하면서 1보 1궐, 4변 4두로 하였다.

제물은 곡식과 희생, 그리고 폐백이 기본이다. 곡식은 구리로 만든 보簋와 궐鬯에 담고, 반찬에 해당하는 과일, 포胞 등 마른 제물은 변籩에, 해醢, 저菹 등 젖은 제물은 두로에 담는다. 서원에서는 대개 돼지 한 가지를 올리는데, 한 마리를 통째로 올리거나, 제향자의 주향, 배향, 종향위에 따라 부위를 나누어 올리기도 한다.

서원 향사에 입는 복식은 일단 3종류로 분류된다. 현관 및 집례, 축은 관복, 집사는 도포를 입거나, 아니면 제관 모두 도포를 입되 현관만 검정 또는 남색 등 색을 달리하거나, 모두 향교 석전과 같이 제복을 입는 경우이다. 향사에는 지역 수령이나 국가에서 파견한 관리에 의해 향사가 치러졌다. 이에 현관의 경우 흉배를 단 단령에 복두를 착용하고 홀을 쥐는 관복을 입었다. 관직이 없는 경우는 자신들이 준비한 유건, 치포관, 갓에 도포를 입었는데 현관만 색을 달리하였다.

■ 제향의 종류와 제향 절차

서원 제향에는 매년 봄·가을로 지내는 춘추 향사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하는 삭망례, 정월 초 5일이나 6일에 행하는 정알례가 있다.

춘추 향사는 처음에는 매년 음력 3월과 9월의 상정일上丁日에 지냈다. 그러다가 향교 석전이 치뤄지는 2월과 8월의 중정일中丁日에 춘추 향사와 중복되고 어려워 대부분 2월과 8월에 지냈다. 이러한 정기적인 제향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 행하는 비정기적인 제향 의례도 있었다. 비정기적 제향에는 위패를 임시로 다른 곳에 옮겼다가 다시 제자리에 모실 때 행하는 이안제移安祭와 환안제還安祭, 불시의 재난을 입었을 때 올리는 위안제慰安祭, 위패를 새로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때의 예성제禮成祭, 사액을 받았을 때 올리는 사액례賜額禮, 국가에서 제관을 보내어 지내는 치제致祭 등도 있었다.

정기적인 향사 절차는 주로 주세봉의 소수서원 홀기를 따르기는 했지만, 향교의 석전 내용을 참조하거나, 또는 주자朱子의 창주정사滄洲精舍 석채의釋菜儀를 참조하였다. 서원마다 주향인이나 배향인, 종향인, 또는 그 문하생들의 학규나 제향 해석에 따라 향사홀기를 제정하면서 서원마다 다른 향사 절차와 행례 전통이 형성되어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다. 서원마다 제향 절차가 조금씩 다르지만 춘추 향사는 기본적으로 분향례焚香禮, 전폐례奠幣禮, 삼헌례三獻禮, 음복수조례飲福受胙禮, 망료례望僚禮로 이루어진다.

■ 향사 준비

서원 운영의 책임을 맡은 임원들은 보통 음력 2월이나 8월 초하루에 삭망례가 끝나면 바로 이 모임을 갖는다. 여기에서 앞으로 있을 향례를 진행할 헌관獻官, 대축大祝, 집례執禮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망기望記를 작성하여 보낸다.

· **제물 준비** : 서원 고직사庫直舍에서는 향사일을 계산하여 미리 제주祭酒를 담근다. 제향 진행을 맡은 유사와 임원들은 2~3일 전에 미리 제물을 장만한다.

· **입재入齋** : 유사와 임원 그리고 미리 정한 삼헌관과 대축, 그리고 집례는 향사 전날에 서원 강당에 모인다. 이를 입재入齋라 하는데, 제관으로서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주의하는 재계齋戒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입재 시기는 하루 전에는 모두 입재하였으나 제향시각을 새벽이 아닌 오전으로 옮긴 서원이 늘어나면서 유사와 임원 외에는 제향일 당일에 입재하는 곳이 많아졌다.

· **성생례省牲禮** : 성생례는 희생으로 쓸 짐승의 상태를 검사하는 절차로, 감생례鑑牲禮, 또는 간품례看品禮라고도 한다.

· **집사분정執事分定** : 집사분정은 미리 정한 삼헌관과 대축, 그리고 집례 이외의 역할을 맡을 집사들을 선출하는 과정이다. 헌관을 중심으로 강당에 모여서 시도록을 가지고 집사분정을 하며, 제향집사분정기祭享執事分定記에 적는다. 그리고 분방分榜 또는 창방唱榜이라 하여 분정된 집사들에게 각기 역할을 알리고 분정기를 강당 벽에 걸어놓는다.

· **사축寫祝** : 집사분정을 마치면 대축은 강당이나 사당에 가서 헌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축문祝文을 작성한다. 축문 작성이 끝나면 대축은 축문을 초헌관에게 확인을 하고, 축판이나 축상에 받쳐 들고 사당 안 제상 아래 향탁 좌측에 둔다.

· **제물근봉祭物謹封** : 제관들은 제물과 희생을 사당으로 옮기고, 전사청에서 각종 제기에 미리 손질한 제물을 담는다. 제기에 담은 제물이나 향, 축 등 기타 제물들은 더 이상 손이 타지 못하도록 ‘근봉謹封’이라고 써서 봉한다.

· **진설陳設** : 위패가 모셔진 신위 북쪽을 중심으로 좌측 동쪽에 보, 우측 서쪽에 꿬를 놓으며, 보 좌측에 변 4기, 꿬 우측에 두 4기를 놓은 후 보꿬 앞 중앙에 조를 두고 그 앞에 술잔과 받침을 놓는다. 보에는 맵쌀을 담고, 꿬에는 기장쌀을 담는다. 변에는 마른 대추, 사슴포, 밤, 생선포 등 마른 제물을 놓고, 두에는 어해, 녹해, 미나리, 생 무 등 젖은 제물을 놓으며, 조에는 생牲을 었는다.

■ 향사 의례

요즘에는 오전에 제향을 갖는 곳이 많지만 원래는 새벽 1시에 향사를 지냈다. 향사 시작 반시간 전에 모든 제관들은 의관을 정제한다. 집사나 관리인은 그 시각에 사당문을 열고 제상 좌우에 놓인 축대에 불을 밝힌다. 향사는 집례가 향례의 진행순서를 적은 홀기笏記를 낭독한다. 제관들은 창홀에 따라 움직이며 맡은 임무를 행한다.

· **취위就位** : 모든 제관이 사당 앞에 나와 배위에서 재배를 하고 각자의 자리로 나간다. 초헌관은 먼저 진설을 점검하고, 대축은 위판의 뚜껑을 여는 개독開櫥을 한다. 그리고 향사를 안내할 집례와 찬인, 알자가 먼저 배위에 나아가 재배를 하고 제자리로 나간다. 집례의 본격적인 창홀에 따라, 제관들은 배위에 나가 재배를 하고 각자 위치에 나아가며, 삼헌관은 사당으로 들어와 재배를 한다.

· **분향례焚香禮** : 초헌관이 신을 모시기 위해 강신降神하는 절차로, 신위 앞에서 향을 세 번 올리는 삼상향三上香의 분향례를 행한다.

· **전폐례奠幣禮** : 초헌관이 예물을 바치는 절차로, 신위전에 폐백을 올린다. 일부 서원에서 는 전폐례를 생략하고 분향례 후에 바로 초헌례를 행하기도 한다.

· **초헌례初獻禮** : 초헌관이 신위 앞에 첫 번째로 작을 올리는 절차이다. 초헌관은 준소樽所로 올라와 술 따르는 것을 지켜본 후, 사당에 들어가 작을 받아서 신위 앞에 올린다. 일부 서원에서는 모사기에 술을 세 번 붓는 쥘주祭酒를 하고 작을 올리기도 한다.

- **독축**讀祝 : 초헌관이 헌작을 하면 대축이 초헌관의 왼쪽에서 동쪽을 향해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대개의 서원에서는 이 때 참사자 모두가 부복을 한다.
- **아헌례**亞獻禮 : 아헌관이 신위 앞에 두 번째로 작을 올리는 절차이다. 행례는 독축이 없는 것 말고는 초헌례와 같다.
- **종헌례**終獻禮 : 종헌관이 신위 앞에 세 번째로 작을 올리는 절차이다. 행례는 아헌례와 같다. 다만 일부 서원에서는 헌작 후 재배라고 하여, 종헌례가 끝나면 삼헌관이 함께 재배를 하기도 한다.
- **음복수조례**飲福受祚禮 : 초헌관이 대표로 신에게 복을 받는 절차이다. 초헌관이 음복 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신이 흠향한 술과 조육을 맛보는 것이다. 대개의 서원에서는 음복수조례 후에 헌관 이하 또는 헌관만 재배를 한다.
- **철변두**徹邊豆 : 향사가 끝나 진설된 제물을 물린다는 의미로, 변과 두를 조금 옮기는 것을 말한다. 사신의 의미로 대개의 서원에서는 철변두 후에 헌관 이하 재배를 한다.
- **망료례**望僚禮 : 초헌관이 축문을 구덩이에 묻거나 태우는 것을 지켜보는 절차이다. 축문을 폐백과 함께 묻는다고 하여 망예례望瘞禮라 하지만, 영조대 이후로 묻지 않고 태우기 때문에 망료례라고 한다. 망료례를 마치면 향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예필禮畢’이라고 한 후에 헌관 이하 사당을 나가며, 집례 이하는 위패의 뚜껑을 덮는 합독闔櫝을 하고 재배를 한다.

향사가 끝나면 향사가 잘 치러졌는지 점검하는 절차로 제공사祭公事, 또는 제사공론祭祀公論을 행한다. 이것이 끝나면, 강당에 모여 향약鄉約 약문約文을 읽는 독약讀約을 하거나 음복飲福 식사를 한다. 그리고 행사에 쓴 제물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의식으로 ‘봉송’을 주고 파좌罷坐 한다.

서원 제향 의례의 의미

한국 서원의 제향은 유교의 예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의례화된 것이다. 서원은 이들 제향의례를 통하여 선현의 학덕을 추앙하고, 예를 중요시 하는 유교의 정신과 문화를 널리 확산, 정착시키는 사회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서원의 제향의례를 통해서 제자나 후손들은 선현들의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제향 의례가 계속 이어지는 한 스승의 정신과 서원의 전통은 함께 계승될 것이다.

서원별

기록문화와 제향의례

- ▶ 영주 소수서원(紹修書院)
- ▶ 함양 남계서원(濫溪書院)
- ▶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 ▶ 안동 도산서원(陶山書院)
- ▶ 장성 필암서원(筆巖書院)
- ▶ 달성 도동서원(道東書院)
- ▶ 안동 병산서원(屏山書院)
- ▶ 정읍 무성서원(武城書院)
- ▶ 논산 돈암서원(遯巖書院)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영주 소수서원 紹修書院

-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8-2번지
- 창건연대 : 1543년종종38
- 사액연대 : 1549년명종4
- 국가지정 : 사적 제55호



소수서원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서원이다. 한국 서원의 강학, 제향과 관련된 규정을 최초로 제시하여 이후 건립되는 서원에 영향을 주었고, 이와 관련된 문헌 자료도 풍부하다. 소수서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이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 등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주향 인물 : 안향¹²⁴³⁻¹³⁰⁶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은 1543년 한국 최초로 중국 서원 제도를 수용하여 건립된 교육 기관으로서 강학과 함께 독특한 제향의례를 구현한 사례이다. 소수서원은 성리학을 처음으로 한국에 도입한 고려 후기의 유학자 안향^{安珦}과 서원 제도를 최초로 수용한 주세붕을 제향하는 서원이면서, 조선시대에 최초로 건립된 서원이자 국가로부터 최초로 사액공인을 받은 서원이다.

풍기군수 주세붕과 서원 창건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 주세붕^{1495~1554}이 풍기에 세웠던 백운동서원이 사액을 받으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풍기는 중국에서 처음 우리나라에 주자학을 들여온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 1243-1306의 자취가 어린 곳이었다.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은 이러한 유서가 깃든 곳에 향교가 황폐해진 것을 보고 향교를 중건하고, 이어 1542년^{중종 37} 문성공묘 건립을 시작하여 그해 8월 준공하고 회헌 영정을 봉안하였으며, 이듬해 추가로 백운동서원을 건립하였다.

소수서원의 설립자인 주세붕은 당시 지방관으로서 교육, 제향 등과 관련된 운영 규정을 최초로 세웠으며, 지역 사람들과 함께 설립을 주도한 것은 지방관으로 백록동서원을 운영했던 주희의 사례와 유사하다.

1543년^{중종 38} 9월, 서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자 주세붕은 이 지역 출신 인물인 안축^{安軸}, 1287-1348과 안보^{安輔}, 1302-1357 형제를 배향하였다.

퇴계 이황과 소수서원 사액

창건된 지 8년째 되는 해인 1550년^{명종 5} 백운동서원은 국가로부터 소수서원이란 사액을 받게 된다. 소수서원의 사액을 조정으로부터 끌어낸 인물은 퇴계 이황¹⁵⁰¹⁻¹⁵⁷⁰이었다. 그는 1548년^{명종 3} 11월 풍기군수로 부임한 뒤 서원에 자주 들러 제생들과 함께 주자학을 강론하였으며, 향사 제도를 개정하고 취한대를 세우는 등 서원 정비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그는 영남감사 심통원에게 편지를 보내 중국 송나라의 고사를 따라 백운동서원에 편액^{鵬額}을 내리고 서적 및 토지와 노비의 지급을 임금님께 요청해 주기를 청하여 마침내 1550년^{명종 5} 4월 국가에서 최초로 사액을 받은 소수서원으로 발전하게 된다.

초창기 서원의 건축과 독특한 공간 배치

소수서원은 주변경관의 풍치가 뛰어나다. 서원은 왼쪽의 소나무 숲과 오른쪽의 언덕 기슭으로 흐르는 죽계수 사이의 아늑한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소수서원은 한국 최초 건립 서원이라는 점에서 서원의 공간 구성, 즉 건축물의 배치가 정형화되기 이전의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향공간인 문성공묘는 명륜당의 왼쪽 후면에 배치되어 있다. 이 같은 공간 구조 및 강당에도 별도의 당호를 붙이지 않고 향교의 강당인 '명륜당'의 명칭을 따서 그대로 명명한 것은, 서원제도가 미처 갖추어지기 전 초창기 서원의 독특한 건축문화와 공간 배치를 잘 보여준다. 서원의 제향공간인 사우 문성공묘, 전사청이 서원 영역의 서쪽에 위치하여 남향을 하였고, 강학공간으로 강당인 명륜당은 제향공간의 동쪽에 있다. 문성공묘는 보물 1402호, 강당인 명륜당은 보물 1403호로 지정되었다.

유생들의 기숙하는 생활공간은 동·서재로 구별되지 않고 명륜당 뒤쪽에 일자로 자리하고 있으며, 가장 초기에 건립된 직방재^{直方齋}와 이후 거점 유생의 증가로 직방재를 측면으로 증축한 일신재^{日新齋} 및 17세기에 추가로 건립된 지락재^{至樂齋}가 있다. 또한 동몽재로 사용하다가 동몽이 강학하는 제도가 없어지면서 당호를 바꾼 학구재^{學求齋}도 후대에 유생들의 기숙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그 외 부속공간으로 전사청, 장서각, 고직사, 영정각 등이 있다.

유식 공간으로는 풍기군수 주세붕과 이황, 이준이 조성한 경렴정^{景濂亭}, 취한대^{翠寒臺}, 탁청지^{濯淸池} 및 18세기에 건립된 제월루^{霽月樓}가 있었다. 제월루는 1720년 죽계천에 터를 잡아 10칸 규모로 낙성되었으나 현재는 유실되어 기록에만 남아 있다. 석각 경자바위도 있는데, 주세붕이 정자 경렴정 맞은편에 성리학 개념의 하나인 '경敬'을 석각하여 자연을 감상하면서도 성리학적 의미를 깨닫도록 조성하였다 한다. 경렴정에서 죽계천을 바라보면 경자바위와 함께 뒤편의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외부의 자연경관을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현판 기문, 장서와 고문서

소수서원 현판 중에 건물과 관련된 편액으로는 명종 임금의 어필로 판각, 사액한 ‘紹修書院’ 편액과 ‘白雲洞’, ‘文成公廟’, ‘日新齋’, ‘直方齋’, ‘學求齋’, ‘至樂齋’, ‘景濂亭’, ‘鳳棲樓’, ‘迎鳳樓’ 등이 있다. 기문으로는 ‘白雲洞紹修書院記’, ‘白雲洞安文成公祠堂記’, ‘鳳棲樓重營記’, ‘紹修書院童蒙齋重建記’, ‘紹修廟宇重修記’가 있으며, 그밖에 ‘白雲書院榜’, ‘學規’, ‘白雲洞書院令’과 ‘文成公享祀執事’도 보존되어 있다.

한편 소수서원에는 또한 창건 이래로 발간, 수집한 고서와 서원 운영과 관련된 자료들이 현재 소수서원 사료전시관과 소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주요 자료로 고서는 내사본으로 『周易傳義大全』 11책, 고활자본으로 『朱子大全』 33책이 있고, 창건 사실을 수록한 『죽계지』, 창건 직후부터 17세기까지 경상도내 각 고을에서 수발한 공문서 및 서원에 대한 재정 지원과 운영, 강화 현황을 상세히 기록한 『소수서원등록紹修書院謄錄』과 『운원잡록雲院雜錄』 등 잡록류 기록이 있다.

『소수서원등록』과 『운원잡록』에서는 서원 교육에 대한 16세기 지방관들의 재정 지원과 교육 참여, 그리고 서원에서의 과거공부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거재록』과 『거재잡록』에서는 16~17세기의 과거 중심 서원교육이 18세기에 이르러 도학 중심 교육으로 변모하는 과정 및 교육내용과 방법에 있어 그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강소잡록』에서는 19세기 소수서원 강회에서 이루어진 토론과 문답의 내용 그리고 과거공부와 도학공부를 조화롭게 운용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19세 소수서원의 노력과 실천 등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서원 소유의 토지를 수록한 각종 전답문서, 노비문서, 장서목록, 건물 중수에 대한 기록 및 서원 운영 관련 인계인수사항을 기록한 전장기傳掌記가 있으며, 16세기 이래 원임 및 원생들의 명단을 기록한 임사록任事錄과 입원록入院錄, 서원 방문자의 명단을 기록한 심원록尋院錄이 수십 종이 전하고 있다. 특히 의례 관련 문서로는 한국 서원의 홀기 중 가장 오래된 주세붕과 이황의 친필 홀기勿記가 현전하고, 거재록居齋錄, 통독잡록通讀雜錄 등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시행된 소수서원의 강화 기록도 풍부하게 남아 있다.

제향의례와 ‘도동곡’

그리고 소수서원은 향례 절차에 있어 다른 서원과는 상이한 특징이 있는데 초헌, 아헌, 종헌에 전작할 때마다 도동곡道東曲이라는 악장을 부르며 행사하는 점이다. 도동곡은 1541년중종 31에 지은 9장의 경기체가로, 죽계에 백운동서원을 열면서 중국으로부터 도학道學이 조선에 전래되어 널리 전파된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예와 악이 조화를 이루는 제례악으로 서원 향사에는 소수서원에서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불려지는 제례악이다. 도동곡을 부르는 유생은 현관이 바뀔 때마다 장로를 제외한 젊은 유생 3인으로 교체하여, 실제 향사에서 도동곡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4명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종묘와 문묘를 제외하고 제례에서 예와 악이 조화를 이루는 제례악이 불려지는 곳은 소수서원이 유일하다.



소수서원
紹修書院

1550 (명종 5)
56.0×130.0

1550년명종 5 이황李滉, 1501~1570에 의해 조선 최초의 사액 서원이 되었을 때 받은 사액현판으로 '소수紹修'는 이미 무너져 버린 학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뜻이다. 서원의 명칭은 대제학 기재企齋 신광한申光漢, 1484~1555이 짓고 글씨는 명종明宗의 어필御筆이다.



문성공묘
文成公廟

1605 (선조 38)
52.0×164.0

소수서원 사당에 걸려있는 편액으로, '문성공'은 안향의 시호이다. 글씨는 1605년 명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이 서원을 참배하고 쓴 것이라고 하며, 현재 편액은 원래의 것을 모각한 것이다.



백운동
白雲洞

1610 (광해 2)
47.0×108.0

소수서원강학당 명륜당에 걸린 편액으로, '백운동白雲洞'은 1542년 신재형愼齋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중국 주자의 백록동 서원을 본떠 백운동 서원이라 부른데서 유래하였다. 편액 좌측에 1610년광해2 봄에 새겼다는 기록이 있다.



직방재
直方齋

1720 (숙종 46)
46.0×120.0

직방재의 편액으로, '직방'은 『주역周易』에서 인용한 말로 경건으로 내면을 수양하고 의義로써 외부적 행동의 판단준거를 삼는다는 뜻이다. 이황李滉, 1501-1570이 직접 쓴 글씨가 마모되어 1720년숙종 46 이진주에게 의뢰하여 개각하였다.



지락재
至樂齋

조선 후기
41.0×95.0

소수서원에 부속된 지락재의 편액으로, '지락至樂'은 송나라 구양수歐陽修, 1007-1072가 '지극한 즐거움은 독서만한 것이 없다고 한데서 유래하였다. 창석蒼石 이준李埈, 1560-1635이 창건하였으며, 원래 이름은 '동몽재童蒙齋'였다고 한다.



백운동소수서원기
白雲洞紹修書院記

1550
58.0X253.0

신광한申光漢, 1484-1555이 지은 것으로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백운동서원 소수서원이 건립 및 경상도 관찰사 안현安瑗, 1501-1560의 부조내용과, 이항李滉, 1501~1570의 건의로 소수서원으로 사액賜額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그 의의를 칭송하였다.



백운동안문성공사당기
白雲洞安文成公祠堂記

1545
(인종 원년/명종 즉위년)
59.5X104.0

1545년인종 원년/명종 즉위년에 성세창成世昌, 1481-1548이 작성한 백운동서원 사당 기문으로 성리학을 보급한 안향安珦 1243-1306의 공적을 칭송하고 사당의 창건과정을 기록하였다. 소수서원의 초창기 건립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백운서원방
白雲書院榜

1545 (인종 1)
45.5X146.0

1545년인종 1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풍기군수로 재임할 때 작성한 백운동서원의 학칙이다. 유생들의 서원 생활규범, 서원 관리 지침, 입학 규정, 학생 명부의 작성 등 제반사항을 정해 놓은 것으로 초창기 백운동서원의 운영 규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백운동서원령
白雲洞書院令

1545
(인종 원년/명종 즉위년)
32.0X59.7

지락재至樂齋에 걸려 있던 백운동서원의 학칙으로 학생들에 대한 음식 제공, 서고 출입, 사당 참배자의 예우와 전송 등 기본적인 규정을 기록한 것으로 이후 여러 서원 규약의 모범이 되었다.



건릉15년입안
乾隆十五年立案

1750 (영조 26)
36.8X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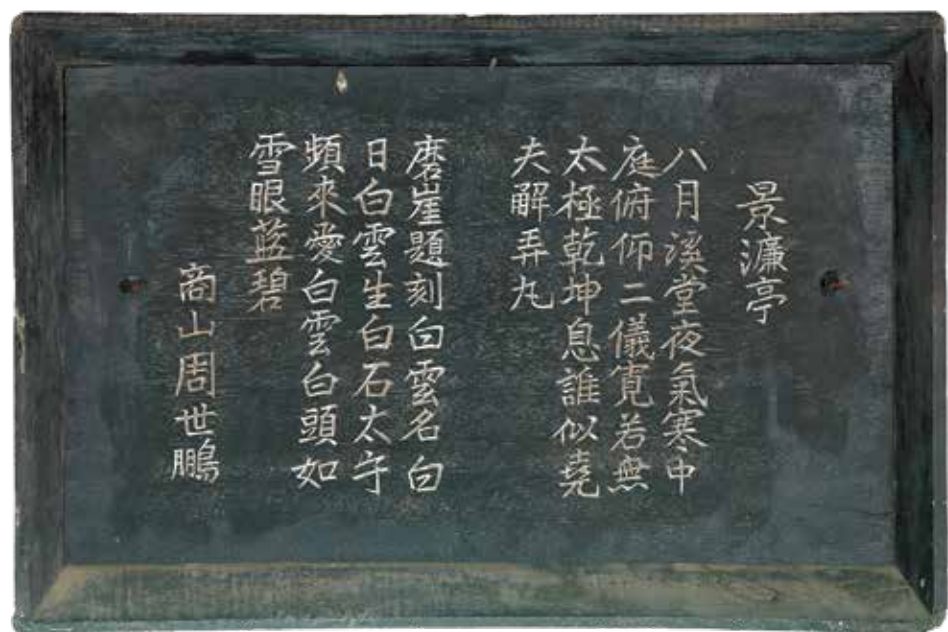
부사 신종하申宗夏가 4호戶를 소수서원의 사환으로 부릴 수 있도록 증빙해준 문서로 관역官役 이외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18세기 소수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 소수서원 강학당講學堂에 걸려 있었다.



소수묘우중수기
紹修廟宇重修記

1874 (고종 11)
48.0X98.4

이의덕李義惠이 소수서원 사우의 중수 과정과 의미를 새긴 글로 글씨는 주용호周龍鎬가 썼다. 소수서원의 건립 과정과 이를 주도한 선현들의 공적을 칭송한 뒤, 배향자 안향安珦, 1243-1306의 후손인 안교환安敎煥 등이 사당을 중수하게 된 경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림정
景濂亭

1545 (인종 1)
27.0×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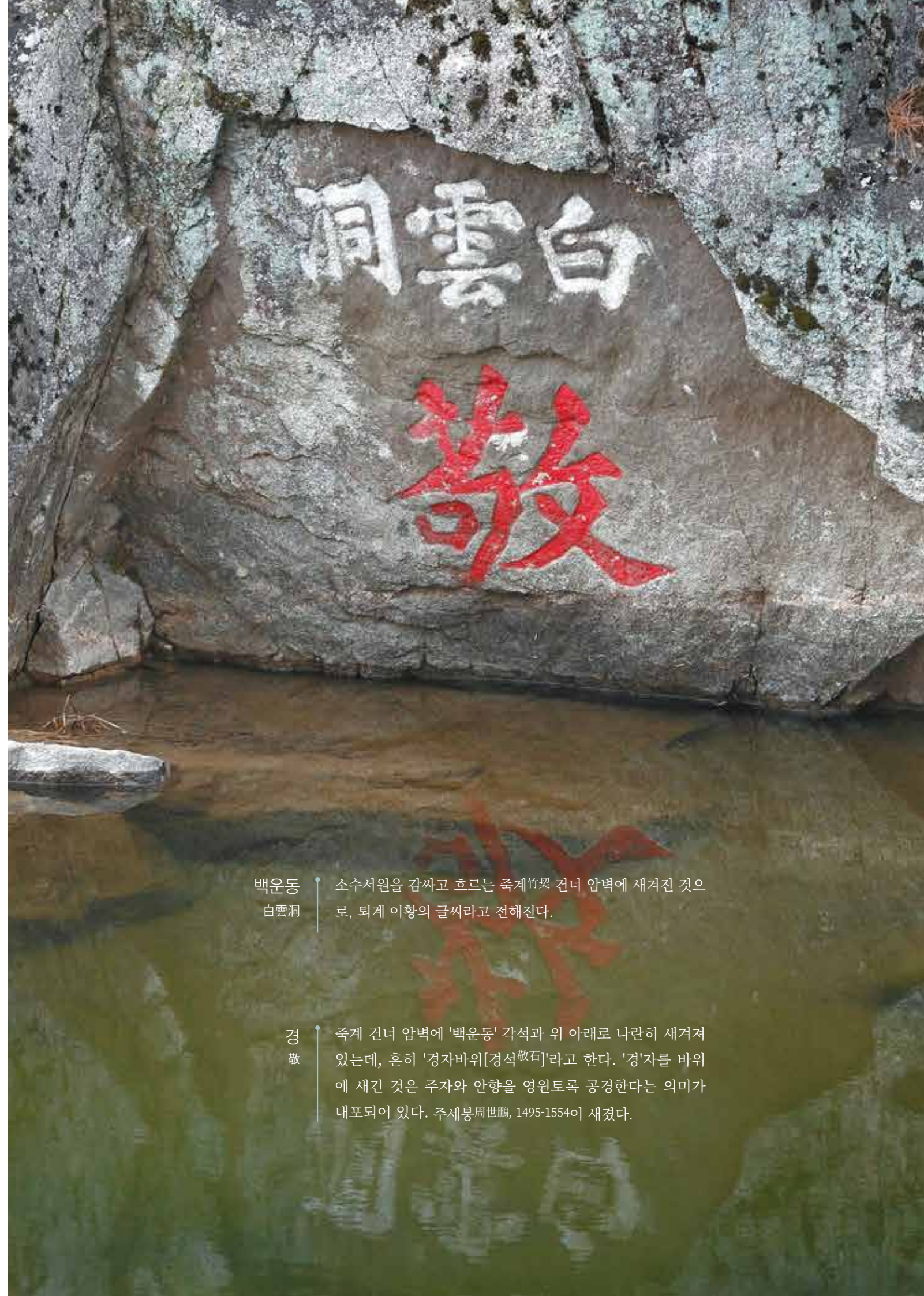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풍기군수 재임시절 백운동 서원을 창건하고 경림정景濂亭을 세운 뒤에 지은 5언 절구의 시다. 산수의 경물에 서 군자君자의 도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경림정
景濂亭

1610 (광해 2)
25.0×43.0

이황李滉, 1501-1570이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지은 시에 차운한 것으로, 이 시 역시 산수경물에서 자연의 이치를 터득 하고자 하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 편액 좌측에 '1610년광해 2 봄에 문집 속에서 찾아 다시 새긴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이황의 처음 시판詩板이 마모되어 이 때 다시 추각한 것으로 보인다.



백운동
白雲洞

소수서원을 감싸고 흐르는 죽계竹契 건너 암벽에 새겨진 것으로, 퇴계 이황의 글씨라고 전해진다.

경
敬

죽계 건너 암벽에 '백운동' 각석과 위 아래로 나란히 새겨져 있는데, 흔히 '경자바위[경석敬石]'라고 한다. '경'자를 바위에 새긴 것은 주자와 안향을 영원토록 공경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새겼다.



소수서원입원록
紹修書院入院錄

1543~1696
25.5×360.0

1543년중종 38 창건 이후 1696년까지 154년 동안 소수서원에 입학한 학생들의 명단이다. 입학 연도별로 자수와 거주지가 병기되어 있다. 원생이 과거에 합격한 경우는 과거의 종류와 연도도 기재되어 있다. 16~17세기 서원 원생들의 사회적 성격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원임사록
院任事錄

1542~1718
39.6×25.4

원장院長과 유사有司 등 소수서원 원임院任을 역임한 인사들의 성명과 재임 기간이 기록된 문서이다. 소수서원의 운영을 주도했던 인물들의 인적 사항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 20세기 것까지 총 7책이 보존되어 있다.



운원잡록
雲院雜錄

16~17세기
22.0×30.0

소수서원 창건 초기부터 1600년대 초반까지 서원에서 생성된 기록물과 기사를 망라한 자료이다. 지방관들의 물품 공여供與 기록, 서원 건물 보수 기록, 서원에서 결의한 입의立議·완의完議, 각종 통문通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잡록
雜錄

1720~1759
29.0×23.51책

1759~1832
33.4×22.22책

1720년숙종 46부터 1832년순조 32까지 소수서원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문서를 정리하여 수록해 놓은 것이다. 서원 건물 보수와 관련된 기록이 가장 많고, 그 외 서원 노비와 토지의 소유 문제를 둘러싼 기사, 소수서원 원장 임명과 관련된 기록, 각종 통문通文 등이 수록되어 있어 소수서원 운영의 일단을 살펴 볼 수 있다.



강소잡록
講所雜錄

1826-1828
28.0×18.0

1826년순조 26부터 1828년순조 28까지 소수서원에서 치러진 강학과 관련된 기록이다. 소수서원 원생들은 가을과 겨울 거재居齋하면서 학문을 공부하였고, 봄과 여름 백일장을 치르거나 과거 공부인 거접居接을 시행하였다. 원생들은 중용中庸과 함께 과거 과목인 시문과 제술을 공부하였으며, 강회가 끝난 후 소백산을 유람했다는 기록도 있다.



소수서원전답안
紹修書院田畵案

1767 (영조 43)
33.0×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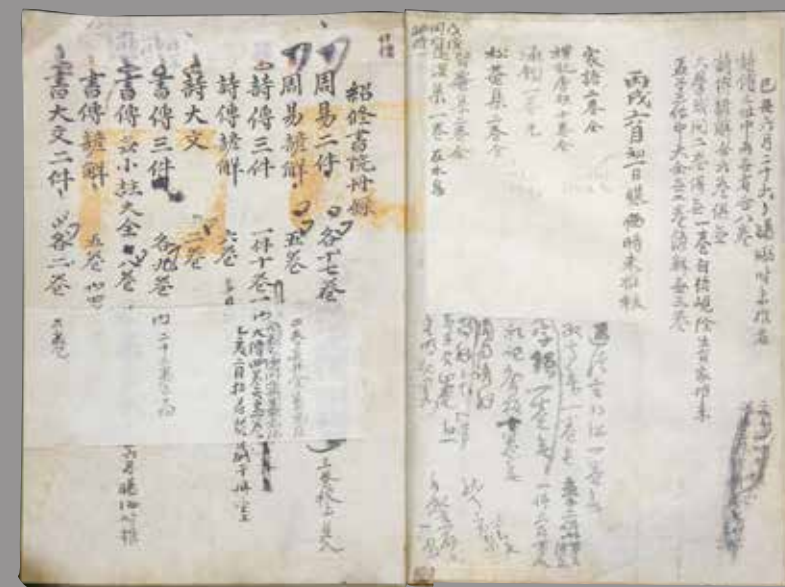
소수서원의 토지와 관련 된 기록물이다. 당시 소수서원의 토지는 순흥부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었고, 인근의 안동, 영천, 풍기에도 분포해 있다. 18세기 전답 규모는 19결 정도인데, 18세기 말에는 25결 정도로 증가했다.



소수서원노비안
紹修書院奴牌案

임오년 壬午
33.0×22.0 29장

소수서원이 보유하고 있던 노비 명부로 임오년壬午年에 작성된 것으로 1책 29장이다. 일반 족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가계를 볼 수 있으며, 출생년, 거주지 등을 모두 기재하고 있다. 당시 소수서원의 노비 소유 규모와 관리 실태를 알려주는 자료이다.



서원책록
書院冊錄

기축년 己丑
32.5×22.0

소수서원 소장도서의 목록으로, 각 도서별 권수와 소장 위치를 상세하게 기재해 놓았다. 반출하였다가, 반납하지 않은 도서 목록과 대여자 성명, 또한 책을 포쇄한 기록도 적혀 있다. 연대는 기축년으로 정확한 연대는 미상이다. 소수서원 도서 관리 실태를 엿볼 수 있는 귀중자료이다.



서원등록
書院騰錄

1546-1670
45.0X37.5

1546년명종 1-1670년현종 11 사이에 소수서원 운영 전반과 관련한 각종 사실을 기록해 놓은 기록이다. 건립 초창기인 명종 明宗 대의 기록이 대부분으로 1546-1547년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1546년 경상도 각 고을에 서원 운영 경비와 물자를 배정한 기록과 1547년명종 2 경상도慶尙道 관찰사觀察使가 작성한 입의立議는 소수서원 운영 실태뿐만 아니라, 당시의 서원 정책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심원록
尋院錄

기유년 己酉
47.0X29.0

소수서원을 방문한 인사들의 방명록으로 방문자의 성명과 본관, 방문 일자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심원록尋院錄에 기된 인사들의 면모를 통해, 조선시대 소수서원의 사회적 위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죽계지
竹溪志

1544 (명종 9)
32.0X21.0

죽계지竹溪志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지로서, 1554년 주세붕 周世鵬, 1495-1554이 편찬하였으며 초간 이후 몇 차례 중간되었다.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紹修書院에 관한 각종 기록을 수집하여 엮은 것으로 창건과정, 배향 인물, 특히 소수서원이 16세기에 소장했던 서적의 규모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한국서원의 장서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6권 3책본과 3권 1책본, 5권 1책본 등이 전해진다.



죽계지 책판
竹溪志

19세기
22.5X35.0

소수서원에는 죽계지竹溪志 책판 117장이 소장되어 있다. 본래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건립한 이듬해인 1544년중종 39 편찬, 간행한 것을 1803년순조 3년 안향安珦, 1243-1306의 후손 안시중安時中 · 안정진安鼎鎭 등이 다시 3책冊으로 간행하였는데, 1824년 안향安珦의 20대손 안병렬安炳烈이 안향安珦에 관한 기록을 모아 회헌실기晦軒實記를 간행 한 뒤 부록으로 삼기 위하여 책판을 새겼다.



여어편류
儼語編類

16세기
27.0×17.7 1책

명나라 조인규趙仁奎가 편찬한 책으로 16세기중엽에 갑진자로 간행되었는데 소수서원 소장본은 그 중 1책 권18이다. 책의 우측 상단부에 '백운동문성공묘서원상白雲洞文成公廟書院上'이라는 글이 필사되어 있고, 우측 하단부에는 소장인과 '내독원 물출가來讀院 勿出家'라는 글이, 그리고 권말의 좌측 하단부에도 소장인과 '내독원중 물출원문來讀院中 勿出院門'이라는 글이 필사되어 있다.



가례언해책판
家禮彥解

1632
21.5×36.0 4판

가례언해家禮彥解는 주희朱熹, 1130-1200의 가례家禮를 신식申湜, 1551-16230이 한글로 번역하여 1632년인조 10에 간행한 책이다. 전체 10권 4책이지만 책판은 서문序文의 4판만 남아 있다.



추원록 책판
追遠錄

1658 (효종 9)
20.0×36.5책판 302장

추원록追遠錄은 순흥에서 세거하던 순흥안씨의 상대 인물에 대한 자료집으로 관련 인물의 사마방목司馬榜目, 공신교서功臣敎書, 제문祭文, 묘지墓誌, 세계도世界圖등과 해당 인물이 찬攝한 시詩, 서문序文, 상량문上樑文 등 관련된 유적遺蹟을 망라하고 있다. 이 책판은 간행관련 기록이 목록 뒤에 수록되어 있어서 간행 당시의 활동 인물과 그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육선생유고 책판
六先生遺稿

미상
32.5×29.5

육선생유고六先生遺稿는 조선 단종조 사육신死六臣인 박팽년朴彭年, 1417-1456, 성삼문成三問, 1418-1456, 이개李壘, 1417-1456, 하위지河緯地, 1412-1456, 유정원柳誠源, ?-1456, 유응부俞應孚, ?-1456 등의 시문집이다. 전체 3권 3책이 지만 소수서원 소장책판은 권 제1, 3, 5에서 1장씩만 남아 있다.



무릉잡고
武陵雜稿

1859 (철종 10)
29.5×19.3

무릉잡고武陵雜稿는 소수서원을 설립한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시문집으로 철종조에 주세붕의 후손 주병항周秉恒 등이 도산陶山, 소수紹修 두 서원에 보존된 인본印本과 문중에 전래하던 사본寫本을 고정考訂하고 연보年譜, 비명碑銘 등을 넣어 1859년 철종 10에 증간한 것이다. 목록 1권, 원집 4권, 별집 4책이 있다.



향례합편
鄕禮合編

1797 (정조 21)
34.5×22.2

1797년정조 21 정조正祖가 이병모李秉模, 1742-1806 등 규장각 신에게 명하여 향례에 관한 것을 모아서 엮은 책으로 정유자丁酉字로 주자소鑄字所에서 간행하였고, 소수서원 소장본은 하사받은 내사본이다. 책의 표지 이면에는 1797년의 내사기內賜記(嘉慶二年六月 日 內賜慶尙道順興紹修書院 鄕禮合編 一件 直提學臣李[手決])가 있다.



백자 희준犧樽

소 모양의 희준犧樽은 초헌 때 올리는 술인 예제禮齊를 담는 준이다. 소수서원에는 백자로 만든 희준, 상준, 시준이 남아 있는데, 현재는 삼헌에 산뢰를 사용한다.



백자 상준象樽

코끼리 모양의 상준象樽은 아헌 술인 양제盎齊를 담는 준이다. 소수서원에서는 백자로 만든 희준, 상준, 시준이 남아 있는데, 현재는 삼헌에 산뢰를 사용한다.



백자 시준豕樽

소수서원에는 백자로 된 희준, 상준, 시준이 있는데, 돼지 모양의 시준은 종헌 때 쓰는 청주를 담은 향아리로 보인다. 현재는 삼헌에 산뢰를 사용한다.

향사 방명록인 시도록時到錄 작성

미리 정한 삼헌관과 대축, 그리고 집례, 유사와 임원은 향사 전 이틀이나 하루 전에 미리 서원 강당에 모인다. 이를 입재入齋라 하는데,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재계齋戒하는 것이다. 이 때 작성하는 것이 시도록, 또는 시도기이다. 이를 가지고 망기와 대조하면서 최종 제관 집사를 분정한다.



독축讀祝

신에게 고하기 위해 대축이 초헌관의 왼쪽에서 동향하여 축문을 읽는다. 이 때 대부분의 서원에서 참사자 모두 부복을 한다.



주신재周愼齋 선생先生 수필手筆 흘기笏記

주세붕이 처음으로 소수서원의 전신인 백운동서원의 향사 절차를 적은 것으로, 후에 이황이 이를 증감하여 법식으로 정하고 흘기로 사용해왔다.



퇴계退溪 선생先生 친필親筆 흘기笏記

이황이 주세붕이 정한 향사 절차를 증감한 친필 흘기로, 이를 법식으로 정하여 흘기로 사용해왔다.



백운동서원규를 읽는 경독敬讀

소수서원에서는 재계의 첫 순서로, 중국 송나라 주자가 백록동서원의 문도에 게 교시한 백운동서원규를 읽는데, 이 때 제관들은 모두 읊을 하고 서서 경청을 한다.



사당 안에서의 축문 작성

소수서원에서는 대죽이 초헌관을 모시고 사당에 들어가 축문을 쓰고, 축문 작성이 끝나면 축판에 넣어 향안 위에 올려놓는다. 다른 서원에서는 강당이나 사당 앞에서 축문을 작성한 후 초헌관에게 확인하고 사당 안에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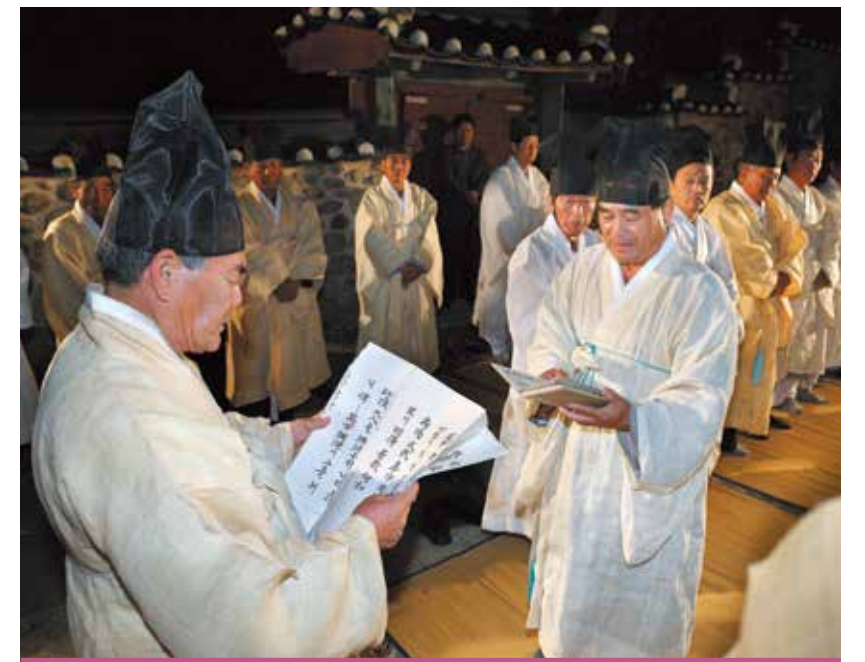
중문으로 들어가서 동문으로 나오는 헌관

소수서원에서 헌관은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중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동문으로 나와 동쪽 계단으로 내려온다. 다른 서원에서는 사당 출입에 중문은 신도神道로 여겨 출입을 금하고, 동문으로 들어갔다가 동문으로 나오거나, 동문으로 들어갔다가 서문으로 나온다.



도동곡道東曲 낭독

소수서원에서는 문성공 신위 앞에 헌작獻爵한 후에 도동곡道東曲이라는 악장樂章을 부르는데, 이 서원에서만 행하는 의식이다. 도동곡은 주세붕이 1541년충종 31에 지은 9장의 경기체가로, 안향에 의해 중국의 도학이 조선에 전래되어 널리 전파된 것을 찬양한 것이다.



지역유림의 자발적 건립과 한국 서원의 전형적 배치 구성을 지닌

함양 남계서원 瀨溪書院

- 소 재 지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6-1
- 창건연대 : 1552년명종7
- 사액연대 : 1566년명종21
- 국가지정 : 사적 제499호



남계서원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건립된 서원으로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사례이다. 건축적으로는 한국 서원 건축의 정형적인 배치방식이 처음 등장한 사례로 각각의 주요 영역을 구분하여 하나의 축선 상에 배치한 것은 이후 건립되는 서원 배치방식의 전범이 되었다.

주향 인물 : 정여창1450-1504

남계서원은 일두 정여창1450~1504을 제향한 서원으로, 한국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의 뒤를 이어 1552년명종 7 경상남도 함양에 건립되었다. 남계서원은 수령과 감사가 주도한 소수서원과 달리, 함양 사람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건립되었다. 건립 이후 남계서원은 실천하는 유학을 강조한 정여창의 뜻에 따라, 학문을 장려하고 향촌사회를 이끌어간 함양 사람들의 거점이었다. 그리고 한국의 서원에서 처음으로 유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이 정형화된 모습으로 전면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전저후고’ 지형에 ‘전학후묘’라는 독창적인 한국 서원 건축 배치의 정형을 마련한 서원이다.

남계서원의 주향 인물 정여창

남계서원의 주향인물은 정여창이다. 정여창은 함양 출신 사림으로 16세기 전반 중앙 정계에 관료로 진출한 인물이다. 일찍이 김종직에게 학문을 배우고 과거에 급제해 성균관에 머물다가, 모친상을 당한 뒤 지리산 아래 섬진나루에 은거하였다. 세자의 스승이 되어 연산군을 가르치기도 했으나, 1498년 무오사화 때 김종직의 제자라는 이유로 함경도 종성에 유배되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치며 학문에 전념하였으나, 결국 풀려나지 못하고 54세의 나이로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시신은 문인들이 함양으로 옮겨와 남계서원 뒤 승안산 기슭에 안장하였으며, 1610년 문묘에 종사되었다. 정여창은 평생 실천하는 유교를 강조하였으며, 그의 학문은 폭 넓고 유연하여 율령과 법률제도 등 국가경영에 필요한 실무에도 해박하였다. 정여창의 정치활동은 이후 사람들의 정치 참여의 하나의 유형이 되었다.

남계서원의 건립과 사액

남계서원은 소수서원 이어 1552년명종 7 건립되었다. 창건을 주도한 인물은 함양 출신 이자 남명 조식의 문도였던 강익으로 그의 주도 하에 함양 사림 30여 명이 뜻을 모으고 재곡과 서책을 모았고 함양군수도 강당 건립을 지원하였다. 이후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1561년명종 16 마침내 사우와 강당을 완성하고, 1564년 동서재와 연당을 만들어 서원의 모습을 갖추었다.

남계서원은 창건 이후 함양 및 인근 사람들의 회합의 장소가 되었으며, 16세기부터 거점, 통독, 강회 등 다양한 강학활동이 이루어졌다. 통독회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삭망 분향례를 행한 뒤 정기적으로 시행되었고, 비정기적으로는 강회를 개최하여 성리서를 강론하였다. 이 시기 남계서원의 강학은 강익, 조식, 오건 등 남명학파의 핵심 문도들이 주도하였다. 또 1565년 오건이 주도한 강회에는 조식, 강공하, 강문필, 강익, 김우평, 김우옹, 김우용, 노진, 도희령, 박사화, 양열, 양흥택, 양흔, 오언숙, 임언실, 정수복, 정중언 형제, 정지 등 당시 남명학파의 맹장들이 참석하여 주자연보와 연평문답 1권을 강론하였다. 또한 서원의 교육과 운영에 쓰고 남은 재정이 있을 때에는 인근의 서당을 지원하거나 마을 사람들의 상장례에 도움을 주는 등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면서 점차 고을의 중심기구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1566년명종 21에는 서원 주변을 흐르는 시내의 이름을 따서 ‘남계’로 사액을 받기에 이른다.

남계서원은 지방 지식인인 사림들에 의해 건립된 최초의 사례로서, 서원의 향촌교화적 특징을 대표하며 사림들에 의한 교육, 교화, 지역 지성활동의 정착과정을 보여준다. 지역의 향촌민에 대한 교화를 담당하고, 특히 조선후기에 들어와 흩어진 민심 수습을 위한 유교 윤리의 보급에 주력함으로써 서원의 교화적 특징을 대표한다. 또한 공론을 수렴하여 향촌 의병 활동을 한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즉 임진왜란으로 온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남계서원의 원생들은 의병을 일으켜 이를 막았다. 그러나 1597년 정유재란으로 일본군이 함양 일대를 습격하자 서원은 결국 폐허가 되었고, 임금이 내려준 서적들조차 흩어지고 말았다. 당시 정여창의 위패는 정경운이 땅 속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찾은 뒤 서원이 재건될 때까지 한 동안 작은 움막에 봉안해 두었다. 1610년 정여창이 문묘에 종사되고, 폐허가 된 서원은 우여곡절 끝에 1612년 남계의 옛터에 다시 세워졌다.

임란이후의 중수와 추배

인조반정 이후 남계서원에는 1642년인조 20에 정온¹⁵⁶⁹⁻¹⁶⁴¹과 유호인¹⁴⁴⁵⁻¹⁴⁹⁴을 병향한다. 동계 정온^{1569~1641}은 함양 출신으로 조식과 정구 등 여러 스승들에게 학문을 배우다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에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광해군의 노여움을 사 제주에 유배되었다. 인조반정 후에 다시 관직에 진출하였으며, 병자호란 때 척화를 주장하다 자결을 시도한 뒤 실패하자 향리로 돌아와 은거하였다. 이들은 성리학적 실천과 교육의 측면에서 함양을 대표하는 사림이자 남계서원 초기 운영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리고 1689년에는 남계서원에 강익¹⁵²³⁻¹⁵⁶⁷을 추배한다. 강익¹⁵²³⁻¹⁵⁶⁷은 남계서원의 건립과 운영에 전념하였으며, 1566년에는 영남 유생 33인의 소두^{疏頭}가 되어 정여창의 신원을 청하였고, 후학들에게 말보다는 실천중심의 학문을 강조하였던 인물이다.

조선 서원건축의 정형화

남계서원은 조선시대 서원 건축의 배치형식을 정립하고 성리학적 교육 공간 구성의 모범을 제시하였다. 이는 서원의 입지 및 건물 배치, 공간 구성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은 사우, 강당, 재사 간의 상호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건물의 배치 형식이 명쾌하게 정립되지 못했다. 그러나 소수서원보다 약 10년 뒤에 세워진 남계서원은 많은 측면에서 소수서원과 다른, 초창기 서원 건축의 배치형식을 확연히 정립하였다.

남계서원은 연화산 줄기의 끝자락 구릉지에 자리를 잡고, 서원 앞의 남계 들판을 바라보는 야경 입지를 하고 있다. 또한 서원의 건물들은 전저후고^{前底後高}의 경사진 지형에 적합하게 전학후묘의 제향-강학-유식 공간을 단계적으로 배치한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 강학공간은 유생들이 생활하는 동재인 양정재^{養正齋}와 서재인 보인재^{輔仁齋}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전면에 연지를 조성하고, 동서재 마루에 애련헌, 영매헌을 두어 건축물과 유식공간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였다. 강당인 명성당^{明誠堂}은 그 뒤에 위치하는 전재후당^{前齋後堂}의 배치를 하고 있다.

문루이자 교류 유식 공간인 풍영루는 18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누각의 건립은 이후 건립된 서원에서 보편화된 누각 건축물이 이후에 적용된 것이다.

남계서원은 다른 서원에 비해 건축 공간의 규모가 작다. 그러나 서원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각 건축물의 배치형식까지 시원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은 남계서원이 가진 건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장서와 고문서

남계서원의 소장 자료로는 『한주선생문집^{寒州先生文集}』, 『동계선생문집^{桐溪先生文集}』, 『송탄집^{松灘集}』등 여러 학자들의 문집류를 포함한 고서류가 147건, 각종 장부와 통문, 간찰 등의 고문서가 717건, 현판을 포함한 민속·유물자료가 5건, 『일두선생문집^{一蠹先生文集}』, 『개암선생문집^{介庵先生文集}』의 책판 377건이 있다. 특히 서원의 조직·운영과 관계된 자료로서 『남계서원지^{南溪書院誌}』를 비롯한 『경임안^{經任案}』, 『원생록^{院生錄}』, 『부보록^{裋寶錄}』, 그리고 이들 단회성^{單回性} 기록을 종합한 『존위록^{尊衛錄}』 등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주요 인물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회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그 가치가 높으며, 서원의 경제사적 측면, 그리고 교육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남계서원의 제향의례를 보면 원회^{院會}를 통해 미리 제관을 모두 선정하는데, 여기에는 원장을 비롯하여 함양 유림 30여 명이 모인다. 삼헌관과 기타 제관에 대한 선정을 마치면 바로 이들에 대한 망기^{望記}를 작성한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삭망례 절차도 다른 서원과 차이가 있다. 우선 신위마다 분향을 하며 이어 행하는 부복례^{俯伏禮}나 배례^{拜禮}를 각 신위 앞에서 하지 않고 사우를 나와 중문 밖에서 제관들이 일동 재배한다.



남계서원
瀟溪書院

1566
40.0X160.0

남계서원 사액현판으로 특이하게 '남계瀟溪'와 '서원書院'이 두 개의 현판으로 나뉘어져 있다. 남계瀟溪란 서원 앞을 흐르는 시내의 이름으로 '물이 넘친다'는 뜻과 통하며, 연꽃을 의미하는 뒷산 연화산蓮花山과 함께 물이 풍부한 땅에 서원이 입지하였음을 함축한다.



명성당
明誠堂

16세기
40.0X160.0

남계서원 강당의 현판으로 '명성明誠'이란『중용中庸』의 '참된 것을 밝히는 것을 가르침이라 하니, 참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참되게 된다'는 뜻이다. 교육을 통하여 참됨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이다.



양정재
養正齋

16세기
40.0X160.0

남계서원 동재의 현판으로, 주역周易의 '교육함으로써 사람을 바르게 기르는 것은 성인의 공덕이다'라는 것에서 따온 말이다.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양성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보인재
輔仁齋

16세기
40.0X160.0

남계서원 서재의 현판으로『논어論語』의 '군자는 글로써 벗을 사귀고, 벗으로써 인을 돕는다'고 한 것에서 따온 말이다. 정여창鄭汝昌, 1450-1504과 김굉필金宏弼, 1454-1504과 벗으로서 서로 도운 사우師友 관계를 함축하고 있다.



풍영루
風詠樓

1841(헌종 7)
40.0X160.0

남계서원 문루의 현판으로 멀리 보이는 지리산의 봉우리들과 화림천化林川의 흐름에서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의 모습과 기상을 떠올릴 수 있다.『논어論語』의 내용 중 '기수에서 멍 감고 무우에서 바람을 쏘이고 노래하며 돌아오겠다'는 증점會點의 뜻을 바로 여기서 느낄 수 있다 하여 풍영루風詠樓라 이름 지었다 한다.



以友輔仁也齊之二新曰愛蓮而各有其而宜額曰蘆溪書院於吾東者周茂陵外溪之後始興而三侯之誠意既極總總朝家扶世教而啓迪予我民乎以達其感三侯尚賢之誠養夫子倡道之其道不徒學之而思所以盡其精夫子爲實剛毅之志而歲時於斯省之際而變化其氣質予以察情



준도문
遵道門

16세기
40.0×160.0

남계서원 풍영루 아래 문루에 걸린 현판으로 준도遵道란『중용中庸』의 ‘군자는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도를 좇아 행한다’는 뜻이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군자의 마음자세를 의미한다.

남계서원기
蘆溪書院記

1566 (명종 21)
40.0×160.0

1566년명종 21에 강익姜翼, 1523-1567이 지은 기문으로 1552년-1562년의 남계서원 건립과정과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의 학덕을 칭송하고 있다. 말미에 남계서원이 조선에서 두 번째로 창건되었음과 당시 건립을 주도한 서구연徐九淵, 윤확尹確, 김우홍金宇私 3인의 공을 칭송하고 있다



풍영루기
風詠樓記

1841 (현종 7)
39.5×154.0

1840년 유림들이 의견을 모아 풍영루의 증축을 결정하고, 이듬해 6월에 완공한 사실과 증건을 주도한 인물들의 공을 칭송하고 있다. 정환필鄭煥弼이 지었다.

풍영루중건기
風詠樓重建記

1849 (현종 15)
38.5 × 142.5

1847년현종 13 화재를 입은 풍영루를 1849년현종15에 증진한 사실을 기록한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의 기문이다. 또 이와 함께 정환필鄭煥弼의 청으로 기문을 작성한 사연과 풍영루의 유래와 배향자 정여창鄭汝昌, 1450-1504 등의 공적을 언급하고 있다.





남계서원경임안
蘆溪書院經任案

1552-1687
30.0×22.0 (총 8책)

1552-1687년 사이 남계서원의 원임院任인 원장院長, 유사有司, 전곡유사典穀有司를 역임했던 인사들의 명단이다. 각 명단 아래에는 재임 기간, 교체 시기 및 교체 사유, 그리고 해당 인물의 업적도 간략히 소개해 놓았다. 남계서원 운영을 주도했던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부보록
哀寶錄

1552-1913
26.0×29.0 (총 3책)

1552년명종 7부터 1913년까지 남계서원에 납부된 일종의 기부금 장부이다. 여기에는 사족 및 지방관들로부터 기부 받은 각종 물목이 기부자의 성명과 함께 시기별로 나열되어 있다. 기부된 물목으로는 벼, 콩, 서적, 노비, 어물, 소금, 백지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원록
院錄

1651-1671
35.0×25.0

작성 당시 남계서원에 소속되어 있던 원생들의 명단들을 수록한 것이다. 원생이 거주지를 옮겼거나, 개명했을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성명 아래에 부기해 놓았으며, 만약 무반武班 가 문일 경우 '반무反武' 라고 기재하였다. 남계서원의 인적 구성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남계서원전답양안
蘆溪書院田畝量案

1740 (영조 16), 1780 (정조 4)
49.0×30.0, 47.0×30.5 (총 2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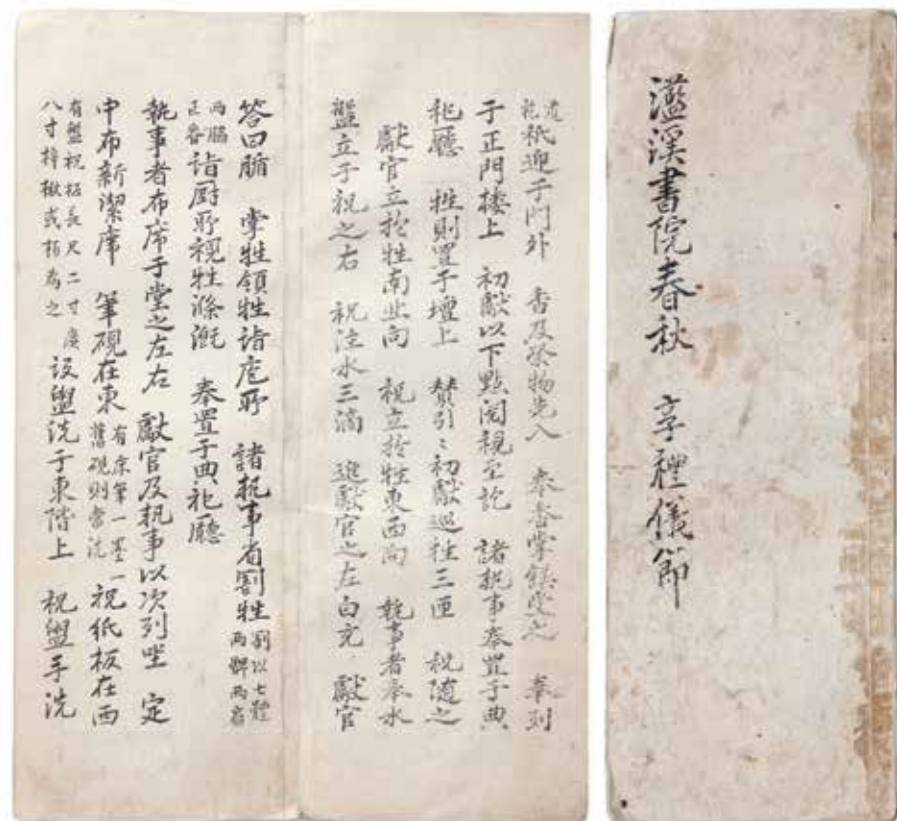
1740년영조 16 서원의 전답에 대해 소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청에서 양안量案에 의거하여 베긴 뒤 엮어 놓은 자료이다. 특히 1733년 새롭게 토지를 매입하고 방매한 사실 및 경작자 변동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남계서원의 전답 소유 규모의 변천과 경제적 기반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이다.



남계서원완문
蔭溪書院完文

1843 (현종 9)
32.0×29.0

서원노비를 비롯한 서원 인근에 거주하는 10호戶에 대한 서원측의 군포軍布 징수를 관에서 인정해 주는 증명서이다. 서원의 경제적 기반과 서원과 해당 지방관과의 관계를 살펴 볼 수 있다.



남계서원춘추향례의절
蔭溪書院春秋李禮儀節

미상
40.0×14.0 (총 1책)

남계서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춘추향사의 시일時日, 재계齋戒하는 절차, 제물을 살피는 절차, 음식을 진설陳設하는 그림, 축문祝文 등을 수록해 놓은 문서로 작성 시기는 미상이다. 남계서원의 의례 절차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일두선생문집 책판
一蠹先生文集

1635-1919, 미상
24.0×37.0책판 368매

정여창의 문집으로 증손자 정수민鄭秀民, 1577-1658과 한강寒岡 정구鄭逵, 1543-1620가 함께 수집·검수한 것을 1635년인조 13에 처음 발행하였다. 이어 1743년영조 19에 도암陶庵 이재李穰, 1680-1746가 초간본에 누락된 것을 보완, 편집하여 유집遺集 3권으로 발행하였다. 그 후 1919년에 남계서원에서 다시 정여창의 시문과 사우록, 그리고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의 후손 정환주가 수집한 것을 모아 속집으로 부록을 포함 4권으로 발간하였다.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 166호



개암선생문집 책판
介庵先生文集

1686
21.0×36.0

남계서원에 배향된 강익姜翼, 1523-1567의 문집으로 상권에는 시詩, 서書, 기記, 추록追緣이 있고, 하권에는 세계世系, 연보年譜, 행장行狀, 제문祭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정지운의 서문이 있으며 1686년숙종 12 '남계서원개간濫溪書院開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이 후에 보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집의 추록에 강익의 시조 3수가 있다.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67호.

희생의 상태를 살펴보는 성생단省牲壇

남계서원에는 강당 우측에 있는 성생단省牲壇에서 향사에 사용할 희생인 돼지를 점검하는 성생례를 한다. 대축과 초헌관 등이 돼지를 성생단에 놓고 솔가지를 이용해 돼지 위에 물을 뿌리며, 희생으로서 충분한지를 묻는다.



제관을 선정하는 원회院會

남계서원에서는 관례에 따라 서원 측에서 미리 추천하여 받아놓은 인사들을 중심으로 삼헌관 등 14인의 제관을 선출한다. 제관을 선출한 다음에는 제관선정기를 작성하여 원회에 참여한 유림에게 확인한 후 강당에 붙여 공고한다.



주향위主享位에 희생으로 바친 돼지의 머리와 앞다리

남계서원에서는 희생으로 검은 색의 살아있는 돼지를 사와서 묘정의 성생단에 서 성생례를 한 후 고직사로 가져가 잡는다. 희생의 규모를 구분하기 위해 돼지의 머리와 앞 다리는 주향위에 올리고, 뒷다리는 하나씩 배향위에 올린다.



생슬가지로 희생에 물을 뿌리는 성생례省牲禮

남계서원에서는 대축과 초헌관, 유사가 성생단을 돌면서 희생으로 쓰일 돼지에 흠은 없는지를 살펴본다. 벽사의 의미로 술가지로 이용해 돼지 위에 물을 뿌리고, 돼지가 희생으로서 충분한지를 세 번 묻는다.



각 신위마다 폐백을 올리고 재배하는 전폐례奠幣禮

남계서원에서는 분향 후에 폐백을 올리고 재배를 하며, 바로 초헌례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전폐례 때 재배를 하지 않는다.



신위 앞 전작奠爵

남계서원의 삼헌 작의 위치는 신위 바로 앞, 즉 제상의 북쪽에 위치한다. 다른 서원의 경우, 삼헌 작의 위치는 대부분 제상의 남쪽에 위치한다.



헌작 전 재주祭酒

남계서원에서는 '창주정사 석채의'와 같이 각 신위마다 헌관이 삼재주三祭酒한 다음에 헌작하고 사당 내 신위 앞에서 재배를 한다. 다른 서원에서는 헌작 후 재배가 없거나, 종헌을 한 후에 삼헌관만 재배를 한다.



양 창문을 닫는 함독闔櫺

남계서원의 위패는 다른 서원과는 달리, 양창독에 봉안되어 있다. 대개 서원에서 위패를 봉안하는 함櫺은 좌座와 개蓋로 구성되어 있어서 뚜껑을 들거나 덮는데 반해, 남계서원에서는 양창독으로 되어 있어서 양창을 열거나 닫는다.



기록문화와 관련된 출판 활동의 중심지였던

경주 옥산서원 玉山書院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옥산서원길 216-27
- 창건연대 : 1572년선조5
- 사액연대 : 1573년선조6
- 국가지정 : 사적 제154호^{1967. 3. 8}



옥산서원은 출판과 장서의 중심 기구로서의 서원의 역할을 정립하였고, 건축적으로 서원 영역의 앞에 누마루를 도입하여 교류와 유식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옥산서원 이후 서원에 누마루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주향 인물 : 이언적¹⁴⁹¹⁻¹⁵⁵³

옥산서원은 조선 중기의 도학자 회재 이언적 선생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1572년선조 5 경주부윤 이제민과 향인들이 협력하여 창건하였고, 1573년선조 6 ‘옥산’이라 사액을 받았다. 건립 이래로 440년 이상 경주지역 학맥과 교육전통을 이어오면서, 영남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성장하였다.

조선 성리학의 선구자 이언적李彦迪

옥산서원의 제향인물 회재 이언적1491~1553은 종묘宗廟와 문묘文廟에 배향된 관료이자 학자이다. 회재는 한국 성리학 발전 단계에서 존재론·우주론 등의 성리학 이론을 탐구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주도하였고, 16세기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성리학에 기반을 둔 정치적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고, 왕실의 성리학 교사로써 활동하였다.

이언적은 1514년중종 9 대과에 급제한 뒤 홍문관·시강원·성균관 등 문한직과 사헌부·사간원 등 언관직을 역임하였고, 1547년명종 2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평안도 강계로 유배될 때까지 문한·언관직 및 육조·의정부 등의 당상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이언적은 유배기간 동안 활발한 저술활동을 통하여 경세가로서 뿐만 아니라 정주程朱의 학설을 따르면서도 자주적이고, 독창적인 면모를 보인 16세기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이황은 회재의 「행장」에서 ‘덕과 행이 부합하였으며 뚜렷이 문장으로 나타내고 훌륭한 말을 후세에 남겼으니, 이러한 분을 우리나라에서 구한다면 그에 짝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극찬하였다. 회재의 학문은 이황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영남 사람들의 성리학 형성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황과 함께 동방오현東方五賢의 한분으로 추존되면서, 조선 성리학의 적통을 계승한 인물로 확정되었다.

천인합일의 조화! 서원 건축

옥산서원은 서쪽 자옥산을 바라보며 서향을 하고 있다. 북쪽 화개산을 주산으로 해서 앞으로 흐르는 자계천과 주변의 울창한 수목이 빼어난 경관을 이룬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서원은 자계천 둔덕의 너럭바위인 세심대를 마주 보는 곳에 있다.

옥산서원 공간은 무변루가 중심이 되는 유식 구역, 강당을 중심으로 한 강학講學 구역, 사우가 중심이 된 제향祭享 구역, 부속건물의 부대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건물들은 앞쪽에 강학 공간을, 뒤쪽에 제향공간을 형성해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하고 있다. 아울러 정문에서 사우까지 일직선상으로 중심축을 이루고, 자계천에서부터 사당에 이르기까지 절도 있고 위계적으로 분절되어 있는 전저후고前低後高의 건물 배치를 보인다.

사우인 체인묘體仁廟, 강당인 구인당求仁堂, 강당내 동서 협실인 양진재兩進齋와 해립재偕立齋, 문루인 무변루無邊樓, 정문인 역락문亦樂門은 영의정 노수신盧守愼이 명명하고, 현판은 당대의 명필인 석봉 한호韓濩가 썼다. 역락문은 학문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이라는 뜻이며, 무변루는 원래 납청루納淸樓라 했던 것을 바꾼 것으로서 주돈이의 ‘풍월 무변風月無邊’에서 유래한 것으로 서원 밖 계곡과 산이 한눈에 들어오게 하여 그 경계를 없애는 곳이란 의미이다. 당호는 이언적의 저서 『구인록求仁錄』에서 따온 것이며, 양진과 해립은 성리학의 으뜸이 되는 명성明誠과 경의敬義로서 가르치는 자의 마음가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의 강당은 1839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던 것을 증건한 것으로 외부에 걸린 ‘옥산서원’ 사액 현판은 재사액 당시 추사 김정희金正喜가 쓴 것이며, 내부의 것은 원본이 소실되었기에 영의정 이산해李山海의 글씨를 구하여 1839년에 모각한 것이다. 동·서재인 민구재敏求齋와 암수재闇修齋는 성균관 대사성 허엽許晬이 명명하고, 현판은 승지 배대유裴大維가 썼다. 이는 유생들이 옛 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찾아 배워서,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나날이 새롭고 밝게 학문을 펼쳐나가는 학문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체인은 어질고 착한 일을 실천에 옮긴다는 말로 성리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문이다. 이외에도 경각經閣을 비롯하여 고직사, 포사, 문집판각, 신도비神道碑와 비각碑閣이 있다. 경각은 어서각御書閣으로도 불렸는데, 조정에서 하사받은 내사본內賜本과 고왕록考往錄, 심원록尋院錄, 원임록院任錄 등 서원의 중요 전적을 보관하였다. 문집판각은 1834년 정혜사가 화재로 소실된 후 사찰에 보관하던 회재의 문집 및 저서판목 등을 보관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신도비는 기대승寄大升이 찬撰하였고, 1577년선조 10에 이산해의 글씨로 옥산서원 내에 건립되었다.

옥산서원은 건축적으로 교류와 유식 시설로서 누마루 건축물을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무변루無邊樓가 그것으로 누각을 서원에 처음으로 적용하여 유식공간의 건축 양식을 정형화하였다. 무변루는 정면 7칸, 측면 2칸에 맞배지붕 건물로 강학공간과 유식공간을 구분하는 진입문이자 외부와 내부의 경관을 연결하는 건축물로, 이후 건립되는 서원들의 건축 구성에도 영향을 끼쳤다.

옥산서원의 우수한 기록 문화유산

옥산서원은 현전하는 서원들 중 다양한 자료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다. 이들 자료는 고서, 고문서필사원본류, 책판 등의 기록문화 유산이 대표적이다.

3,000책이 넘는 고서는 1512년 간행된 『삼국사기三國史記』9책 50권가 보물 제525호로 지정되었으며,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全集』·『번역소학翻譯小學』 등의 희귀·귀중본도 많이 있다. 한편, 옥산서원에서는 『회재선생문집』, 『구인록』, 『근사록近思錄』, 『태극문변太極問辯』, 『구경연의九經衍義』, 『대학장구보유』 등 제향인인 이언적의 문집과 저서의 책판을 자체 제작하여, 인쇄하기도 했다. 별도의 간소刊所를 두어 이들 책판을 제작 및 수리하였는데, 정혜사가 화재로 소실되기 전까지 그곳에 판목은 보관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목판은 총 19종 1,121판이다.

옥산서원에는 서원 운영과 향촌사회의 구체적 실상을 보여주는 필사원본류와 고문서도 1천여 권이 남아있다. 이들 고문서는 그 내용에 따라 크게 서원의 인적구성과 조직·운영 체제, 그리고 서원 경제 관계 및 기타 일기·부조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원초기의 경제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토지와 노비에 관한 문서, 서원의 역사, 원장·유사 등 원임院任의 명단, 서원을 내방한 인사가 자필로 서명한 방명록, 수입·지출 상황을 기록한 경리장부 등 서원 경제에 관계된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이들은 경제사적으로도 의의가 큰 자료이다.

대표적으로 옥산서원 건립 당시부터 서원을 방문한 인사가 자필 서명한 일종의 방명록인 『심원록尋院錄』 110여 책『본향심원록本鄉尋院錄』 48책 별도이 있다. 이외에도 원유생院儒生案, 원속안院屬案, 도록都錄 등 서원 경제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남아 있다. 고문서 「천안薦案」은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반 사이의 것인데 입원 유생의 명단, 입격入格, 필강畢講 여부가 기재되어 있다. 「강안講案」에는 구체적인 교육평가가 기재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입학기立學記』, 『산당거접시등록山堂居接時膳錄』 등도 남아 있어서 실질적인 서원의 교육적 기능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 각종 등록膳錄·완의류完議類는 옥산서원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작성된 공문서와 규정을 엮어 놓은 것이다. 대표적으로 『정서등록正書膳錄』과 『등록膳錄』이 있다. 『정서등록』은 1730년영조 6에 1589년부터 1683년까지 작성된 상서 46건을 엮은 것으로, 대부분 속사인 정혜사 승려의 승역, 서원노비, 서원전, 서원 소속 선박과 소금가마, 염부, 격군, 어부 등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면세, 분급, 면역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등록』은 18세기 후반에 작성한 것으로 옥산서원 재정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전 규정과 신규로 제정한 것을 함께 기록한 것이다. 32개 조항의 규정은 원속들의 역할과 신공身貢양과 기간, 원임, 서원건물의 관리, 서원의 일상 용품의 수수收受 등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물의 중수와 각 종 공사가 있을 때에는 그 과정을 일기日記로 기록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부조기扶助記·도록都錄·하기下記 등도 반드시 작성하여 공사 당시의 각종 수입과 지출상황을 기록하였다. 1839년현종 5 화재로 구인당을 증건할 당시에는 『구인당 증건일기求仁堂重建日記』·『강당증건시향중출물치부講堂重建時鄉中出物置簿』·『중수전봉상기重修錢捧上記』·『향중전입기鄉中錢入記』·『도내전입기道內錢入記』·『중수전책重修錢冊』 등의 각종 기록물이 작성되었다.

옥산서원은 경상도 동부의 서원과 사림의 공론을 주도하며 발전해 갔다. 지역의 다양한 이슈에 관해 옥산서원에 모여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하였다. 옥산서원의 사림은 19세기 말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성리학 전통을 고수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근대화 정책에 반발하여 지역 사림들의 연명상소인 만인소를 주도하였다. 8,849명의 사림이 서명한 이 자료는 현재 옥산서원에 소장되어 있다. 고문서 가운데 18~20세기까지의 영남유림 사회의 교류 범위와 현안을 확인할 수 있는 「통문通文」도 200여 점으로 매우 많다.



옥산서원
玉山書院

1574 (선조 7)
83.0 × 240.0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 편액으로, '옥산'은 서원이 위치한 자옥산紫玉山의 지명에서 유래하였다. 1572년선조 5에 묘우를 건립하고, 1574년 선조 7에 옥산서원으로 사액되었다. 글씨는 사액 당시 아계鰲溪 이산해李山海, 1539-1609가 썼으며, 현재 편액은 옛날의 것을 모각한 것이다.



체인묘
體仁廟



옥산서원 사당 편액으로, '체인'은 인仁을 체득한다는 뜻으로 유학의 핵심가치이자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의 중심 사상이기도 하다. 노수신盧守愼 1515-1590이 이름을 짓고 한호韓濩, 1543-1605가 글씨를 썼다. 현판 좌측에 노수신이 4언 4구 형식으로 '체인'의 의미를 기록해 둔 것이 특이하다.



옥산서원
玉山書院

1839 (헌종 5)
79.0 × 180.0

옥산서원의 강학공간인 구인당求仁堂이 화재로 소실된 이후 1839년헌종 5에 다시 받은 편액으로, 글씨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썼다. 현판 좌측에 "1574년선조 7 사액을 받은 후 266년이 지난 1839년에 불이 나 다시 써서 사액한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구인당
求仁堂

16세기
84.0 × 182.0

옥산서원 강당 편액으로, '구인求仁'은 『논어論語』『술이述而』편에서 인용한 말로, 성현의 학문은 인仁을 구하는데 있다는 것은 이언적 학문의 핵심 사상이기도 하다. 노수신盧守愼, 1515-1590이 이름을 짓고 한호韓濩, 1543-1605가 글씨를 썼다. 현판 좌측에 노수신이 4언 4구 형식으로 '구인'의 의미를 기록해 둔 것이 특이하다.



무변루
無邊樓

1572 (선조 5)
62.0×1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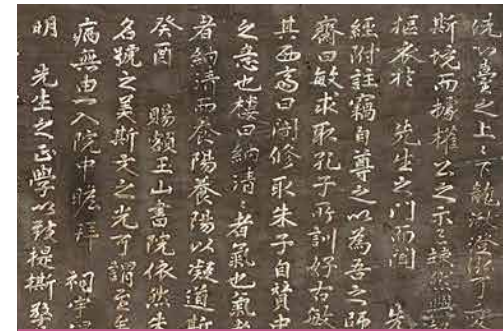
옥산서원 2층 누대편액으로, ‘무변’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은 끝이 없네 [풍월무변風月無邊]이라는 뜻으로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인품을 칭송한 말이다. 아울러 서원 주변의 산수경관이 한 점 티끌만 지 없는 청정한 경계를 가리킨 말이기도 하다. 본래 명칭은 ‘납청루納淸樓’였는데, 노수신盧守愼, 1515-1590이 ‘무변루’로 이름을 바꾸었고, 글씨는 한호韓濩, 1543-1605가 썼다.



역락문
亦樂門

1572 (선조 5)
49.0×1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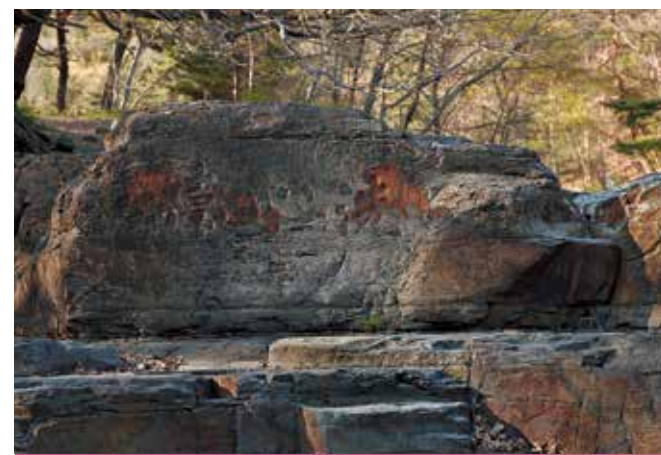
옥산서원 출입문 편액으로, ‘역락赤樂’은 논어論語 학이學而 편에서 인용한 말로 뜻이 맞는 벗이 멀리서 찾아오면 기쁘다는 의미이다. 소재 노수신이 명명하고 석봉 한호韓濩, 1543-1605가 글씨를 썼다. 현판 좌측에 노수신盧守愼, 1515-1590이 4언 4구 형식으로 ‘역락’의 의미를 기록해 둔 것이 특이하다.



옥산서원기
玉山書院記

1573(선조 6)
44.0×130.0

허엽許曄, 1517-1580이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의 문인 권덕린權德麟, 1529-1573의 부탁으로 지은 기문으로 무변루에 걸려 있다. 옥산서원이 경주 유림들이 뜻을 모으고 경주부, 경상감영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었음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경주에서 국가에 필요한 인재들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글이다.



세심대
洗心臺

옥산서원과 서원 앞을 흐르는 옥산천 사이 너럭바위에 새겨진 각석으로, ‘세심洗心’은 계곡의 맑은 시냇물을 보면서 마음의 티끌을 깨끗이 씻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세심대’는 이언적이 명명한 사산오대四山五臺 가운데 하나이며, 정조正祖때 이곳 주변에서 지방 초시初試를 개최하기도 했다. 글씨는 이황李滉, 1501-1570이 썼다.



백록동규
白鹿洞規

미상
62.0×150.5

옥산서원의 강당인 구인당 왼쪽 벽에 걸린 현판으로, 송나라 주희朱熹, 1130-1200가 중국 강서성 여산에 있던 백록동서원의 학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만든 학규이다. 참된 군자로서 수행해야 할 오교지목五教之目, 위학지서爲學之書, 수신지요修身之要, 처사지요處事之要, 접물지요接物之要 등의 다섯 가지 내용이 적혀 있다.



서책불출문의
書冊不出門外

경자 庚子
86.0×138.0

어서각 [경각經閣] 문 위에 걸어두었던 이 현판은 옥산서원의 도서관리 규범으로 “서책을 서원 문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내용 등 이황李滉, 1501-1570이 처음 정한 규정과, 이로부터 300년 후 정조正朝가 이에 대하여 내린 명령이 함께 쓰여 있다.



전교등서
傳敎騰書

19세기 초
62.0×158.0

원래 1676년숙종 2 개관 했던 것을 1839년현종 5의 화재로 소실되어 다시 작성한 것이다. 당시 경연에서 서원 모입자들이 흠어져 선비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자 숙종이 문묘에 종향된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의 모입자에 대한 물침勿侵의 전교傳敎를 내렸는데 이 기문은 그 내용을 등서한 것이다.



옥산정사기
玉山精舍記

1802
66.7×166.0

1802년 경상관찰사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이 독락당을 찾았다가 후손의 청으로 지은 글이다. 이언적의 행적과 조정의 추존 사실, 그리고 그의 자취가 서린 옥산정사 일대의 자연 경관에 대하여 적고 있다.



심원록천
尋院錄天

1573-1583
33.3X22.5

1573년선조 6부터 10여 년간 옥산서원을 내방한 지방관과 타읍 소속 유생 등 총 168명이 자필 서명한 방명록이다. 기재순서는 직위분관, 인명, 거주지, 내방일 순으로 되어 있다. 옥산서원 심원록은 20세기 초까지 총 103책이 현존한다. 그리고 이외에 본향심원록本鄉尋院錄이라 하여 경주부내 인사들의 방문록을 1756년영조 32부터 별도로 작성하여 총 48책이 전한다.



정서등록
呈書騰錄

1588-1683
22.2X28.0

1588년선조 21부터 1683년숙종 9까지 옥산서원 유생들이 감영, 병영, 경주부와 여러 읍에 청원한 문서 46건을 필사하여 성책한 것이다. 내용은 노비奴婢, 전답田畵, 속점屬店·속사屬寺 등의 사급賜給과 면역免役·면세免稅에 관한 것으로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 기반 형성과정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만력6년 옥산서원 관노비안
萬曆六年 玉山書院 官奴婢案

1578(선조 11)
33.3X22.5

1578년선조 11 4월 경주부에서 받은 관노비들의 명단이다. 고직庫直, 도척刀尺, 반모飯母 각 1구와 속공노비屬公奴婢, 노 3, 비 11구 14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옥산서원 건립 초기 노비의 규모를 알려주는 자료로서 지방관의 협조가 서원경제에 큰 부분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승정2년 기사 원노비안
崇禎貳年 己巳 院奴婢案

1629 (인조 7)
20.8X20.7

임진왜란 이후 옥산서원에 소속된 노비의 규모를 알려주는 자료이며, 당시 옥산서원에는 총 58구노 25구·비 33구의 노비가 있었다. 노비명과 나이, 기타 질병·방매 등을 적고 있다.



입학기 立學記

1649
36.0 ×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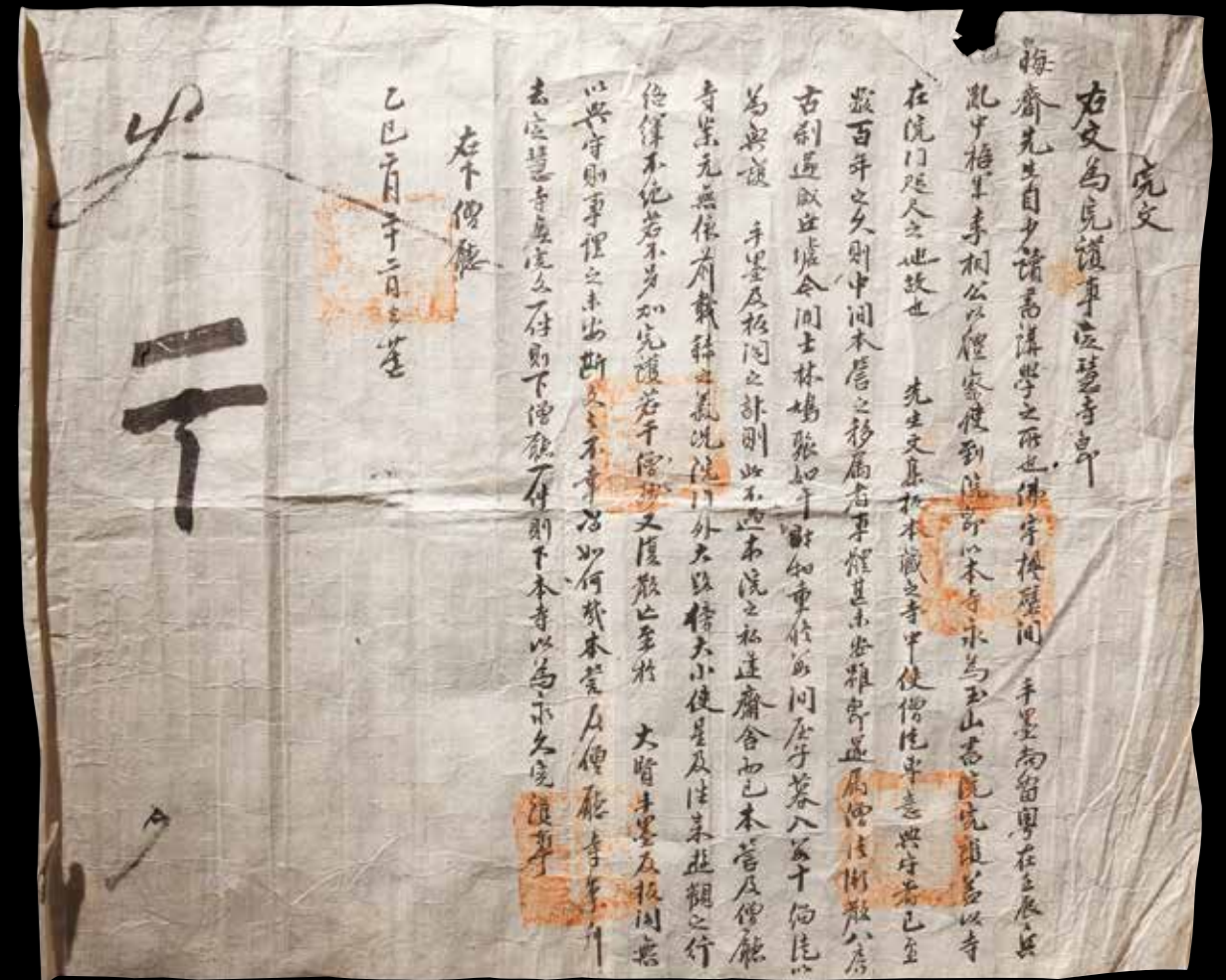
1649년인조 27 유생들의 입학과 교육활동을 기록한 장부로 유생 30명을 5명씩 6학學으로 나누어 이름을 기재하였다. 입학 후에는 거제활동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5일간 기숙하며 송시誦時와 독서讀書를 하도록 했다. 또한 강회 참석과 거제 태도를 평가하여 정도에 따라 벌을 주고 있다.



전교등서 傳敎謄書

1679 (숙종 5)
1690 (숙종 16)
38.5 ×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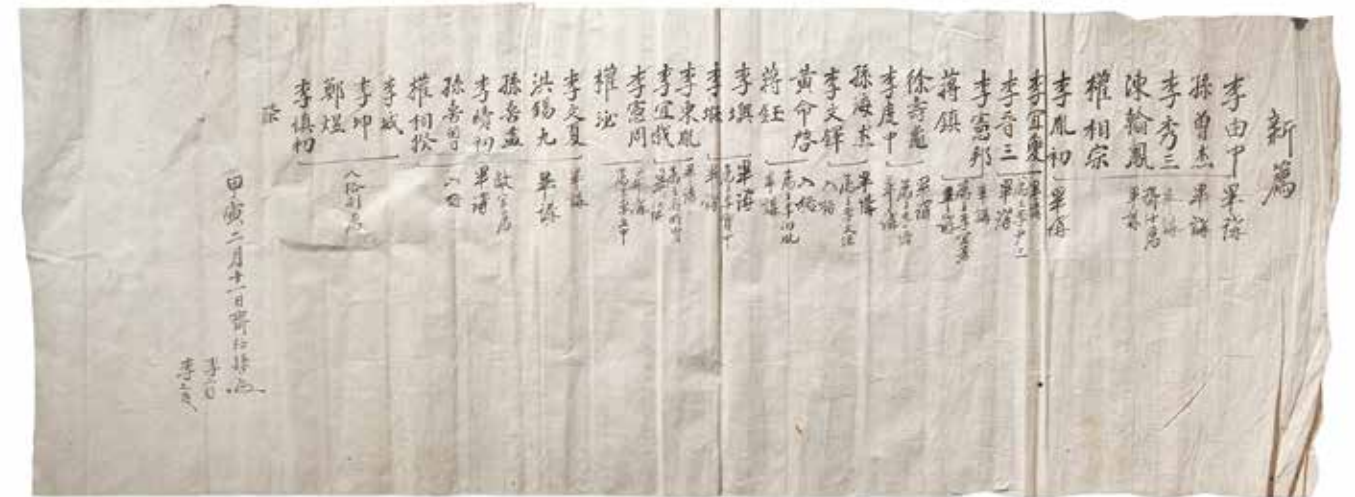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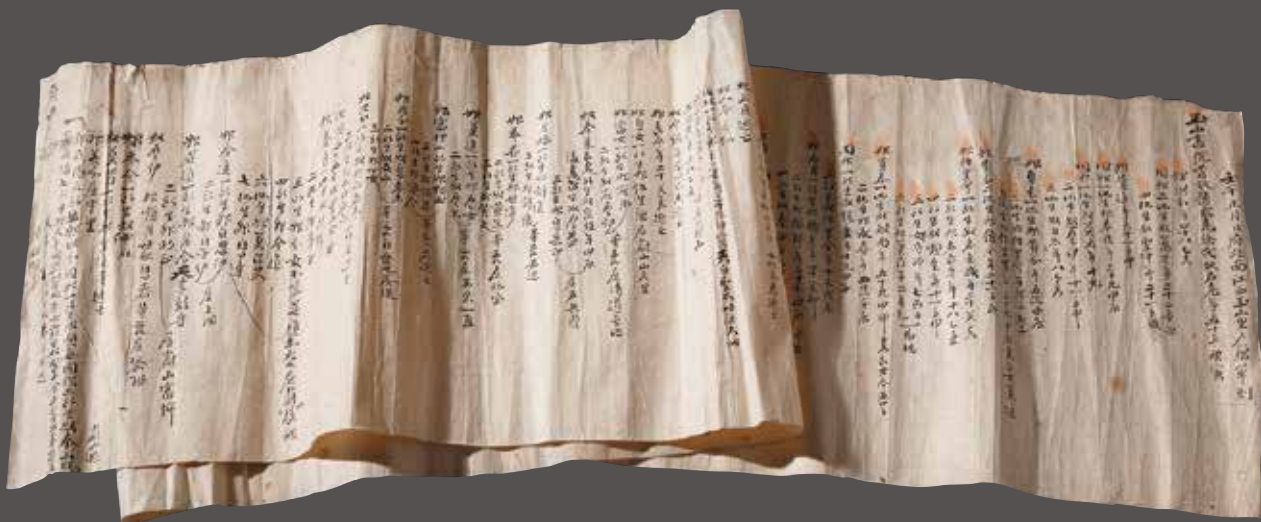
1676년숙종 2 숙종이 옥산서원 등 문묘에 종사된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의 모입자募入者들에 대하여 특혜를 주는 하교 내용과 1690년숙종 16 원속院屬을 되돌려주라는 왕명을 등서 한 것이다. 17세기중반 서원에 모입자들이 늘어나자 국가가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였는데, 옥산서원은 숙종의 전교를 근거로 특별히 제재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자료이다.



완문 完文

1785 (정조 9)
55.0 × 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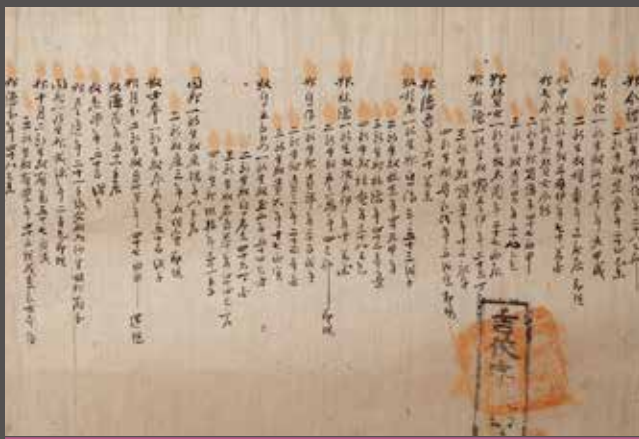
1785년정조 9 경상감사가 발급한 것으로 창건부터 옥산서원의 속사였던 정혜사定慧寺를 각종 수탈로부터 보호 받도록 조치하고, 소속 승려들로 하여금 회제 이언적의 수목과 문집판목을 영구히 수호하게 하고 있다. 옥산서원은 이러한 관의 특혜를 통해 정혜사로부터 각종 물품의 조달과 승도들의 서원내 사역 동원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



천안 薦案新薦

1734
36.0X100.5

1734년영조 10 옥산서원 유생으로 천거薦學된 32명의 명단과 천주薦主를 기재한 문서로 천주는 헌관·원임·원유院儒들로서 각자 2-15명의 유생을 춘추향사와 도회道會·당회堂會·향회鄉會 등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천거하였다. 천거 유생명단 아래에는 고강考講과 생원·진사시 합격入格한 여부를 표기하고 있다.



호구단자 戶口單子

1762 (영조 38)
36.0X2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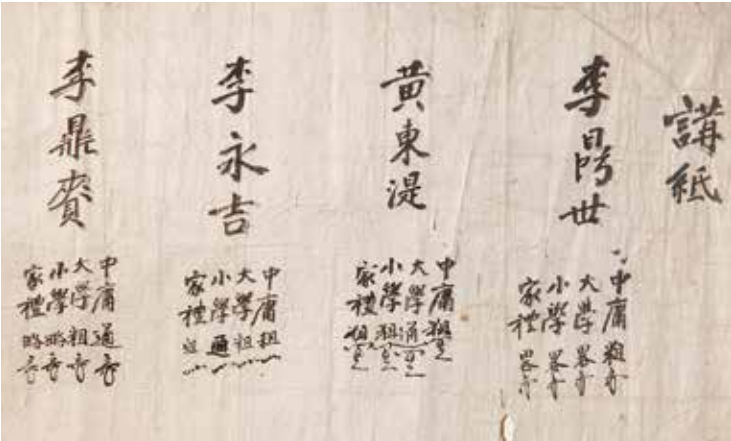
옥산서원 수노首奴 석노石老가 1762년에 작성한 호구단자로 서원 소속 노비 162구의 이름, 나이, 출생년, 거주지, 부모, 혼인관계 및 매득買得 도망逃亡, 환현還現 등을 표기하였다. 노비들은 옥산리를 중심으로 한 경주부의 지역은 물론 영천, 밀양, 울산 등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18세기 후반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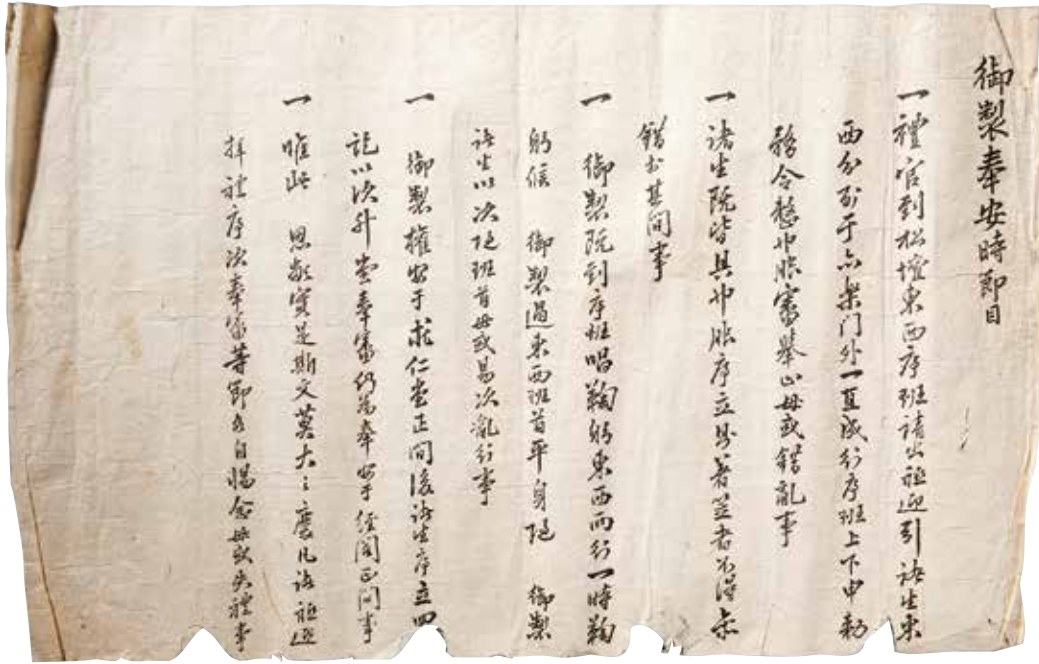
전여기 傳興記

1746
19.5X28.4

1746년영조 22 옥산서원 원임의 교체시에 작성한 인수인계 장부로 서책書冊, 제복祭服, 제기祭器, 유기鑪器, 철물鐵物, 신물新物, 포진鍊陳, 목기木器와 각종 문서, 서책書冊, 책판冊版 등의 목록들이 적혀 있다. 옥산서원에는 이밖에 간소刊所, 서책書冊 전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전여기 총 52책이 전해진다.



강지 1802 41.6X266.0 1802년순조 2과 1817년순조 17에 실시한 고강考講의 성적 기록부로 시험과목은 중용中庸·대학大學·소학小學·가례家禮 등으로 성적에 따라 通通·약畧·조粗·불로 나누고 각 과목의 성적 아래에 채점자의 서압을 하고 있다.



어제봉안시절목 御製奉安時節目

1794 41.2X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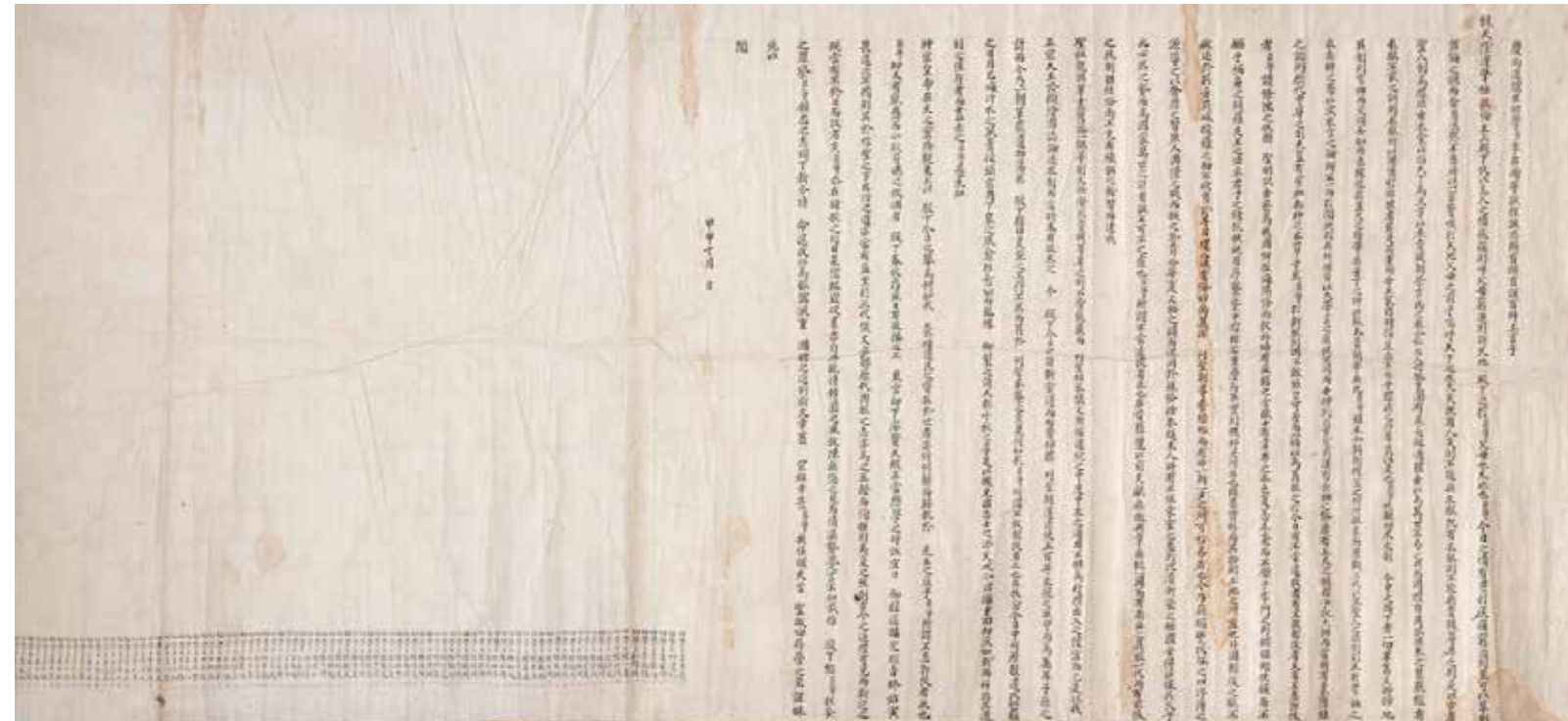
1794년정조 18 정조正祖는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이 저술한 속대학후문續大學或問에 친필로 서문을 쓰고 옥산서원에 보내 어 소장하게 하였다. 이 절목은 이때 예관이 가져온 어제를 맞이하고 경각經閣에 봉안하는 절차를 적은 것으로 모든 원생院生이 갖추어야할 복색服色과 의절儀節에 관한 내용이다.



고왕록
考往錄

1816-1873
35.4X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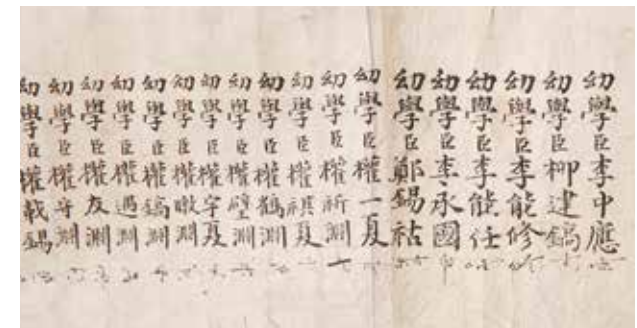
19세기 옥산서원의 역사를 간략히 기록한 자료로 연월일 순으로 주요 서원 내방자와 기부 물품, 건물의 수리 및 증진, 향사, 향회鄉會등을 기록하고 있다.



옥산서원강당중건시향중출물치부
玉山書院講堂重建時鄉中出物置簿

1839 (현종 5)
35.3X23.4

1839년현종 5 향회鄉會를 열어 옥산서원 강당 증건을 결의하고, 경주부 내의 향교, 서원, 사우 등과 54개 문중에게 소요 경비를 배전排錢한 장부이다. 본손本孫들의 경우 12등급으로 나뉘 30냥에서 1전까지 거두고 있음이 주목된다.



복제개혁반대만인소
服制改革反對萬人疏

1884 (고종 21)
02.0X10.036.0

1884년고종 21 이재교李在嶠를 소수疏首로 8,849명이 서명한 복제 개혁 반대 만인소이다. 이 상소는 12월에 발발한 갑신정변으로 복제개혁 자체가 취소되자 올리지 않았다. 완전한 형태로 현전하는 만인소로 귀중한 자료이다.



구인당중건일기
求仁堂重建日記

1840 (헌종 6)
36.0×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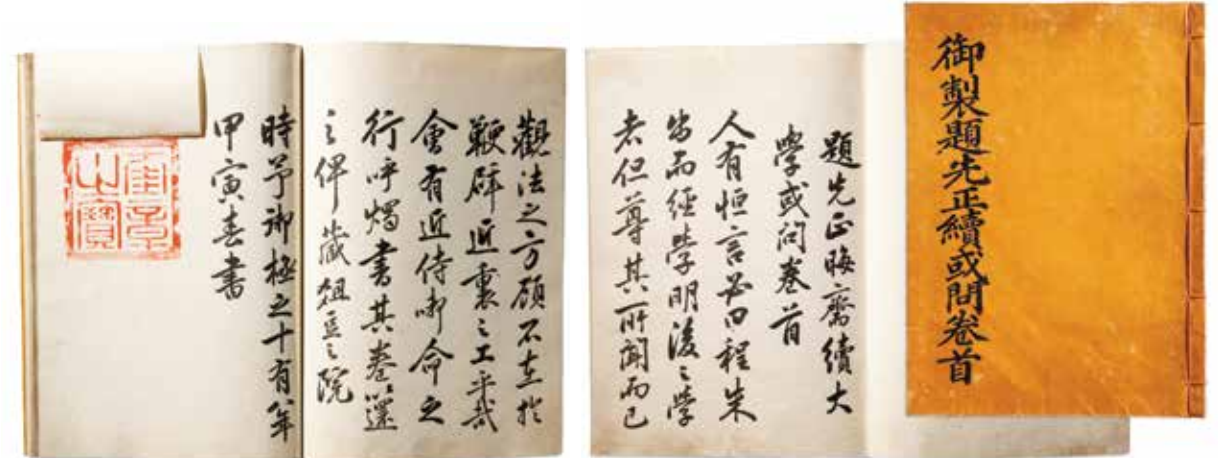
1839년-1840년에 화재로 소실된 구인당을 중건하면서 일어난 일들과 과정을 기록한 일기로 이해상李海祥이 정리한 것이다. 강당 중건을 위한 논의와 건립의 과정을 기록한 강당중건일기講堂重建日記와, 재사액再賜額이 진행되면서 작성한 연액일기延額日記·치제일기致祭日記·계액일기揭額日記, 그리고 낙성시의 낙성시일기落成時日記로 구성 되어 있다.



삼국사기
三國史記

1512 (중종 7)
29.2×21.5(50권, 9책)

보물 제525호로 지정된 옥산서원 소장본 삼국사기三國史記는 1512년중종 7에 경주부에서 간행하여 옥산서원에 보내진 50권 9책의 완질이다. 삼국유사와 함께 경주부에 전해오다가 1394년태조 3 마멸이 심한 판만을 고판古板에 의하여 번각翻刻하였고, 1512년에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된 것을 새로 보각補刻하여 인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속대학혹문
續大學或問

1547-1553
32.5×23.6 (1책)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이 남송南宋대 주희朱熹, 1130-1200이 대학혹문大學或問을 추가 보완하여 저술한 것으로 옥산서원의 필사본중 가장 증시되는 것이다. 정조 때 경연에서 강의 되었고, 권수에 '어제제선생정속대학혹문御製題先生正續大學或問'라는 정조의 친필 머리글과 규장지보奎章之寶가 날인되어 있다.



동래선생십칠사상절
東萊先生十七史詳節

16세기 중반
28.0×18.0

남송南宋대 여조겸呂祖謙, 1137-1181이 편찬한 십칠사十七史로 조선 중종대에 본문은 갑진자, 서발문은 갑인자로 간행된 것인데, 국내에 인본이 거의 없는 희귀본이다.



변역소학
翻譯小學

16세기 중반
33.2X21.2

1518년중종 13 통문관의 계에 의하여 김전金詮, 최숙생崔淑生 등이 왕명을 받아 소학小學을 알기 쉽게 번역한 것으로 을해자로 간행한 책을 다시 목판으로 번각하여 간행한 책이다. 소장본은 권3, 8, 10이 남아있는 희귀서로 국내에 그 잔존본이 거의 없는 희귀본이다.



주자대전
朱子大全

1575 (선조 8)
34.2X21.8

원집原集 100권 87책, 속집續集 11권 4책, 별집別集 10권 4책으로 모두 121권 95책으로 구성된 방대한 책이다. 조선 1543년중종 38에 을해자로 처음 간행되었고 다시 1575년에 유희춘柳希春, 1513-1577과 조헌趙憲, 1544-1592 등이 교정을 보아 새롭게 중간본을 간행하였는데 옥산서원 소장본은 완질이다.



국조유선록
國朝儒先錄

1570 (선조 3)
33.2X21.3(4책)

김굉필金宏弼, 1454-1504, 정여창鄭汝昌, 1450-1504, 조광조趙光祖, 1482-1519, 이언적李彦迪, 1482-1519의 행적을 1570년선조 3 선조의 명으로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이 편찬한 것으로 5권 4책의 을해자혼입보자본乙亥字混入補字本으로서 옥산서원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비아
埤雅

1538 (중종 33)
36.5X22.5 (5책)

송나라 육전陸佃, 1042-1102이 지은 문자학 서적으로 물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내에 그 간본이 드문데, 옥산서원 소장본은 조선초기 금속활자인 초주 갑인자로 간행된 것이며, 1538년중종 33 당시 홍문관弘文館 응교應敎였던 이언적李彦迪, 1482-1519에게 내린 책이다.



회재선생집 책판
晦齋先生集

17세기
23.0×36.0

회재 이언적李彦迪, 1482-1519의 문집으로 1574년선조 7 초간된 이후 옥산서원에서 1600년선조 33, 1624년인조 2, 1631년인조 9, 1641년인조 19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증간, 보간, 후쇄되었다. 옥산서원에 소장된 책판은 회재선생집晦齋先生集 163판, 회재선생집별집晦齋先生集別集 79판 회재선생유묵晦齋先生遺墨 12판 회재집晦齋集 72판이 남아있다.

제주祭酒 담기

서원의 살림을 담당하는 곳인 고직사에서는 향사일을 계산하여 미리 제주祭酒를 담아서 한지로 봉한 다음 ‘근봉講封’이라 쓰고 방안에서 발효시킨다. 향사전에 용수를 박아 술을 거르고 술항아리에 담아서 한지로 다시 봉해둔다.



희생의 상태를 검사하는 성생례省牲禮

희생으로 쓸 짐승의 상태를 검사하는 성생례는 감생례鑑牲禮, 또는 간품례看品禮라고도 한다. 옥산서원에서는 유사가 희생의 상태를 살핀 후 초헌관에게 ‘충’이라고 고하면 초헌관은 ‘돌’肫이라고 응답하는데, 이를 세 차례 한다.



제물祭物 담기

제관들은 제사용품과 희생을 사당으로 옮기고 전사청에서 보와 궤, 변과 두 등 각종 제기에 미리 손질한 제물을 담는다. 제기에 담은 제물이나 향, 축 등 기타 제사용품은 더 이상 손이 타지 않도록 근봉謹封이라고 써서 봉한다.



철변두撤邊豆

철변두는 진설된 제물을 물린다는 의미로, 대축이 사당에 들어가 변과 두를 조금 옮기는 것을 말한다. 철변두 후에는 사신辭神의 의미로 헌관 이하 참사자 모두 재배를 한다.



초헌 감작監酌

초헌관이 신위전에 헌작하기 전에 술을 따르는 것을 지켜본다. 초헌관은 준소樽所로 올라와 동편에서 서쪽을 향해 선 다음 작주酌酒를 지켜본 후 사당에 들어가 신위전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음복음福

모든 향례 절차를 마친 후 헌관 이하 모든 제관들은 강당에 모여 음복을 한다. 음복상음福床이 나오면 초헌관부터 순서대로 잔을 받는다. 집례가 삼헌관에게 무사히 제사를 치렀음을 보고하고, 음복상을 앞에 두고 앉아서 서로 음을 한다. 음복상에는 향사에 쓴 제주와 함께 포와 밤, 대추를 조금씩 놓는다



삭망례朔望禮 분향焚香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분향례焚香禮를 향알례香謁禮, 또는 삭망알묘朔望謁廟 라고 한다. 하루 전에 서원에 들어온 제관들은 새벽에 사당에 들어가 분향하고 재배를 한다.



사당 앞에서의 축문 작성

옥산서원에서는 분정이 끝나면 대축이 사당문을 열어둔 채 내삼문 밖에서 축문을 작성한다. 축문 작성이 끝나면 헌관에게 확인을 받으며, 축문을 조그만 축상에 받쳐 들고 사당 제상 아래 향탁 좌측에 둔다.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奠幣禮

옥산서원에서는 대축이 채반 모양의 폐비에 폐백을 담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은 폐백만 들어 올린다. 다른 서원에서는 폐백이 든 폐비채로 올린다.



학파 중심의 서원 건립의 대표적 사례인

안동 도산서원 陶山書院

-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동 도산서원길 154
- 창건연대 : 1574년선조7
- 사액연대 : 1575년선조8
- 국가지정 : 사적 제 170호



도산서원은 서원이 학문과 학파의 중심 기구로 발전하는 한국 서원발전의 과정을 입증한다. 제향 인물의 강학처를 기반으로 건립되었으며, 강당이 비대칭으로 구성된 특징이 있다. 탁월한 자연경관으로 인하여 일대의 경관을 묘사한 다양한 작품들이 남아 있다.

주향 인물 : 이황1501-1570

도산서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유학자인 이황을 모신 서원으로, 이황이 학문을 하며 제자들을 가르친 도산서당을 모체로 하여 1574년에 건립되었다.

도산서원은 한국의 다른 서원에서는 볼 수 없는 서당과 서원이 병존하는 특성을 보인다. 도산서원은 창건 이후 지속적인 강학을 통해 퇴계 성리학과 심학을 충실히 계승하며, 퇴계 사후 서원으로 발전, 전성을 누렸던 한국의 대표 서원이다. 도산서원은 한국 서원 중에서 학문 및 학파의 형성, 전승의 전형을 이룬 대표적 서원으로 조선후기까지 퇴계 학통을 계승 발전시키며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배출하였다. 아울러 성리학과 관련된 수많은 전적과 목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강회록 등 교육과 관련된 고문서 자료들이 다수 보존된 대표적인 서원이다.

퇴계 이황과 도산서원

도산서원은 스승의 강학처를 기반으로 서당에서 서원으로 발전한 조선 서원의 전형적인 발전 경로의 하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도산서원은 전면에 낙동강이 흐르는 경사지에 입지하여 자연친화적 경관입지를 구현한 한국 서원의 전형을 보여준다. 제향인물인 이황의 강학처였던 도산서당을 모태로 이황 사후 서원으로 건립되었으며 성리학적 공간으로서 서원 건축 장식의 간소화를 실현, 독자적으로 완성한 사례이다.

퇴계 이황1501~1570은 중국에서 전래된 성리학이 한국에서 정착되고 체계화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인물이다. 이황은 16세기 중반 한국의 성리학 지성계를 주도하였고, 당대 사림의 큰 스승으로 조야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그의 성리학 연구를 기점으로 한국의 성리학이 이론적,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황의 성리학 연구 및 저술들은 한국의 많은 사림들의 지침서가 되었고, 17세기에는 일본에까지 전래되어 일본의 성리학 연구에 영향을 끼쳤다. 이황의 주도로 16세기 후반 서원 건립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그에 의해 서원의 교육 및 제향의례와 관련한 사항들이 정리되었다. 한국 성리학의 정착과 서원 보급에 있어 이황은 가장 상징되는 인물인 것이다.

특히 퇴계는 50대 이후 조정에 출사할 마음을 접고 후학들에 대한 교육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50세에는 한서암을, 51세에는 계상서당을 축성하고, 이후 문생들이 늘어나자 마침내 57세가 되던 1557년에는 예안에 도산서당을 건립하고 그의 독특한 교육과 독서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다.

1570년 퇴계가 세상을 떠나자 제자들은 스승의 학설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퇴계가 평생을 머물며 저술과 교육활동을 하던 예안의 도산서당에 뒤편에 1574년 사묘를 짓고 도산서원을 건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575년선조 8에는 도산서원이 사액을 받는다.

그리고 40년 뒤인 1615년에는 퇴계의 제자로서 독실한 학문 자세로 스승의 학설을 계승하여 만년에는 산림의 덕망 높은 원로로 칭송되었으며, 퇴계 사후 퇴계집 간행과 도산서원 건립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월천 조목1524~1606을 종향하였다.

도산서원의 경관과 공간 구성

도산서원은 앞으로 강을 바라보는 경관을 갖춘 곳에 세워졌으며, 서원 영역 전반부에 누각이 아닌 강변을 바라보는 대臺로 만들어 전망 경관을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도산서원은 사방의 산봉우리와 계곡들이 모두 손잡고 절하면서 그 산을 사방으로 둘러 안은 것 같은 형세를 한 곳이다. 이러한 산세山勢, 수세水勢, 야세野勢가 합당한 곳을 택하여 퇴계는 도산서당을 지었고, 그 후 다시 도산서원이 들어서게 되었다.

도산서원의 공간 구성은 크게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의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도산서당은 초기 서당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좋은 사례로 퇴계 사후에도 도산서당의 원형이 오롯이 보존됨으로써, 도산서당의 조영을 통해 건축과 자연의 합일을 꾀했던 퇴계의 건축관은 이후 도산서원의 건축에도 그대로 계승될 수 있었다. 도산서당은 서당 건물과 기숙사인 농운정사 건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퇴계 이황이 만년에 성리학 연구와 제자 양성을 위해 건립한 건물이다. 도산서당은 1560년에 농운정사는 1561년에 건립되었다. 도산서당은 세 칸으로 서쪽 한 칸은 골방이 딸린 부엌이고, 중앙의 방 한칸은 완락재, 동쪽의 대청 한 칸은 암서헌이다. 완락재는 이황이 독서하며 거처하던 방이고, 암서헌은 제자들과 함께 강학활동을 했던 공간이다. 농운정사는 제자들이 거처하면서 공부하던 곳으로, 휴식공간인 관란헌,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습재, 기숙사인 지속료로 구성되었다.

도산서원의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은 주희가 저술한 가례서인 『주자가례』를 바탕으로 기획된 것으로, 사우인 상덕사尙德祠, 강당인 전교당典敎堂, 동서재인 박약재博約齋와 홍의재弘毅齋, 서책을 보관하는 동·서 광명실光明室, 목판을 보관한 장판각, 고직사, 제수를 준비하는 전사청 등으로 되어 있다.

강학공간에서는 사우인 상덕사尙德祠를 어느 위치에서도 볼 수 있으면서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제향공간이 가지는 신성성과 위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대청적 설정은 이황이 건립을 주도한 서원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병산서원을 비롯한 이후에 도산서원 인근에 건립되는 서원 건축 배치에도 영향을 끼쳤다.

도산서원의 교류 및 유식공간에는 누각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에 천연대와 천광운영대가 있는데, 이곳에서 외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서원 지원시설인 고직사 2동이 있고, 강 건너편에는 18세기 도산서원에서 시행한 과거시험을 기념하기 위한 시사단이 남아있다.

도산서원의 교육활동

퇴계 문인들은 도산서원을 건립한 뒤 퇴계의 교육철학을 충실하게 계승하고자 노력하였다. 이후 도산서원은 강학과 향사를 통해 퇴계 문인의 결속을 다지고, 영남의 학풍을 대표하는 수원이자 퇴계 학맥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영남을 방문한 조선의 관리와 선비들은 퇴계를 흠모하여 도산서원으로 향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조선후기에는 강회를 통해 퇴계 심학과 성리학을 계승함으로써, 도산서원은 영남의 학풍을 대표하는 수원이자 퇴계 학맥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도산서원의 교육은 거점·강회 등 집단적인 학술활동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6세기 말에는 거점, 18~19세기에는 여러 차례의 강회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강회는 오늘날 집단 심포지엄 혹은 대규모의 세미나에 해당하는 공부 방법으로 주목할 만하다. 18세기에는 심학 공부를 위한 심경 강회나, 정조의 탕평 정국 구상과 관련된 정치적 성격의 강회가, 19세기에는 퇴계 학단의 결속을 다지고, 당시 학문적 쟁점들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수립하기 위한 철학적 성격의 강회가 개설되는 등 다양한 계기에 의해 강회를 통한 교육활동을 이어나갔다.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의 교육활동을 통해 문인들은 퇴계의 학문을 충실히 계승함으로써 이후 퇴계학은 점차 분화, 발전하여 조선 성리학의 독자적 학문체계를 수립하였다.

특히 도산서원은 영남 사림 문화의 대표적 교류처, 창작처였다. 도산서원을 방문했던 많은 인물들은 도산서원을 주제로 한 많은 시문詩文을 남겼다. 도산서원을 둘러싼 주변 경관을 주제로 시문은 3,000여 작품 이상이 현존하며, 그중에서도 이황이 지은 도산잡영이 그 대표적 작품이었다. 또 도산서원은 자연 경관의 탁월성으로 인하여 조선시대 화가들의 작품 주제로 선택되기도 하였다. 정선과 강세황의 도산서원도는 그 대표적 작품이다.

조선 후기 치제와 도산별시

도산서원이 영남을 넘어 전국의 으뜸가는 서원으로 떠오른 것은 18세기 이후 조정의 우대가 그 계기가 되었다. 영조와 정조는 당쟁을 수습하고 정국을 안정시킬 탕평책의 일환으로 오랫동안 정계에서 소외된 영남인의 불만을 수습하기 위해, 영남 사림이 절대적으로 받드는 퇴계에 대한 조정의 예우를 베풀었다. 영조와 정조 때 도산서원에 각기 2차례씩 치제가 내려진 것은 이 때문이었다. 임금이 내려주는 제사인 치제는 그 유현으로서의 위상에 대한 국가적 공인의 의미를 지님으로써 그 문도와 학파의 정통성 및 권위를 뒷받침해 주는 결정적인 요소였다. 특히 정조가 이황의 학문적 업적을 기념하고자 치제를 하고, 도산서원에서 과거를 설행하게 하고, 여기에 7,000여 명이 응시했던 것은 도산서원으로 하여금 영남을 넘어 전국의 으뜸가는 서원이 되게 하는 데 충분하였다. 도산서원 전면의 시사단이 바로 그 유적이다.

한말의 유학자 면우 곽종석은 도산서원을 ‘동방 서원의 으뜸’이라 칭하기도 하였으며, 한국 유학의 본산이자 서원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다.

그런가하면 도산서원에서는 퇴계 학단을 이끈 ‘도산 강회’가 조선후기에 이루어진다. 도산서원강회는 역동강회1787년, 을묘강회1795년, 청량강회1850년, 갑인강회1854년,오천강회1892년 등 활발한 강회활동도 이어져 전개되었다. 1854년철종 5의 갑인강회에는 당대 영남의 중핵적인 인물들이 참가하였고, 이듬해 전개된 사도세자 추존을 청원하는 제2차 '영남 만민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판과 장서, 고문서

도산서원은 한국 서원 중에서 학문 및 학파의 전형을 이룬 대표적 서원으로 한국 서원의 역사에서 학술·정치·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상징적인 서원이다. 성리학과 관련된 고서, 목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강회록 등 교육과 관련된 기록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도산서원은 1600년선조 33에는 퇴계집을 간행하고, 이어 퇴계언행록, 도산급문제현록, 주자서절요의 간행을 주도하는 등 영남을 대표하는 서원으로서 많은 서적들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이어 퇴계 문집과 연보, 주자서절요, 심경 등 퇴계의 주요 저서와 성리서들, 또한 국가에서 하사한 서적과 지방 관아, 인근 서원 및 문중에서 발간, 기증한 방대한 분량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이들 서책들은 책방과 동·서 광명실 등의 서고를 마련하여 서책을 관리해왔다. 고서는 1,026종 4,605책이다. 도산서원의 고서는 이황의 수택본과 역동서원 소장본 및 도산서당 소장본 등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서적이 많이 남아있으며, 경부가 98종 614책, 사부가 161종 1,108책, 자부가 63종 384책, 집부가 704종 2,499책으로 총 1,026종 4,605책이 전해진다. 도산서원의 장서는 하사받은 내사본이 많고, 이황의 문도와 후학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도서가 수집된 특징을 보인다.

도산서원 고문서는 총 2,128점에 이르며 소지所志, 명문明文, 통문通文, 치부기置簿記, 망기望記, 제문祭文, 좌목座目 및 책자 형태의 고문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목판은 책판, 시판詩板, 서판書板, 현판 등으로 모두 57종 4,014점이다. 책판, 시판, 서판, 현판은 한국 국학진흥원에 기탁되었다. 책판은 28종 3,928점으로 가장 많으며, 시판은 8종 43점이며, 서판은 9종 30점, 현판은 12종 13점이 있다.

서원 제향의례에 있어서 도산서원은 이황이 제정한 제향의례의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한국 서원 제향의 정형을 이룬다. 이황은 소수서원의 흥기를 정비하는 한편, 이후 시행되는 서원 제향의례의 원칙을 제정하였다. 이황을 제향하는 도산서원은 이러한 이황이 제정한 제향의례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도산서원
陶山書院

1575 (선조 8)
57.5×206.3

1575년 도산서원이 사액을 받을 때의 편액으로, 이황 李滉, 1501-1570이 생전에 진리를 강론 하던 도산서당의 이름을 이어 받은 것이다. 글씨는 선조의 명에 의해 당대 명필인 한호 韓濩, 1543~1605가 썼다.



전교당
典教堂

17세기 말
76.1×208.8

도산서원 강당 편액으로, '전교'는 유가의 학문인 오륜을 가르쳐 밝힌다는 뜻이다. 글씨는 성오省吳 이일삼 李日三, 1626-1700이 썼다고 전해진다.



상덕사
尚德祠

17세기 말
70.0 × 169.5

도산서원 사당 편액으로, '상덕尚德'은 논어 論語 현문 憲問 편에 나오는 말로 이황 李滉, 1501-1570의 학덕을 숭상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글씨는 성오省吳 이일삼 李日三, 1626-1700이 썼다고 전해진다.



도산서당
陶山書堂

16세기
58.5×27.8

도산서당의 편액으로, '도산'의 명칭에는 성균인 순췌 肅僖 임금과 동진 東晉의 도연명 陶淵明, 365-427의 인품을 흠모한 이황 李滉, 1501-1570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이황이 61세 때 도산서당을 창건하고 직접 글씨를 썼다. '산'자를 상형자로 구성하고, '서당' 두 글자에 예서에서나 볼 수 있는 파책[배침]을 가미한 점이 이채롭다.



박약재
博約齋

17세기 말
53.5×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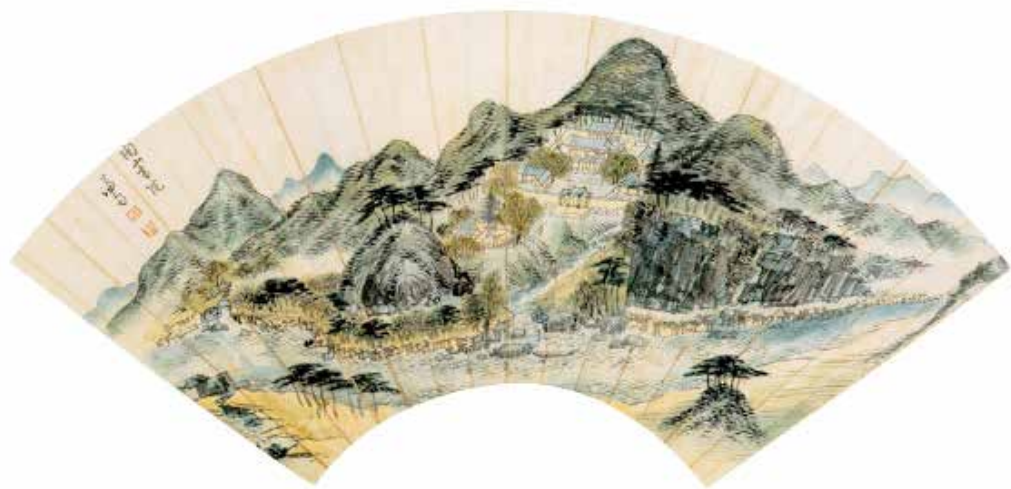
도산서원 동재 편액으로, '박약'은 논어論語 자한子罕편에서 인용한 말로 공부하는 유생들에게 지식을 널리 배우되 예로써 행동을 단속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글씨는 성오省吳 이일삼李日三, 1626-1700이 썼다고 전해 진다.



홍의재
弘毅齋

17세기 말
58.0×148.0

도산서원 서재 편액으로, '홍의弘毅'는 논어論語 태백泰伯편에서 인용한 말로, 선비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인仁을 실천할 수 없다고 강조한 말이다. 글씨는 성오省吳 이일삼李日三, 1626-1700이 썼다고 전해 진다.



사물잠
四勿箴

미상
37.0×81.0

도산서원 정당正堂 오른쪽 벽에 걸린 현판으로, '사물잠'은 북송北宋 때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제자 정이程頤, 1033-1107가 눈, 귀, 말, 움직임 등 네 가지 기능에 대한 경계警戒를 논한 글이다.



백록동규
白鹿洞規

미상
38.0×98.0

도산서원 정당正堂 오른쪽 벽에 걸린 현판으로, 송宋나라 주희朱熹가 지은 중국 백록동서원의 학규이다. 오륜五倫과 위학지서爲學之書, 수신지요修身之要, 처사지요處事之要, 접물지요接物之要 등 인간의 다섯가지 도리와 학문에 임하는 바른 자세 등을 담고 있다.



원규
院規
미상
55.5X145.0

이 원규는 이황李滉, 1501-1570이 1559년명종 14 ‘이산서원
기伊山書院記’와 더불어 작성한 ‘이산원규伊山院規’이다. ‘이
산원규’는 이후 영남지역 서원 원규의 모범이 되었는데,
유생들의 교과과정, 공부방법, 서적 관리, 유생형별, 원임
· 유생의 선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원록
遊院錄
1596 (선조 29)~1634 (인조 12)
37.5X26.5

1576년선조 9부터 약 200년 간 도산서원에 입학하여 공부
한 학생들을 연도별로 적은 것으로 서원 건립초기의 입원
생入院生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입원생의
신분진사, 생원, 유학 등과 성명, 자가 기재되어 있다. 원생
선발은 초기에는 정기적으로 선발 하였으나, 1616년광해
군 8에는 식년마다 입원入院한다고 명기明記하고 있다.



정조 전교
正祖 傳敎
1792 (정조 16)
56.0X82.0

정조正祖가 1792년정조 16 3월 3일에 규장각奎章閣 각신閣
臣 이만수李晩秀, 1752-1820를 도산서원에 보내어 제문을 지
어 치제致祭하고 특별히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전교傳敎이
다. 퇴계선생연보退溪先生年譜에 의하면 시험 날 당일에 이
내용을 전교당에 새겨 걸었다고 한다.



전장기
傳掌記
1596 (선조 29)~1634 (인조 12)
37.5X26.5

1596년선조 29-1634년인조 12까지 미곡米穀을 비롯한 도
산서원 소유 재물의 변화를 기록하여 인수인계한 문서이
다. 1~2년을 단위로 작성된 이 기록은 1596년부터 20세
기 초까지 모두 58책이 남아 있다.



사문수간

師門手簡

1550-1570
40.8×27.2

1550년-1570년까지 이황李滉, 1501-1570이 제자 조목趙穆, 1524-1606에게 보낸 113통의 편지를 조목이 65세 때 엮은 간찰첩이다. 간혹 시문詩文도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이황의 필적, 한글 표기, 수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본래 8책이었으나 현재 소장본은 권2에서 권8까지 7책이다.



노비안

奴婢案

1700
33.5×24.0

각처에 거주하는 도산서원 소속 노비 462구를 기록한 장부로 성명-나이-거주지 순으로 기록하였다. 도산서원 노비안은 1700년숙종 26부터 1861년철종 12 까지 모두 22책이 있으며, 1743년영조 19 이후에는 노비수의 증가로 소재지에 따라 15개 지역으로 나눠 관리하였다.



도산서원 일응치부

陶山書院 一應置簿

1619 (광해군 11)
38.5×26.5

도산서원의 재산내역을 분야별로 정리한 장부로 서원 소속 전답, 노비, 타관他官에 거주하는 노비, 양속仰屬서얼, 사노私奴, 양인, 장인匠人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장부에는 이들의 거주지, 신분, 직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 초창기의 도산서원의 경영 실태를 알려주고 있다.



심원록

尋院錄

1575-1607
36.5×26.0

1575년-1607년에 도산서원 방문인들을 기록한 것으로에 안현감 손영제孫英濟를 비롯하여 감사監司 윤근수尹根壽, 1537-1616 등등의 성명을 적고 관직명, 자字, 거주지를 적었다. 본현에 거주하는 인물들은 거주지 부분을 비워 놓았다. 도산서원 심원록은 창건시부터 20세기 초까지 모두 75책이 남아있다.

서책치부

書冊置簿

1775 (영조 51)

30.0×33.0

도산서원 동광명실의 건립 시기와 배경, 당시 서책의 상황 등을 밝혀주는 귀중한 자료로 총 2,030권의 서책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1775년영조 51 5월 이후 무신년 6월, 포쇄시 동광명실 건물과 서책의 보관 상태 등에 대해 기록한 내용도 보인다.



병진 9월 13일 사제시일기

丙辰 九月 十三日 賜祭時日記

1796 (정조 20)

35.0×21.0

이황李滉, 1501-1570의 사손嗣孫 이지순李志淳이 영유현감永柔縣監으로 부임하던 중 이황의 위패를 가져 가면서 겪은 일을 날짜별로 기록한 것이다. 실록에는 정조가 서울에 당도한 이황의 위패를 예관禮官에 명하여 맞이하고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하였다고 했는데, 일기에서 그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실록의 내용을 보완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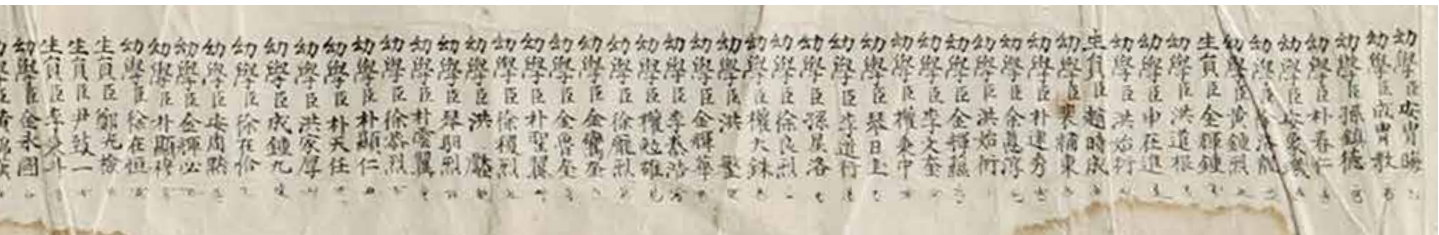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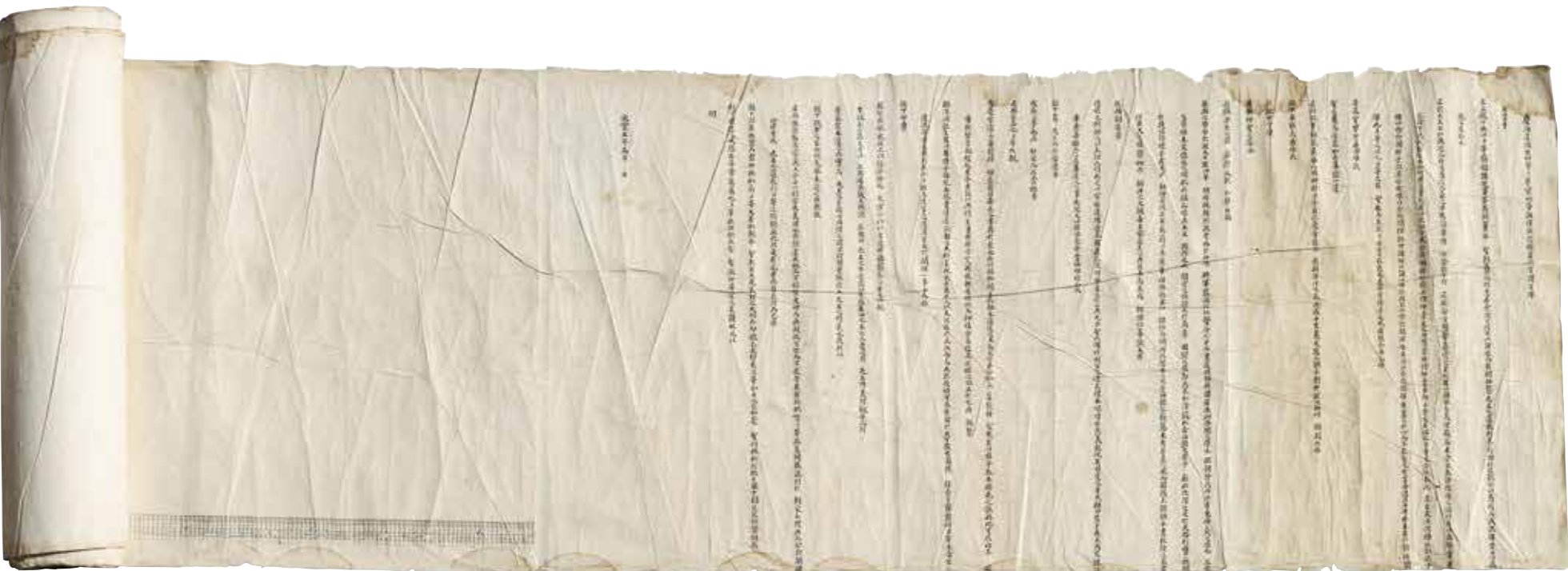
사도세자 주존 만인소

思悼世子 追尊 萬人疏

1855 (철종 6)

111.0×9,650.0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할 것을 청하는 만인소로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후손인 이휘병을 소수疏首로 하여 모두 10,094명의 영남 사람이 참여하였다. 1800년정조 24 정조의 승하 이후 영남 남인들이 정치적 소외를 만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상소는, 비록 성사되지는 못하였지만 정치·사회적으로 영남 사람들을 결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근사록·문공가례의절·진서·연평답문

近思錄·文公家禮儀節·晉書·延平答問

1519~1555
근사록 35.5×21.5
문공가례의절 32.0×19.7
연평답문 31.2×18.7
진서 32.7×21.5

구 역동서원의 초기 장서로 퇴계 이황이 역동서원으로 가져온 책과 제자와 문인들이 보내온 책들 중 도산서원에 소장되었던 책들이다. 근사록近思錄은 1519년중종 14 구례의 봉성정사鳳城精舍에서 간행한 책으로 4책이 남아 있다. 문공가례의절文公家禮儀節은 1555년명종 10 청주에서 간행된 책으로 전책 4책 중 제3책이 결락된 상태로 도산서원에 남아 있다. 진서晉書는 43책 완질본이 전해진다. 연평답문延平答問은 ‘연평이씨사제자답문延平李氏師弟子答問’ 이 원래 서명이며, 1554년명종 9 충주에서 간행된 책으로 앞표지 이면에 ‘용경4년 경오7월일 퇴계래隆慶四年 庚午七月日 退溪來’ 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중용언해 中唐諺解

1588 (선조 21)
36.0×23.0

도산서원의 사액 이후 나라에서 내린 책이다. 현재 남아 있는 책을 보면 1588년선조 21, 1590년선조 23, 1793년정조 17, 1798년정조 22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소학언해小學諺解 및 사서언해四書諺解는 임진왜란 직전에 금속활자인 을해자체경서자간乙亥字體經書字로 간행된 책으로 국내에 현존본이 거의 없다.



퇴계선생문집 책판

退溪先生文集

1600 (선조 33)
54.2×21.0

도산서원 장판각에는 소장된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책판은 1600년선조 33 경자본 원집 709판을 비롯하여 갑신중간본 원집 1075판, 신 구판을 합쳐서 속집 150판, 별집 75판, 외집 37판, 언행록 202판, 년보 70판, 세계도 36판 등이 빠짐 없이 남아있다.



도산십이곡 책판

陶山十二曲

17세기초
43.0×66.0

이황李滉, 1501-1570이 안동에 도산서당을 세우고 학문에 열중하면서 사물을 대할 때 일어나는 감흥과 수양의 경지를 읊은 12수의 연시조이다. 책판은 모두 3장이 남아 있는데, 1565년명종 20 3월 이황이 직접 지은 서문과 ‘도산육곡지일陶山六曲之一’, ‘도산육곡지이陶山六曲之二’가 각 판의 앞뒤로 판각되어 있다.

강당에서 상음례相揖禮하는 제관들

서원의 강당은 모여서 공부를 하는 공간이지만, 향사 때에는 제관들이 입재사齋에서 부터 파재罷齋까지 모이는 장소이다. 이곳에서 제관들은 정해진 위치에서 행사의 시작과 끝에 서로 읊하는 상음례相揖禮를 한다.



강당에서 식사하는 제관들

제관들은 강당에서 모여서 제관 분정 등의 행사도 하지만, 행사 후에는 여기에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한다. 예전에는 제관 마다 독상을 받았지만, 요즘에는 헌관 및 집례, 대축만 독상을 하고, 나머지 제관 및 유사는 겸상을 한다.



사당 앞에서 재배하는 참사자들

사당에는 성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으로, 실제적인 서원 향사를 거행하는 곳이다. 그래서 사당에 출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의관衣冠을 갖추고 재배를 한다. 향사 때에도 제일 먼저 배위에 나와 재배를 하고, 철변두 후에도 사신의 의미로 재배를 한다.



제관 위촉장인 망기望記 작성

서원에서는 1월이나 7월경에 춘추향사를 진행할 3헌관獻官, 대축大祝, 집례執禮 및 집사들을 정하기 위해 모인다. 이때 각 제관의 직책을 적은 망기望記를 작성하는데, 이를 망지望紙 라고도 한다.



제관 위촉장인 망기望記 확인

춘추향사를 진행할 3헌관獻官, 대축大祝, 집례執禮 및 집사들에 대한 망기望記를 작성 한 후에는 이를 원장에게 최종 확인을 하고 원장인院長印 도장을 찍으며, 인편이나 우편으로 보낸다



제관의 역할을 정하는 분정기分定記 작성

분정은 미리 정한 삼헌관과 대축, 그리고 집례 이 외의 역할을 맡을 집사들을 선출하는 과정이다. 헌관을 중심으로 강당에 모여서 분정기分定記를 작성하며, 각기 분정된 집사들의 역할을 알리고 분정기를 강당 벽에 걸어놓는다.



축문 작성

도산서원에서는 분정을 마치면 대축이 초헌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당에서 축문祝文을 작성한다. 축문 작성이 끝나면, 대축은 초헌관에게 축문을 확인 받은 뒤, 축판에 받쳐 들고 사당 안으로 들어가 향탁의 좌측에 둔다.



제주祭酒 담기

도산서원에서는 생간품牲看品을 마치면 재유사들이 전사청으로 가서 제주祭酒를 검사하는 의식을 거행한다. 원위 산퇴에는 5말, 종향위 산퇴에는 3말을 담는데, 이때 ‘한 말’, ‘두 말’ 등을 외치면서 두량斗量을 계산한다. 두 개의 산퇴에 술을 모두 담으면, 재유사들이 술맛과 상태를 검사한다.



진설陳設 확인

도산서원에서는 준비된 제물을 제상에 진설을 하면, 재유사들이 습례習禮를 마친 후에 진설도를 들고 와서 이에 맞게 잘 진설되었지는 일일이 확인한다.



주독 뚜껑을 여는 개독開讀

대축이 사당으로 들어와 신위의 주독을 여는 개독開讀을 한다. 이어 보와 궤의 뚜껑을 열어 향사 준비를 마친다.



아헌 관세盥洗

아헌관이 신위 앞에 두 번째로 술을 올리기 전에 관세위에서 손을 씻는다. 아헌례는 아헌관이 신위 앞의 두 번째 작점맨 서편 위에 올리는 것으로, 행례는 독축이 없는 것 말고는 초헌례와 같다.



망예례望瘞禮

초헌관이 망예위로 가서 북쪽을 향해 서면, 대축이 축문을 갖고 와서 접어 구덩이에 묻고 물을 뿌린 후 기왓장으로 덮어 놓기도 한다.



정알례正謁禮

매년 정초에 알묘하는 것을 정알正謁 또는 정조알묘례正朝謁廟禮라 한다. 이것은 새해를 맞이하여 선현께 인사를 드리는 의례로, 정초에 원장과 재유사 및 향중의 여러 유림들이 사당에 들어가 예를 행하고 봉심奉審 한다.



향약鄉約 약문約文 낭독

도산서원에서는 전교당에서 재유사가 향약鄉約 약문約文을 읽는 독약讀約을 하고 음복飮福을 한다. 음복상이 나오면 초헌관부터 순서대로 술을 따르고 앉아서 음을 한[坐揖禮] 다음 일제히 음복한다. 여기에서도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순서로 잔을 돌리기를 세 번 한 다음에 서로 읊하고 음복을 마친다.



삭망례朔望禮 분향焚香 후 재배

도산서원에서는 “분향 아뢰오”라고 외치면, 전교당의 준비된 자리에서 남향으로 꿇어앉던 유사들이 서로 읊하고 사당에 들어가 분향하고 재배를 한다. 그리고 사당 안에 들어가 신위를 봉심奉審한다.



국기國忌 현판懸板

국기판은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기일을 적어놓은 판으로, 태조에서 순종까지 기록되어 있다. 서원의 행사일이 국기일과 겹치면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강당 등에 걸어두고 참고하였다.



향로와 향합을 제상위로 올리는 분향례焚香禮

도산서원에서는 향로를 제상에 올려놓고 향을 넣는 분향례를 한다. 다른 서원에서는 향상 위에 향로를 놓고 현관이 향을 넣는 분향례를 한다.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원규院規 낭독

도산서원에서는 제공사가 끝나면 전교당 대청에서 현관은 동쪽에서 서향으로 앉고, 나머지 집사들은 남북으로 나뉘어 앉는다. 재유사 가운데 한 사람이 현관들 앞으로 나와서 절을 올리고 꿇어앉아 백록동서원 원규 등을 낭독한다. 이것이 끝나면 음복상을 받는다.



서원의 운영과 관련된 문서와 기록이 잘 남아있는

장성 필암서원 筆巖書院

-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
- 창건연대 : 1590년선조 23
- 사액연대 : 1659년효종 10
- 국가지정 : 사적 제242호



필암서원은 한국의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서원 운동이 서남부지역까지 확산 되는 과정을 입증한다. 기록물을 통해 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전의 서원들이 경사 지형을 이용하던 것과는 달리, 이 서원은 평탄한 지형에 적합한 건축물 배치방식을 적용하였다.

주향 인물 : 김인후1510-1560

필암서원은 조선 중기의 도학자 하서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제향하는 서원으로, 1590년 창건되었다가 1624년 재건되었고, 1659년효종 10 ‘필암’이라 사액을 받았다.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것은 1672년이며, 전형적인 전학후묘의 배치로, 평지에 세워진 서원 건축의 대표적 사례이다. 필암서원은 창건 후 350여 년 이상 호남지역의 학맥과 교육전통을 상징하는 서원으로, 사적 제242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고, 생생한 운영모습을 보여주는 서원 소장의 노비보奴婢譜, 원장선생안院長先生案, 필암서원원적筆巖書院籍, 봉심록奉審錄 등 14책 64매의 전적과 문서가 보물 제587호로 지정되어 있다.

호남의 대표 도학자 김인후金麟厚

김인후1510~1570는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된 인물이다. 김인후는 1540년 대과에 급제한 뒤 1543년부터 세자시강원에서 인종을 가르쳤고, 인종이 즉위 후 8개월 만에 승하하고, 을사사화까지 일어나자 고향 장성으로 돌아와 성리학 연구와 제자들의 양성에만 몰두하였다.

호남 성리학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수준을 높여 율곡학파의 학설이 정립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김인후는 이항·유희춘·기대승·박광전과 함께 호남오현湖南五賢으로 불린다. 김인후는 16세기 중반 성리학 이론을 재해석, 도식화하여 성리학 이해의 진전을 가져왔다. 성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그는 중앙 정계에서 왕실의 스승으로 활약하였다. 김인후의 활동은 지방사회의 교육을 주도하던 사림이 국가지도층의 교육을 전담한다는 점에서 사림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가는 것을 나타낸다. 김인후에 대한 국가의 관심은 16세기 이후로 지속되었다.

18세기 후반에는 김인후를 위해 국왕이 특별히 서적과 편액을 하사하고, 이후 필암서원에서는 하사된 서적을 보관하는 건물을 별도로 조성하였다. 마침내 1796년정조 20 문묘에 종사되었는데 송시열은 ‘도학과 절의와 문장을 다 갖춘 사람은 오직 김인후 한 사람뿐이다’라 칭송하였고, 정조는 여기에 ‘동방의 주자’라는 평가를 보탰다.

서원 경관과 건축배치

필암서원은 나지막한 연화산 144m에 기대어 건립 된 평지형 서원으로, 자좌오향子坐午向으로 자리 잡아 남북 자오선을 중심축으로 하여 앞으로는 문필천이 흐르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정문에 해당하는 문루의 이름이 ‘확연루’인 것도, 이처럼 확 트인 경관을 바라 보기에 적절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필암서원의 건물들은 남북 자오선을 중심축으로 좌우 대칭으로 배치된 전형적인 유교 건축물이다. 강당인 청절당은 언제나 사우인 우동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북향으로 향한 것이 특징이다.

사우인 우동사祐東祠는 서원의 제향공간으로 ‘천우아동天佑我東’ 즉 ‘하늘의 도움으로 동방에 태어난 이가 김인후 선생이다.’라는 극찬의 의미가 깃들여 있다. 우동사 중앙 북쪽 벽에 김인후, 동쪽 벽에 양자정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편액글씨는 『주자대전』에서 집자 하여 쓴 것이다.

청절당淸節堂은 서원의 모든 행사와 유림의 회합, 학문의 토론 장소로 사용된 강당이다. 사액현판인 ‘필암서원筆巖書院’은 병계 윤봉구1681~1767가 썼으며, ‘청절당淸節堂’ 편액은 송준길의 글씨로 전한다. 청절은 하서의 맑은 절의를 되새기는 뜻이다. 강당인 청절당은 언제나 사우인 우동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북향으로 향한 것이 특징이다. 절정당에는 편액을 포함하여 문묘종사 반교문, 교서, 전교, 치제문 등 추송과 제향기록, 백록동 학규, 그리고 고경명, 정철, 권필, 김상헌, 김창흡, 윤봉구의 제영 24점의 현판이 걸려 있다.

필암서원의 건축 배치는 평지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일반적으로 서원에서는 강당과 사우가 마주보지 않지만, 필암서원은 강당과 사우가 마주보면서 그 사이에 재사가 좌우로 배치되는 특이한 배치형식을 가지고 있다. 동재 진덕재進德齋와 서재 송의재崇義齋는 신실 우동사와 강당 청절당과 함께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로 이는 성균관, 향교 등 다른 유교 건물 배치구조와도 비슷하다. 동재와 서재는 원생들이 거처하는 곳이다. 편액 글씨는 송준길이 썼다고 한다.

확연루廓然樓는 외삼문을 겸하는데 크고 넓고 무한한 영역을 뜻한다. 편액은 송시열의 글씨다. 초천 김시찬의 확연루기1760년, 역천 송명흡1705~1768의 중건상량문1772년이 걸려 있다. 확연루기에는 ‘정자程子의 말에 군자의 학문은 확연하여 크게 공정하다. 김인후의 인품과 학문이 확연하여 우암이 이 두 글자를 따 온 것이다.’라 하여 ‘확연대공廓然大公’에서 연유한 명명 유래를 기록하였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중층 팔작지붕집이다.

경장각에는 인종이 하사한 묵죽도墨竹圖 판각이 있고 편액글씨는 정조 어필로 전한다. 장판각藏板閣에는 『하서문집』과 『초서천자문』 등 유묵 목판이 있다. 전사청典祀廳은 향례 때 제수를 마련해 두는 곳이다. 계생비繫牲碑는 향사에 제물로 쓸 가축을 매어 놓는 비이며, 뒷면의 서원 묘정비는 연재 송병선이 지었다.

필암서원의 고문서와 기록문화

필암서원에는 다양한 고문서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 중 중요한 자료들은 보물 제 587호로 일괄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현재 서원 내 유물전시관에는 김인후의 유품과 문집, 서원 소장 서적과 목판, 고문서 등 서원 역사를 알려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다.

필암서원 문적으로는 『노비전답안』 등 재산관련문서 4책, 일반고문서 64매, 그리고 역대 원장, 교관, 강의 참석자, 강회 참가자, 유생, 방문객 등의 명단인 『원장선생안』, 『필암서원집강안』들이다. 이중 재산관련문서 4종 『필암서원원적』, 『노비전답안』, 『노비보』, 『노비안』 등을 포함하는 책자 형태 고문서 14책과 고문서 64장은 사료적 가치가 대단히 높아 보물 제587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은 연대가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중반, 19세기에 걸쳐 있어 조선 후기 전 시기를 비교하여 시대적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조선 후기 일반적인 재산인 서원전은 물론이고 노비, 보노, 서재유생으로부터 거두어 들인 물품의 내역이 적혀 있어 서원 경제의 구체적인 재정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필암서원원적』에 남아있는 유생명단은 각각 1708년과 1717년, 1742년에 작성된 것인데 총 수록인원이 830명에 달한다. 한편 필암서원의 다양한 자료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1745년에 작성된 「노비보」로 이 문서는 필암서원에 소속된 노비와 그 자손들의 인적사항을 족보형식으로 작성한 것인데, 현재까지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이 외에도 「봉심록」은 1624년부터 1701년까지 필암서원을 찾은 방문객들의 명단이며, 이를 통해 17세기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펼쳐진 인물들의 교류를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일반고문서는 품목畧目이 34건으로 가장 많고 첩정牒畧 14건, 소지류畧所志類 10건, 완문完文 4건, 첩문帖文 2건, 훈령 1건이다.

김인후 관련 자료는 계회도 2점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契會圖, 1542년 / 同湖契會圖, 1545년와 증직과 시호 교지 8점, 서경장 2점, 사헌부, 사간원, 문묘배향 허락교서 등 교서 3점, 아들과 손자의 교첩 2점, 문묘배향 상소문沈翼賢, 1789년, 치제문 5점1786년, 1786년, 1796년, 1828년, 1855년, 신흠1566~1628이 지은 복재전필가服齋傳筆歌并序文, 인종대왕묵죽도[목판본], 유숙기의 어화묵죽발御畵墨竹跋文, 1736년 등 31점이다.

목판은 김인후의 문집 목판으로 초간본 목판 1매, 중간본 목판 258매, 세 번째의 목판 391매로 총 650매가 남아있다. 그리고 1610년광해군 2에 새긴 『초서천자문』 18판과 『무이구곡』 18판, 1568년선조 1에 새긴 『백련초해』 13판과 『유묵』 4판, 그리고 1568년과 1770년영조 46에 새긴 것으로 인종이 김인후에게 하사한 묵죽도판 3판이 전해진다.

현판류는 43건이 조사되었다. 건조물 편액 11건, 학규 1건, 기문류 5건, 제영류 13건 16제, 16수, 서간류 1건, 교서류 4건, 제문류 2건, 집강명록 3건, 석각 1건, 국기國器현판 1건, 서예각자 1건 등이다.



필암서원
筆巖書院

1662 (현종 3)
54.0×148.0

1662년현종 3에 사액 받은 필암서원 현판으로 용 문양의 단청을 한 것이 특징이다. '필암筆巖'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고향 마을 입구에 있는 붓 모양의 바위 이름에서 기원하였다. 현판 글씨는 윤봉구尹鳳九, 1683-1768가 썼다.



우동사
祐東祠

미상
47.0×111.0

필암서원 사우祠宇의 현판으로 '우동祐東'은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신도비문에 있는 "하늘의 도움으로 동방에 태어난 이가 하서선생이다"라는 의미와 같다. 글씨는 송나라 주희朱熹, 1130-1200의 글씨를 집자하였다.



청절당
清節堂

17세기 후반
54.0×146.0

필암서원 강당 현판으로 '청절清節'은 인종이 갑자기 승하하자, 높고 깨끗한 절개를 지켜 몸을 숨기고 벼슬길을 끊은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인의仁義를 상징한다. 글씨는 송준길宋俊吉, 1606-1672의 것으로 전한다.



경장각
敬藏閣

18세기 말
46.0×88.0

경장각은 인종仁宗 임금이 하사한 묵죽도墨竹圖 판각 등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이다.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문묘에 배향할 때 정조가 내린 내탕금으로 세운 것이라고 하며, 당호 '장경각藏經閣'의 글씨도 정조正組의 어필御筆로 전한다.



확연루
廓然樓

18세기 말
46.0×88.0

필암서원 문루인 확연루의 현판으로 '확연廓然'은 '군자의 학문이 드넓게 공평하고[廓然大公], 사물이 이르면 순응할 수 있다[物來順應]'는 정호程顥, 1032-1085의 말에서 딴 것이다.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이름을 짓고 글씨도 썼다고 한다.



백록동학규
白鹿洞學規

1710
70.0X210.0

주희朱熹, 1130-1200가 학생들을 가르친 백록동서원의 학규를 새긴 것으로 학문의 목표와 교육의 순서, 생활 규범을 정리한 것이다. 김인후는 평소 백록동학규를 모범으로 제자들을 교육하였는데, 후반부에 김인후의 '백록동학규를 읽고[讀白鹿洞規]'라는 시를 붙여 놓았다.



문묘종사교서, 문묘승배축문
文廟從祀敎書, 文廟陞配祝文

1796 (정조 20)
39.0X110.0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문묘에 종사한 후 정조가 내린 첫 번째 교서敎書로 김인후를 '호남湖南의 공자孔子'라 칭송하고, 인종仁宗과 김인후의 돈독한 군신간의 인연을 소개하고 있다. 글은 예문관제학 구상具庠, 1730-?이 지었다.



문묘종사반교문
文廟從祀頒敎文

1796 (정조 20)
41.0X100.0

1796년정조 20 정조正祖가 필암서원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문묘에 종향한 후, '백세의 스승'이라 칭하며 그의 행적과 학문을 높이 칭송한 교서로 예문관제학 구상具庠, 1730-?이 지은 것이다.



확연루기
廓然樓記

1760 (영조 36)
46.0X1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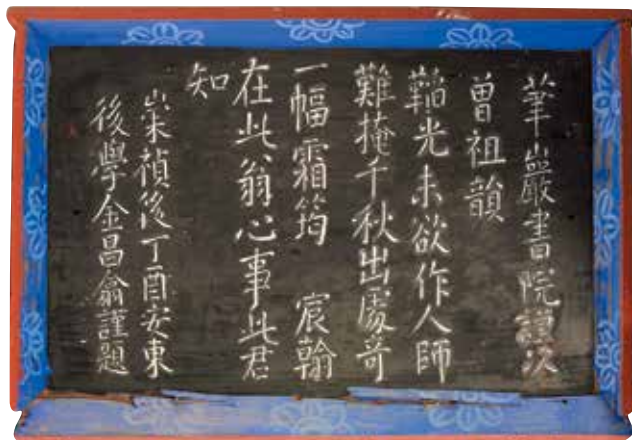
필암서원의 문루인 확연루의 창건 의미와 창건의 과정을 밝힌 글로 김시찬金時燾, 1700-1767이 지었다. 확연이란 모든 사물에 공평한 군자의 학문태도를 일컫는 말로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그러한 학문을 평소 흠모하던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누각의 이름으로 정하였다 한다.



필암서원확연루중건상량문
筆巖書院廓然樓重建上樑文

1752 (영조 28)
42.0×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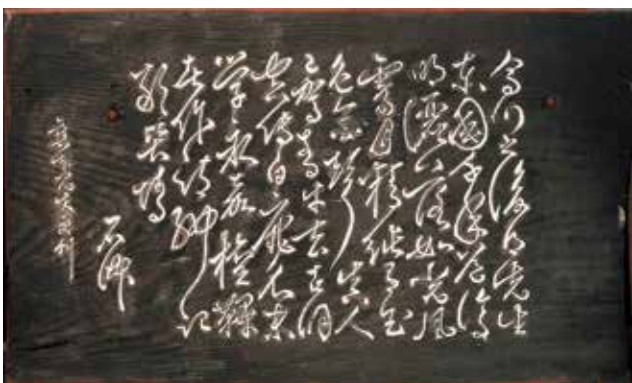
1744년영조 20 이후 화재로 소실 된 확연루의 중건 상량문으로, 송명흠宋明欽, 1705-1768이 썼다. 예전의 규모를 따라 중건한 경위와 호학好學의 빛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축원하고 있다. 확연루는 필암서원으로 들어서는 2층 문루로 유생들의 토론과 휴식 공간이다.



필암서원근차증조운
筆巖書院謹次曾祖韻

18세기
31.0×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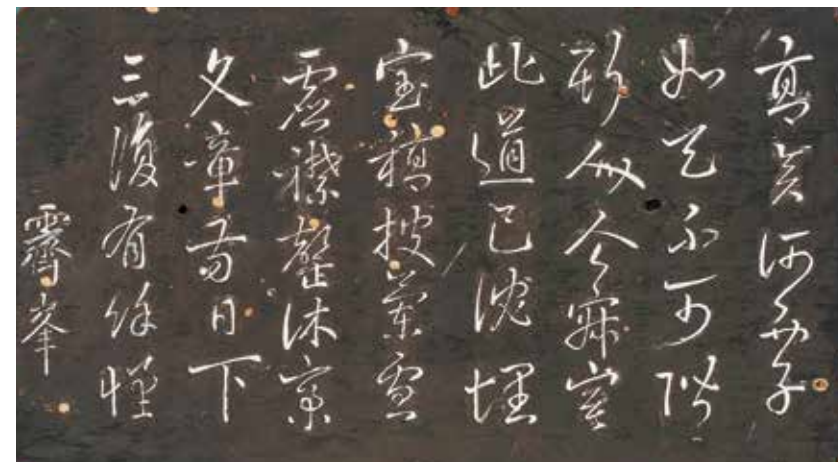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이 증조인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시 ‘오산잡영龍山雜詠’ 8수 가운데 ‘하서선생河西先生’ 시詩를 보고 차운次韻한 시판이다.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높은 학문과 바른 출처, 묵죽도에 담겨진 절의를 추모하는 심사를 표현하고 있다.



제필암서원
題筆巖書院

18세기
30.0×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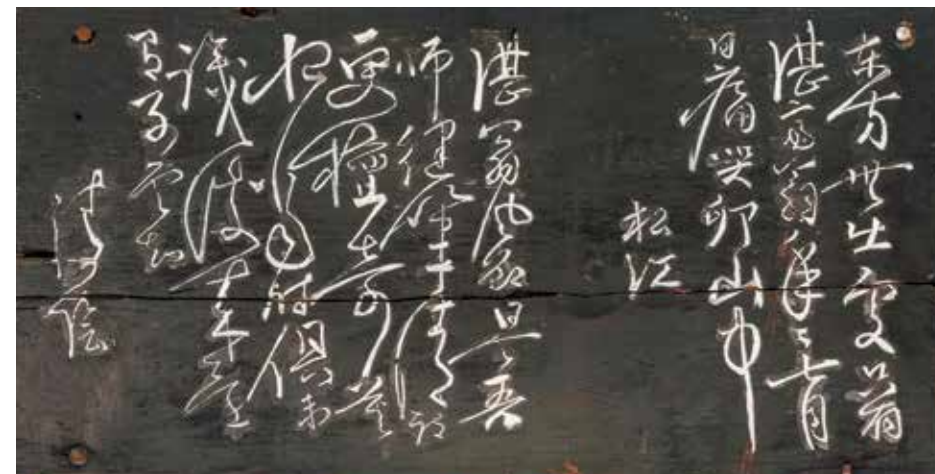
권필權輿, 1569-1612이 지은 칠언 율시이다. 하서 김인후의 인품과 학덕을 추모하고 있다. 시판 끝에 ‘구본은 잃어버려 다시 새긴다[舊本見失更刊]’라는 내용으로 보아 후대에 다시 새겨 걸여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독하서집
讀河西集

16세기
22.0×40.0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의 시판詩板이다.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높은 학덕의 추모, 출처에 대한 존경, 떠나 간 뒤의 도의 단절에 대한 걱정, 그리고 선생의 글을 읽고 또 읽어도 회포가 남는다는 심사를 표현하고 있다.



회하서/오산잡영 하서선생
懷河西/龍山雜詠 河西先生

16세기
24.0×45.0

송강松江 정철鄭澈, 1536-1593이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회상하며 지은 칠언절구 시다. 현재 시판에는 제목이 없는데 그의 문집을 통해 ‘회하서懷河西’임을 알 수 있다. 정철은 이 시를 통해 김인후의 출처에 대한 절의를 높이 사고 있다.



봉심록

奉審錄

1624-1701
46.1×29.5 (2책)

1624년인조 2부터 78년간 필암서원을 찾은 방문객들의 명단이다. 자신의 관직이나 본관을 적고 이름을 썼으며 방문일시나 방문사유, 거주지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필암서원의 인적 교류와 학맥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문계안

文契案

1678
32.3×24.0 (1책 7장)

1678년 필암서원에서 개최한 강회講會 내용과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로 강관講官 5명의 성명과 참가자 57명의 명단, 그리고 강회 규약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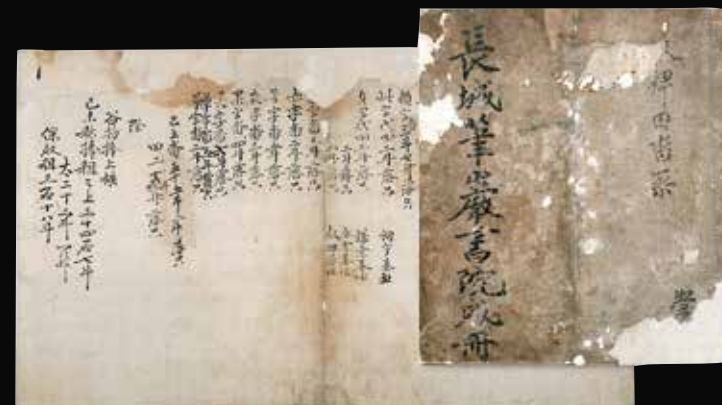


필암서원성책

筆嚴書院成冊

1680 (속종 6)
2월 29.6×25.5

필암서원 소유의 노비奴婢와 전답田畠,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한 문서로 재임齎任이 바뀌면서 인수인계 자료로 작성한 전장기傳掌記이다. 17세기 필암서원의 재정 운영실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필암서원원적
筆巖書院院籍

1708~1742, 1802
45.5X27.2 (4책)

총 4책으로 1~3책은 강회참석자의 명단으로 1책1708년에 146명이, 2책1717년에 378명, 3책1717년에 306명이 수록되어 있다. 4책은 필암서원의 각종 재산기록으로 서책書冊, 책판冊版, 제기祭器와 제복祭服, 노비와 서원답書院畵의 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필암서원집강안
筆巖書院執綱案

1752~1887
27.5X31.9 (1책 19장)

필암서원의 원임院任들의 명단으로 전후 136년간의 이어진 기록이며, 서원 원장院長, 원이院貳, 진신장의檣紳掌議, 경장의京掌議, 유림장의儒林掌議, 색장色掌'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필암서원 원장선생안
筆巖書院 院長先生案

조선후기
43.3X29.7

초대원장 송준길宋俊吉, 1606-1672부터 민병승閔丙承, 1866-?까지 필암서원의 역대원장 10명의 이름과 본관, 출생년도, 생전의 관직과 시호諡號 등을 기록하였다. 필암서원은 중앙의 고위관료를 원장으로 위촉하였는데 17-18세기 중앙 정계의 저명 인물들이었다.



노비보
奴婢譜

1745~1802
7.0X31.3 (1책 19장)

18세기 필암서원 노비의 명단과 계보도로 현전하는 유일한 노비족보로 알려진다. 18세기 필암서원 노비의 존재양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노비의 성별과 나이, 배우자, 그리고 거주지나 소유방식, 도망노비의 정황들도 기록하였다.



노비안
奴婢案

1846
33.7×29.2

필암서원의 노비안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보노안保奴案이다. 총 30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노保奴'는 서원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서원에 소속되어 신공身貢:세금, 공물을 바치고 대신 군역軍役을 면제받았던 양인良人 들이다.



목죽도판 3판

1568 (선조 1)
97.5×62.3 (3판)

인종이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에게 하사한 목죽도를 목판에 새긴 것으로 모두 3판이다. 1568년선조 1과 1770년영조 46에 새긴 것이 남아 있어서 판각의 변천을 알 수 있다.



하서선생집
河西先生集

1686 (숙종 12)
26.4×19.0 (7책)

1686년숙종 12 필암서원에서 간행한 하서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문집 중간본이다. 1568년선조 1 간행된 초간본을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이 김인후의 현손 김시서金時瑞, 외증손 이실지李實之 등과 함께 간행한 것이다. 박세채朴世采, 1631-1695의 편집을 거쳐 초간본에 부록을 첨부하여 14권으로 재편하고 별집 9권을 추가하여 필암서원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서문과 박세채의 발문이 있다.



오경백편
五經百篇

1797년
46.1×29.5 (5책)

정조正祖가 주역, 서경, 시경, 춘추, 예기에서 중요한 글을 직접 선정한 어정서御定書로 서문을 더하여 5권 5책으로 만든 책이다. 필암서원본은 내사본이다.



하서선생전집 책판
河西先生全集

1568-1802
53.0×20.5 (중간본 기준 650매)

필암서원에는 1568년 초간본 목판 1매, 1686년 중간본 목판 258매, 1802년 삼간본의 목판 391매로 총 650매가 전해진다.



백련초해
百聯抄解

16세기 후반
27.8 × 17.7 (13판)

김인후金麟厚, 1510-1560가 초학자에게 시를 가르치기 위하여 중국 역대의 칠언고시 중에서 연구聯句 100개를 선별하고 연해하여 간행한 책이다. 16세기 중엽 이후에 처음으로 간행되었으며, 필암서원에 이 책의 책판이 남아있다. 필암서원 소장 책판은 1568년선조 1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글로 풀이한 백련초해 가운데 연대가 가장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천자문 책판
草千字文

1610 (광해군 2)
25.0×66.0 (18판)

1610년광해군 2 간행된 초서천자문 책판으로 면당 4행 5자씩 모두 18판이 남아 있다. 안진경체에 바탕한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초서는 당시 성리학자 특히 호남 학자들 사이에 전형적인 모범 글씨가 되었다. 김인후가 1537년중종 32 4월 연대암連臺菴에서 썼음을 적고 있다.

축문 작성

필암서원에서는 축문을 사당에서 작성한다. 즉 초헌관과 대축이 사당에 가서 초헌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축이 축문祝文을 작성한다.



진설을 확인하는 점시點視

초헌관은 찬인과 알자의 인도하에 사당 안으로 들어가 진설 상태를 살펴본다.



향을 피우는 분향례焚香禮

초헌관이 신위 앞에서 삼상향三上香, 즉 세 번 향을 향로에 넣는 분향례를 행한다. 즉 향으로서 신을 맞이하는 것이다.



초헌 헌작獻爵

초헌관이 신위전에 첫 번째로 술을 올린다. 초헌관이 감작을 한 후에 신위전에 나와 부복을 하면, 봉작이 작을 초헌관에게 건넨다. 초헌관은 작을 받아서 헌작을 하고 전작에게 주면, 전작은 작을 받아 신위전의 첫 번째 작점맨 서편 위에 올린다.



음복수조례 飮福受胙禮

초헌관이 대표로 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 신이 흠향한 술과 조육을 맞본다. 대체로 첫 번째 올린 작과 육포를 음복하는 자리로 가져와 음복례를 행한다. 음복례를 행한 후에 헌관 또는 헌관 이하 모두 재배를 한다.



강회講會

필암서원에서는 헌관 및 집사가 향사 전날에 강당에 모여 각자가 평소 즐기던 문장을 돌아가면서 낭독하는 강회를 개최하고, 향사일에는 시제에 따라서 각자 시를 지어 발표한다. 이것은 선현에 대한 존경과 가르침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해 이 서원에서만 하는 것이다.



배향위配享位 독축讀祝

필암서원에서는 초헌에 주향위와 배향위에도 각각 축문을 읽는다. 다른 서원에서는 주향위 축문 끝에 '배' 또는 '종향' 이라 덧붙인다.



제물을 나누어주는 분포례分胙禮

필암서원에서는 향사를 마친후에 강당에서 제물을 나누어 주는 의례를 별도로 행한다. 소반에 조육 胙肉을 올려놓고 제관마다 돌리면, 제관은 읊하고 받는다. 또 청주 한 잔씩 돌리면 헌관 이하 다 같이 마시고 전원이 일어나서 서로 읊하며, 다시 앉아 백록동학규 白鹿洞學規를 돌아가며 읽는다.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건립된 건축 배치가 뛰어난

달성 도동서원 道東書院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
- 창건연대 : 1568년선조1
- 사액연대 : 1573년선조 6, 재사액 1607년선조40
- 국가지정 : 사적 제488호2007. 10. 10



도동서원은 서원 교육 방식의 구체적인 양상을 입증하며, 경사지를 활용한 서원의 건축 배치를 탁월하게 구현하였다. 건축물별로 여러 개의 단을 조성하여 외부의 자연경관을 시각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활용한 것은 경사지 서원의 조성 기법을 잘 보여준다.

주향 인물 : 김굉필1454-1504

도동서원은 위치와 경관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룬 한국 서원의 특징을 대표하며 경사지의 지형 조건을 최대한 살려 제향-강학-유식 공간을 일직선의 축에 위계적으로 배치한 서원건축 배치의 탁월성을 보여준다. 강당 기반부의 예술적 구현, 최소 규모의 예술적 계획, 흙담장 등 경관과 성리학 건축미학의 완성을 이루었다.

도동서원은 대구·성주를 중심으로 하는 경상도 중부권을 대표하는 서원으로서 향촌 문제 또는 사람들의 공동 관심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었다.

도동서원 강당과 사당 및 장원牆垣은 보물 제350호로, 2007년 10월에는 서원 전역이 사적 제488호로 지정되었다. 오늘날 도동서원은 입지와 경관, 그리고 건축에서 한국 서원을 대표하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동서원과 한훤당 김굉필

사람 교육 활동의 상징인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을 제향하는 도동서원은 1568년선조 1 김굉필의 고향인 현풍에 향중 사람들에 의해 건립한 쌍계서원雙溪書院이 전신이다. 1573년선조 6 사액을 받았지만 임진왜란으로 서원이 소실되자 1604년선조 37 보로甫老 서원으로 개명하여 중건하고 한 이후 1607년선조 40에 “도가 동쪽으로 왔다”는 의미를 지닌 도동道東으로 재사액을 받아 1610년광해군 2 위패를 봉안하였다. 그리고 1678년숙종 4에는 서원 중건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정구를 추배하였다.

도동서원에 제향된 한훤당 김굉필은 동방 5현으로 문묘에 배향된 15세기 후반 사람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조선 성리학 적통을 계승한 도학자로 평가되고 있으며, 퇴계가 한훤당에 대하여 “선생의 도학연원은 진실로 후학의 감히 추측할 바 아니다. 단연코 근세 ‘도학지종道學之宗’이라 하겠다”라 한 데서도 위상을 알 수가 있다. 특히 그는 소학교육의 보급과 조광조·김안국으로 대표되는 중종 대 개혁정치 주역들의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610년광해군 2 문묘에 배향 될 때 동방 5현 중 수현首賢의 자리에 위치함으로서 조선 성리학의 적통을 계승한 인물로 확정되었는데 이를 보아서도 그를 배향한 도동서원은 역시 역사적 위상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한편 함께 제향된 한강 정구1543~1620는 김굉필이 남긴 실천 도학을 도동서원에 구현한 인물로 퇴계 이후 영남학파를 대표하는 학자이다. 그의 김굉필에 대한 계승의식은 연보, 사우록, 경현속록 편찬, 성주 천곡서원 운영, 도동서원 중건 등 다양하다. 특히 그는 도동서원 중건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 봉안문 찬술, 퇴계 글씨를 집자한 현판 제작 등 도동서원의 권위와 김굉필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도동서원의 경관과 현판들

도동서원의 건축 구성은 전저후고의 경사지를 기반으로 한 서원 구성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건물들 상호간의 위계가 분명하고 건물 배치의 축이 뚜렷하다. 도동서원은 뒤로는 대니산이 있고 앞으로는 낙동강이 흐르는 배산임수 입지조건에 동북향을 하고 있다. 탁 트인 경관을 서원 영역으로 끌어들이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강당 중정당, 문루 수월루에서 확인되는 전면의 강경 입지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사례로 도동서원이 강경에서 자연친화적 입지를 건축적으로 완성한 것이다.

또 도동서원은 경사지라는 지형조건을 활용하여 축대를 쌓아 층위를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을 배치하였다. 수월루로 대표되는 유식공간, 강당과 동서재로 구성된 강학공간, 사당이 자리한 제향공간이 위계에 따라 ‘전저후고’ 지형 위에 축선을 중심으로 누각 - 중문 - 강당 - 내삼문 - 사우 건물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다.

사우에는 김굉필 위패를 중앙에 모시고 정구의 위패를 좌측에 배향하고 있다. 서원의 중심 공간인 강학공간 강당인 중정당中正堂은 중과 정을 표상하고, 동재 거인재居仁齋, 서재 거의재居義齋에서는 인과 의를 표상하고 있다. 이는 “성인은 중中·정正·인仁·의義로서 온갖 일은 안정시키고 고요함을 위주로 사람의 표준을 세우셨다”라는 주돈이 태극도설을 따 온 것이다.

중정당 전면과 안쪽 정면에는 도동서원 현판 두 개가 걸려있다. 전면의 서원 현판은 이황의 글씨를 모각한 것으로 정구가 계판한 연유를 기록하였고, 안쪽 정면에 걸린 사액 현판은 경상도 도사 배대유의 글씨이다. 강당 중정당 현판은 봉조하 이관징의 글씨이며, 강당 벽면에는 숙종의 전교傳敕를 비롯하여 경상감사 김안국이 현풍의 학자들에게는 김굉필의 학문을 세상에서 으뜸으로 추존한다는 내용을 적은 ‘김안국시판金安國詩板’과 ‘백록동구白鹿洞規’, ‘국기國忌’, ‘서원규목書院規目’ 등이 걸려있다.

중정당의 기반부는 다른 서원과 달리 거북, 용 등의 조각이 되어 있고, 벽돌에도 다양한 무늬를 삽입하여 지나치게 정제된 서원 건축을 보완하기 위한 창의적 장식 기법들을 확인할 수 있다. 기반은 아래쪽 지대석과 가운데 면석, 위쪽에 얇게 포개진 갑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석들은 크기와 색깔이 다른 돌들을 서로 물리도록 다듬어 쌓았고, 면석 사이에는 여의주와 물고기를 물고 있는 용머리 네 개가 돌출해 있다. 또 석축에는 세호細虎라 불리는 꽃 한송이와 함께 다람쥐 모양의 조각도 있다. 보물 제350호로 지정된 서원담장은 아름다운 흙벽 담장이다.

소장 고문서와 전적, 책판

도동서원 소장 자료에는 고문서와 전적, 책판 및 현판·기문 등이 있다. 고문서류는 서원의 창건 사실과 조직 및 운영, 경제적 기반, 향촌사회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모두 105종 215건이 남아있다.

서원 초창기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도동중창사적道東重勸事蹟』은 서원 중건 당시부터 1720년까지 원생들이 지방관·각처 교원 등에 보낸 상서·통문 등과 봉안시 제문, 초대 원장 천안薦案 등을 모은 것으로 서원 중건 초기의 문적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되자 이를 수합하여 무술년에 재정서한 것이다.

서원의 인적구성과 조직·운영체제 자료는 『원임안院任案』 1책, 『입원록入院錄』 2책 등을 비롯하여 『참제록參祭錄』 8책, 『알사록謁祠錄』 24책, 『분향록焚香錄』 1책, 『돈사록敦事錄』 2책, 『심원록尋院錄』 22책 등이 있는데 여타의 자료에 비해 비교적 잘 보관되어 있다.

경제와 관련 자료는 『토지안土地案』, 『노비안奴婢案』, 『원속안院屬案』 등과 서원 소속 산직의 서원에 대한 철물 납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인 『월차철물錄月次鐵物錄』 외에도 『정안正案』 17책, 『별보정안別補正案』 11책, 『둔조기屯租記』 7책, 『도지책賭地冊』 5책 등이 다수 소장되어 있어 서원 경제의 구체적인 재정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교육과 관련 자료는 『육영재완의절목育英齋完議節目』과 『학계안學稷案』 등이 있고, 도동서원 출판 문화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경현록景賢錄』 신·구판과 『점필재선생문인록佔畢齋先生門人錄』 등 총 8종이 확인된다.

도동서원에서는 제향 절차의 하나로 음복례인 준례를 엄격하게 진행한다. 준례는 향사를 마치고 신이 흠향한 음식을 모든 제관이 나누어 맛보며 신의 공덕을 기리는 의례로 서원향사에서 준례가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는 곳이 바로 도동서원이다.

홀기에 따라 행하므로 의식이 엄숙할 뿐만 아니라 제관 모두에게 돌아가며 순배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순배하는 순서도 다른 서원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통하여 존현의식과 예학사상을 전승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또한 도동서원은 인근에 김굉필의 묘소가 있어서 묘제와 서원 제향을 결합한 유일한 서원이다. 도동서원 유사들은 춘추 향사 외에도 음력 10월 2일에 주향인 김굉필의 묘에서 묘제를 지낸다.



도동서원
道東書院

1607 (선조 40)
40.0×160.0

1607년선조 40 도동서원이 사액 받을 때의 현판으로, '도동道東'은 성리학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는 뜻으로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의 학문이 동방 도학의 조종祖宗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글씨는 모정慕亭 배대유裴大維, 1563-1632가 썼다.



도동서원
道東書院

17세기 초
40.0×160.0

도동서원 강당 앞면에 걸린 사액 편액으로,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글씨를 집자하여 모각한 것이다.



중정당
中正堂

17세기 후반
40.0×160.0

도동서원 강당 편액으로, '중정中正'은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태극도설太極圖說』에서 인용한 것으로, 마음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실천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글씨는 근곡芹谷 이관징李觀徵, 1618-1695이 썼다.



환주문
喚主門

16세기
40.0×160.0

도동서원의 강학공간인 '중정당中正堂'으로 들어가는 문의 편액으로, '환주喚主'는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의 시에서 인용한 것으로 "내 마음의 주인 [자아自我]을 불러 항상 깨어 있게 한다'는 의미이다.



수월루
水月樓

1849 창건/1974 중건
40.0×160.0

도동서원 2층 문루 편액으로, '수월水月'은 주희朱熹, 1130-1200의 시詩에서 인용한 것으로 차가운 물에 달이 비치듯이 사욕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마음상태를 표현한 말이다. 수월루는 1849년현종 15 창건되어 몇 차례 중수를 거쳐 1974년 현재 모습으로 중건하였다.



서원규목
書院規目

1918
52.0X210.0

정구鄭述, 1543-1620에 의해 제정된 도동서원학규道東書院學規를 새긴 것으로 서원의 제례祭禮를 비롯한 구성원의 임무 등 서원운영의 제반 규범이 적혀있다. 다른 서원의 학규에 비해 내용이 매우 상세하며, 도동서원만의 독창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현판은 1918년에 다시 제작한 것이다.



서도동서원액판하
書道東書院額板下

1607 (선조 40)
98.0X250.0

1607년선조 40 도동서원을 건립한 정구鄭述, 1543-1620의 글로 사액 현판과 정구가 이황李滉, 1501-1570의 글씨를 옮겨 새긴 현판을 함께 걸게 된 사유를 밝혀 두었다. 이 편액을 우러러 보고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의 학덕을 흠모하며, 도동道東의 전통이 오래도록 이어가기를 염원하는 내용이다.



수월루상량문
水月樓上梁文

1849 (헌종 15)
55.0X136.0

수월루의 건립 당시 이원조李源祚, 1792-1872가 지은 상량문으로 건립에 대한 감회와 경과를 기록하였다. 또 서원 밖의 넓은 백사장과 밝고 상쾌한 경치를 구경하면서, 궁극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록동규
白鹿洞規

미상
39.0×120.0

도동서원 강당중정당에 걸린 현판으로 주자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학규學規와 학자십훈學者十訓이 기록되어 있다. 백록동규는 오교지목五教之目, 궁리지요窮理之要, 수신지요修身之要, 처사지요處事之要, 접물지요接物之要를 기록하고, 학자십훈學者十訓을 추가해서 적어 놓았다.



전교
傳敎

16세기
40.0×160.0

1676년숙종 2 경연에서 서원 모입자들이 흩어져 선비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자 숙종肅宗이 문묘에 종향된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의 모입자에 대한 물침勿侵의 전교傳敎를 내렸는데 이 기문은 당시 숙종肅宗의 전교를 계판 한 것이다.



도동서원 중창사적
道東書院 重創事蹟

1604-1720
36.5×22.5

창건초기부터 18세기 초기까지 도동서원 유생의 상서·소지 등의 문적들을 수합하여 새로이 정서한 것이다. 도동서원의 전신前身인 쌍계서원 건립 당시의 상황을 비롯하여 도동서원의 증건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입원록
入院錄

1610-1907
44.6 × 26.6

1610년광해군 2부터 1907년광무 11/8월 1까지 도동서원 유생 명부로 입학한 일자와 유생 이름, 추천인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도동 서원의 신중한 유생 추천과 엄격한 선발절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봉안시제집사분정기

奉安時諸執事分定記

1610-1803
34.0×23.3

1610년광해군 2부터 1803년순조 3까지 도동서원의 각종 제례를 주관한 집사들의 명단으로 제례시 업무와 성명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서원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명단 외에 정구鄭述, 1543-1620의 배향을 청한 곽수하郭壽夏등의 상서도 수록되어 당시 지역유림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노비안

奴婢案

17세기 초-1702
33.5×23.0

도동서원 소유노비 기록으로 노비의 이름과 나이, 가족 관계, 획득경위 및 거주지 등이 기록되어 있다. 노비는 토지와 더불어 서원의 주요 경제기반으로 노비의 관리 및 서원의 경제규모 및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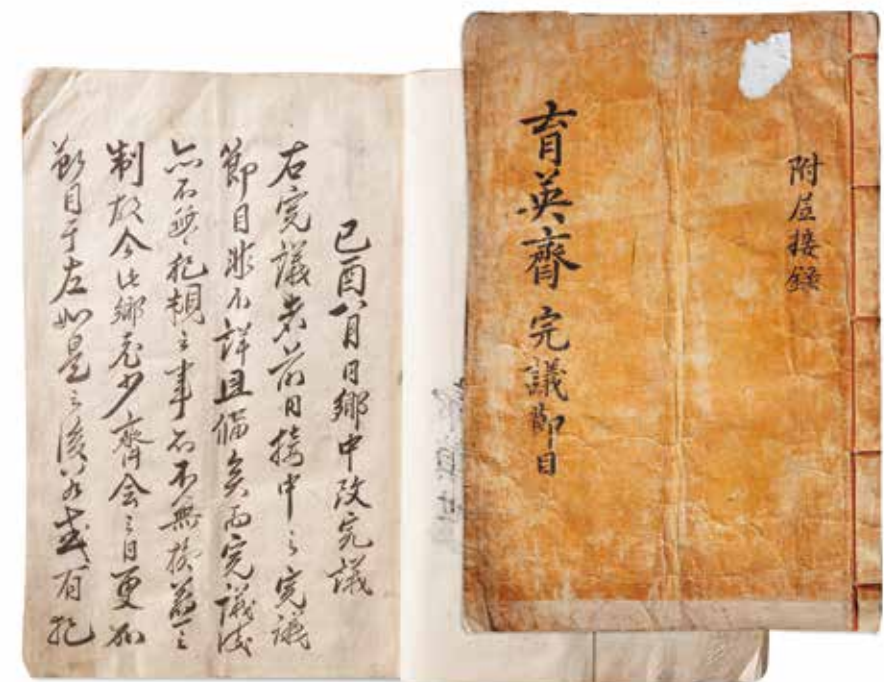


참제록

參祭錄

1611-1651
24.8×20.1(8책)

1611년광해군 3부터 1651년효종 2까지 도동서원에서 행해진 향사享祀나 묘제墓祭 등 각종 제례에 참여한 인사들의 명단이다. 당시 서원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현풍 및 인근지역 유림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모두 8책이 있다.



육영재완의절목

育英齋完議節目

1787-1789
35.0×24.0

주로 도동서원 육영재育英齋의 운영과 각종 교육 및 재정적 규범 등을 규정하고 있는 문서로, 당시 도동서원에서 행해졌던 교육활동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월차철물록
180 月次鐵物錄

병진-기묘 丙辰-己卯
22.2×21.0 (1책)

병진년에서 기묘년까지 도동서원에 소속된 산직山直이 서원에 납부한 물품내역을 기록한 장부로 이들은 피역의 대가로 서원측에 낫鎌과 도끼와 같은 현물 또는 전錢을 납부하고 있다. 납부규정을 비롯하여 월별 납부물품과 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다.



중수물력도총
重修物力都摠

1803 (순조 3)
34.7×23.0, 33.0×28.3

도동서원 중수에 소요된 막대한 비용을 출연한 여러 기관의 부조록이다. 현풍지역을 비롯한 인근 향교와 서원 및 문중 등이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당시 도동서원의 중수가 인근 사림士林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계안
學稷案

1854-1867
32.0×29.0

1854년 철종 5년부터 1867년 고종 4까지 학계學稷에 참여하였던 인사들의 명단으로 성명, 출생연도, 호를 기록하고 있다. 도동서원 학계는 계원간 학문증진이나 원활한 교육 활동을 위해 결성된 것으로 서원 유림들의 공의로 결성되었다.



도동서원 원생안 모입안 · 자비안
道東書院 院生案 募入案 資費案

19세기 이후
35.6×29.0 (12책)

도동서원 원속院屬 명부이다. 원속은 서원에 소속된 피역인避役人을 말하는데, 이들은 각종 역을 면제받는 대신 서원의 각종 잡무를 담당하거나 일정량의 예전禮錢을 납부하여 서원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원생안 7책, 모입안 3책, 자비안 2책 등이다.



도동서원전답대장
道東書院田畵大帳

1661
35.5X31.5

1661년현종 2에 작성된 도동서원전답대장道東書院田畵大帳으로 도동서원 소유 전답의 규모를 알려준다. 현풍의 21개소와 고령의 3개소에 분포한 도동서원 소유토지를 원기院基·위전답位田畵, 사기寺其·사위寺位, 진전陳田 등 명목별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당시 소유 전답 총량은 10결 43부 4속이 었다.



도동서원전답수정기
道東書院田畵修正記

1678 (속종 4)
36.0X21.5

1678년속종 4에 현풍과 고령지역 24개소에 분포한 도동서원 소유 토지를 소재지별로 정리한 자료로 지번별로 경작자를 표기하고 있으며 도동서원전답대장道東書院田畵大帳과 더불어 17 세기 중·후반 도동서원 전답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강당에서 분정례分定禮를 하는 제관

향사 때 강당에서 제관의 역할을 정하는 분정례分定禮를 한다. 주로 망기望記를 받은 제관들이 모여서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분정기를 작성한다. 분정기를 작성한 후에는 분정판에 붙여서 현관에게 최종 확인하고 강당 벽에 게시한다.



희생의 상태를 살펴보는 성생단省牲壇

도동서원에는 강당 좌측에 있는 석상石床 위에 자리를 깔아 돼지를 올려놓고 현관 이하 제관들이 희생의 상태를 살펴보는 성생례를 행한다. 요즘에는 생단 위에 돼지를 올려놓기 힘들어 여기에 돼지를 묶어놓고 성생례를 행한다.



보籩

보는 쌀과 기장쌀稗粱을 담는 제기이다. 보는 안이 둥글고, 밖이 네모난 것인데, 요즘에는 대개 네모나게 닳쇠로 만든다. 보와 궤는 짝을 이루어 변과 두 사이에 놓는데, 신위를 중심으로 왼쪽동쪽에 보, 오른쪽서쪽에 궤를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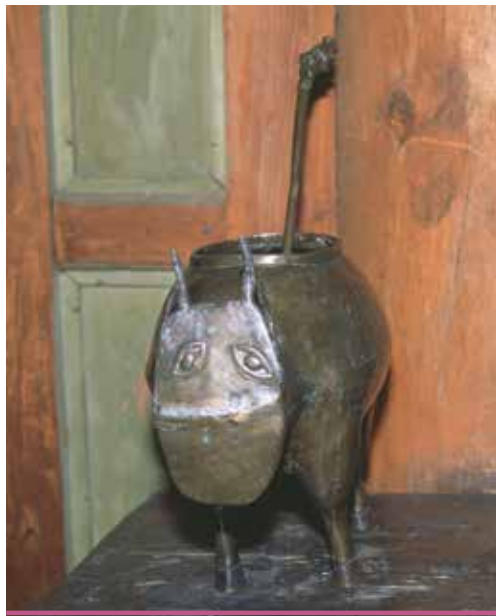
궤簋

궤는 메기장과 칠기장黍稷을 담는 제기이다. 궤는 안이 네모 나고, 밖이 둥근 것인데, 요즘에는 대개 둥글게 닳쇠로 만든다. 보와 궤는 짝을 이루어 변과 두 사이에 놓는데, 왼쪽동쪽에 보, 오른쪽서쪽에 궤를 놓는다.



희준犧樽

희준은 제주祭酒를 담는 소 모양의 항아리를 말한다. 도동 서원에서는 희준犧樽에 현주玄酒를 담는데, 요즘에는 현주를 뜻하는 맑은 물을 담고 작을 씻는데 쓴다.



상준象樽

상준象樽은 제주祭酒를 담는 코끼리 모양의 항아리를 말한다. 도동서원에서는 상준象樽에 청주淸酒를 담아서 삼헌에 쓴다.



도포道袍

도동서원에서는 제관들이 자신이 마련한 도포를 입고 향사를 지낸다. 서원 향사가 대개 벼슬이 없는 유생들이 거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예복인 도포에 유건이나 치포관을 쓰고 향사를 지낸다. 다만 도동서원에서는 헌관과 집사를 구별하기 위해 남색 도포를 입는다.



동문으로 들어가서 동문으로 나오는 헌관

도동서원에서는 동쪽으로 들어갔다가 동쪽으로 나오는 동입동출東入東出이기 때문에, 헌관은 사당에 들어갈 때 동쪽 계단을 통해 동문으로 들어오고, 나올 때에는 동문을 통해 나와 동쪽 계단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외삼문의 경우, 중문과 동문에는 계단이 있으나, 서문에는 아예 계단이 없다.



독축 讀祝

일부 서원에서는 초헌관과 대축만 신위 앞에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나머지 참사자 모두는 서서 독축을 경청한다.



축문과 폐백을 태우는 망료례 望燎禮

도동서원에서는 사당 서쪽 담장 중간에 구멍을 내어 만든 감坎에서 축문과 폐백을 태운다. 감은 보통 땅에 구덩이를 파서 만드는데, 도동서원만이 담장에다 만들었다.



주향위 主享位 묘제 墓祭

도동서원에서는 춘추 향사 외에도 음력 3월 10일과 10월 2일에 서원 뒤에 있는 김굉필의 묘소에서 향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가을 묘제만 지내고 있다.



제사 음식을 맛보는 준례 饌禮

도동서원에서는 향사를 마치고 신이 흠향한 음식을 모든 제관이 나누어 맛보며 신의 공덕을 기리는 의례를 행한다. 창홀에 따라 세 번 헌관과 모든 제관의 잔에 술을 따르고 난 후 서로 읊하고 잔을 비우는 것으로 준례를 마치고 음복을 한다.



교육기관에서 여론 수렴지로의 역할이 확대된

안동 병산서원 屏山書院

-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
- 창건연대 : 1614년광해군 5 병산서원 건립
- 사액연대 : 1863년철종14
- 국가지정 : 사적 제260호 1978년 3월 31일 지정



병산서원은 서원을 교육기관으로서만이 아니라 만인소 등 사림의 공론장으로도 확대 된 사림 활동 중심지로서의 서원의 기능을 입증한다. 많은 학자들의 수용이 가능한 큰 규모의 만대루는 자연경관과의 조화가 탁월하다.

주향 인물 : 류성룡1542-1607

경북 안동의 병산서원은 1614년광해군 5 지역 사림들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만인소 작성 등 공론장으로서의 서원 역할을 실천한 곳이며, 자연과 조화된 만대루라는 누마루 건축을 통해 한국 서원 누마루 건축의 탁월성을 보여준다. 조선의 문신 류성룡과 그의 아들 류진 을 제향하고 있는 서원으로, 1563년명종 18 건립된 풍악서당이 그 전신이다. 영의정을 역임하며 임진왜란 때 전시정국을 주도했던 류성룡이 세상을 떠나자, 제자 정경세와 지역 유림들이 그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서당 뒤에 존덕사를 세우고 1614년광해군 5 병산서원을 건립하였다. 뒤이어 류성룡의 아들 류진을 제향했으며, 1863년철종 14에는 사액을 받아 명실상부 영남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병산서원에는 서원 운영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는 많은 자료가 소장되어 있고, 빼어난 건축미를 자랑하는 옛 건축물들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절경의 병산을 마주하며, 병산서원을 찾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해 주고 있다.

서애 류성룡柳成龍

병산서원은 학자이며 정치가인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류성룡은 16세기 후반 영의정·도체찰사로 임진왜란에 뛰어난 공을 이룬 인물이다. 어렸을 때부터 신동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성장해서는 영남학파의 거두 퇴계 이황의 문인이 되었다. 류성룡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관료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그 중에서도 정읍 현감 이순신을 전라도좌수사에 파격적으로 천거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용인술의 백미라 할 수 있다. 1592년 전쟁이 발발하자 류성룡은 도체찰사와 영의정을 겸임하였다. 전란 중 정적의 공격을 당해 파직되기도 하였으나, 백척간두에 처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시정국을 주도해 나가며, 사람들로부터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학문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아 여러 저서를 남겼는데, 이 중 『징비록懲毖錄』은 임진왜란을 살펴보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자료다.

한편 류성룡과 함께 병산서원에 제향된 류진柳軫, 1582~1635은 류성룡의 셋째 아들이다. 고관대작을 역임하지 않았지만, 명상 학자의 후예답게 성실한 삶으로 칭송을 받았으며, 부친의 학문적 업적을 후대에 계승시켰다. 류진의 학행學行을 들은 정부는 그를 유일遺逸로 천거하기도 했다. 이러한 업적으로 인해 사후 부친의 위패가 모셔진 병산서원에 제향 될 수 있었다.

경관 ‘병산’과 서원 건물 배치

병산서원은 화산花山을 주산으로 하여 그 산자락에 남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서원 앞으로는 낙동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그 건너편에는 병산이 서원과 마주하고 있다. 하회마을을 휘돌아 흐르는 낙동강에 구곡원림九曲園林이 유명한데 이를 ‘하회구곡’이라 부른다. 바로 병산은 이 ‘하회구곡’의 시작이 되는 제1곡이다. 하회구곡의 으뜸답게 병산 서원의 경관은 그 어떤 서원보다 빼어나다.

서원 앞으로 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으며, 낙동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그리고 강 건너에는 병풍모양의 병산屏山이 마주하고 있어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병산서원의 누각인 만대루晩對樓에 오르면 그림과 같은 병산의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으며, 주자의 무이구곡과 무이정사의 뒷 병산을 떠오르게 한다.

병산서원은 뒤로 갈수록 지형이 높아지는 전저후고前低後高의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변 산수 및 지형 지세와 잘 어울리도록 제향祭享·강학講學·유식遊息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제향 기능을 가진 건물들이 가장 뒷부분에 배치되고, 그 앞에 강학 공간을 배치한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상묘하학上廟下學 양식이다.

병산서원 제향祭享 공간으로 사우인 존덕사尊德祠와 전사청이 있다. 존덕사에는 류성룡과 류진 부자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으며 존덕사 앞에는 어둠을 밝히는 정로대庭燎臺가 있다. 강학 공간은 강당인 입교당立教堂,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재 동직재動直齋와 서재 정허재靜虛齋, 그리고 입교당 후편에는 책판과 유물을 보관하는 장판각藏板閣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강당인 입교당은 병산서원에서 중심이 되는 건축물이다. 입교당에 오르면 누각 밖으로 전개된 낙동강과 병산을 조망할 수 있다.

누각인 만대루晩對樓는 유식 공간을 대표한다. ‘만대晩對는 당나라 두보杜甫의 시에 나오는 “푸른 절벽은 오후 늦게 대할 만하니”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것으로, 만대루에서 바라보는 병산과 낙동강은 가히 절경이라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유생들은 유식도 하고 시회詩會를 가졌다. 병산서원의 이러한 공간 구성과 건물 배치는 제향·강학·유식이 조화를 이루며,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이상을 지향하고 있다.

병산서원 당호에 깃든 의미

병산서원에 배치된 각 건축물의 당호는 진리를 탐구해야 하는 유생들의 마음가짐과 이상을 담고 있다. 외삼문에서 사당까지 진리 탐구의 과정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병산서원 외삼문인 복례문復禮門은 『논어』의 ‘극기복례위인克己復禮爲仁’를 인용한 것으로 동·서재의 동직동直과 정허靜虛가 함축하는 사욕을 버리는 내면의 마음 공부, 즉 극기복례의 인을 이루는 수양을 통해서 성현이 되는 가르침을 행하는 자기 절제의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다.

병산서원에서 가장 유명한 누각 만대루晩對樓는 앞으로 절경의 병산이 펼쳐져 있어 두보杜甫의 시 백제성루白帝城樓의 ‘푸른 절벽은 해질 녘에 마주하기 마땅하다’는 ‘취병만대翠屏晩對’에서 따온 것이다. 주희도 무이정사武夷精舍의 경치를 그린 『무이잡영武夷雜詠』의 ‘만대정晩對亭’ 시에서 “지팡이에 의지해 남산 머리에 오르니, 멀찍이 만대봉이 있네, 푸르고 가파른 모습 차가운 하늘에 우뚝한데, 지는 해는 푸른 절벽을 밝게 비추네”라 한다. 저녁 해가 병풍처럼 펼쳐진 절벽을 비스듬하게 비추는 모습에서, 두보와 주희는 산의 생기를 더 선명하게 느꼈었고, 이를 병산서원에서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강당인 입교당立敎堂은 유생들이 배워야 할 성현의 가르침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로 입교당 원편에는 경의재敬義齋, 오른편에는 명성재明誠齋로 명명된 방이 있다. 경의재는 주역에 보이는 ‘경과 의가 제대로 서면 덕이 외롭지 않다’라는 구절에서 인용하여 늘 깨어 조심하고 의를 중시하라는 학문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명성재는 서원 원장이 기거하던 방인데, 명성은 증용의 ‘성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성하게 된다’라는 구절에서 인용하여 병산서원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도록 한 것이다. 입교당 앞의 서원 유생의 기거 공간인 동재 동직재動直齋와 서재 정허재靜虛齋가 있다. ‘동직動直’과 ‘정허靜虛’는 사욕을 버리는 극기克己 공부로 인仁을 이루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유생들이 배움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을 가르킨다.

병산서원 가장 높은 곳에 선현의 위패가 모셔진 사우가 위치해 있으니. 사우의 당호는 존덕사尊德祠이다. ‘존덕’은 병산서원 유생들에 앞서서 진리를 탐구하였던 류성룡·류진 부자의 덕을 높이기 위해 붙여진 당호다.

‘공론公論’의 장, 병산서원

조선시대는 성리학적 명분을 바탕으로 한 공론정치가 표방되었다. 공론의 주체는 지역의 사람들이었고, 서원은 그러한 공론이 결집되고 논의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 병산서원은 한국 서원의 발전 과정에서 공론장으로 확장된 특별한 사례로 손꼽힌다. 병산서원은 그러한 공론의 장場으로 유명했던 곳이다. 나라의 중요한 정치적 논쟁이 있을 때마다, 영남사람들은 병산서원을 중심으로 공론을 결집시켰는데 병산서원은 한국 최초로 수천 명이 연명한 상소를 올린 서원이며 지역의 공론을 형성하고 종합, 산출하는 공론장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병산서원에 소장된 다양한 고문서들은 이러한 병산서원이 지역의 공론을 수합하고 조정해 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퇴변무소晦退辨誣疏’와 ‘복제소服制疏’다. 1611년 복인 정권은 문묘에 배향된 회재 이언적과 퇴계 이황의 위패를 철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였다. 이때 안동권의 유림들도 철향을 반대하는 ‘회퇴변무소’를 올렸는데, 이 상소문에 반영된 ‘공공지론’의 결집 장소가 바로 병산서원의 전신인 병산서당이였다.

또 현종 연간 복제 문제를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 간에 펼쳐진 예송논쟁禮訟論爭 때에도 병산서원은 공론의 장이 되었다. 예송논쟁이 일어나자 전국의 사람들은 각기 자파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상소문을 올렸다. 이때 올려진 남인 사람의 상소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병산서원을 거점으로 추진된 ‘복제소’이었다. 류원지와 류세철 주도로 병산서원에 소청疏廳이 설치되었는데, 이 상소문에 연명한 사람의 수만 1,000명이 넘었다. 이는 종전의 그 어떤 상소문보다 규모가 컸던 것으로, 대표적인 ‘공론公論’의 장場이 된 병산서원의 사회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전적, 책판, 고문서

병산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던 기록물들은 2004년 하회마을에 있는 류성룡의 종가인 충효당의 유물전시관 영모각永慕閣으로 이전되었다가,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옮겨졌다. 본래 고서는 서원 강당인 입교당入教堂 오른쪽에 위치한 서재西齋 안의 장서실에 보관되어 있었다. 1969년에 병산서원 소장 전적은 1,071종 3,039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보면 경서經書 71종, 역사歷史 52종, 전기傳記 174종, 유가儒家 54종, 천문天文 3종, 의가醫家 4종, 도가道家 1종, 류서類書 8종, 문집文集 693종, 기타 11종이었다.

기록유산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주향자인 류성룡의 저술이다. 특히 국보로 지정된 『징비록』과 보물로 지정된 『난후잡록』, 『진사록』, 『군문등록』 등은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과 도체찰사 등을 역임하였던 류성룡이 전란 때 겪었던 사건과 군사 정책 등을 수록해 놓은 자료로서, 임진왜란 연구에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병산서원의 책판은 총 25종 1,907매가 전해진다. 이중 서애 류성룡의 저술과 문집으로 『징비록懲毖錄』 244매, 『서애선생문집西厓先生文集』 구판 46매, 신판 418매, 『서애선생별집西厓先生別集』 구판 11매, 신판 83매, 『서애선생년보西厓先生年譜』 구판 18매, 신판 74매가 전해진다. 그리고 서애의 아들 류진의 『수암선생문집修巖先生文集』 67매, 『수암선생연보修巖先生年譜』 31매, 『수암집修巖集』 48매, 손자인 줄재 류원지의 『줄재선생문집拙齋先生文集』 183매, 서애 6세손 류규의 『임여재선생문집臨汝齋先生文集』 224매, 그리고 서애의 문인으로 병산서원의 창건을 주도했던 우복 정경세의 『우복선생년보愚伏先生年譜』 49매가 주목된다.

이밖에 이밖에 『도산급문록陶山及門錄』 등 퇴계 관련 목판과 『동몽수지童蒙須知』, 『성학십도聖學十圖』 등 목판, 그리고 특히 반대파의 공격으로 서애 류성룡이 파직당할 위기에 처하자 서애를 옹호하면서 파직이 부당함을 논파했던 오리 이원익의 문집 『오리선생문집樞里先生文集』 140매, 별지 48매, 속집 98매, 필첩 2매 책판도 안동을 비롯한 영남 유림들에 의해 만들어져 병산서원에 보존되었다.

병산서원의 고문서 자료로는 서원 운영 지침을 수록한 『원안요람院案要覽』 3책, 『병산서원기사屏山書院記事』 등을 비롯한 18종의 책자 형태 고문서는 교육적 기능을 중심에 둔 병산서원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서원의 교육적 기능과 관련된 자료들이 상세하게 남아 있다. 그 중에서 『거재안居齋案』과 『강안講案』 등은 서원에서 공부를 하는 원생들의 면모와 평가 방법 등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거재안」은 1781-1782년의 강학 기록이며, 「강안」은 1789년의 강학 기록이다. 「거재안」은 강학한 서책과 참여 유생의 명단을 기록한 ‘신축통독안辛丑通讀案’과 ‘신축임인거재안辛丑寅寅居齋案’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안」은 유생들을 평가한 고강考講 기록이다. 위의 두 자료에는 1781-1782년, 1789년 병산서원에서 윤독 학습과 비슷한 ‘통독通讀’, 기숙하며 공부하는 ‘거재居齋’,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고강考講’이 이루어졌음이 나타난다. 1년 중 특정 기간을 정해 학생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집중적으로 강독하는 형식으로 교육 활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병산서원
屏山書院

1863 (철종 4)
78.3×226.0

1863년철종 4 병산屏山으로 사액 받을 때의 편액으로, ‘병산’은 서원 앞의 산이 병풍을 두른 듯이 펼쳐져 있다는데서 유래하였다. 글씨를 쓴 사람은 알려지지 않는다.



존덕사
尊德祠

미상
82.0×171.0

병산서원 사당 편액으로, ‘존덕’은 서애 류성룡의 학덕을 존모한다는 의미이다. 원래 1614년광해군 6 문인들에 의해 위패가 모셔진 후, 1620년광해군 12 여강서원으로 옮겨다가 1629년인조 7에 다시 봉안하였다. 사당의 삼문에는 태극太極이, 삼문 기둥에는 팔괘八卦가 그려져 있는 것이 특이하다.



동직재
動直齋

17세기 전반
40.0×91.0

병산서원 동재 편액으로, ‘동직動直’은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통서通書에 나오는 구절로, 경敬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여 사욕이 없는 경지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뜻이 내재해 있다. 글씨는 곡강曲江 이호李珣 1553-?가 썼다고 한다.



정허재
靜虛齋

17세기 전반
38.0×87.0

병산서원 서재 편액으로, ‘정허靜虛’는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통서通書의 “욕심이 없으면 고요할 때는 텅 비고 움직일 때는 굳게 된다.”는 구절에서 인용한 것으로, 성인이 되는 것은 결국 마음 수양을 통해 사욕이 없는 경지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글씨는 곡강曲江 이호李珣 1553-?가 썼다고 한다.



복례문
復禮門

17세기 전반
67.0×183.0

병산서원 정문 편액으로, ‘복례復禮’는 논어論語 안연顔淵편에서 인용한 말로, 자신의 사욕을 이기고 예의 법도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글씨는 곡강曲江 이호李珣 1553-?가 썼다고 한다.



만대루
晚對樓

17세기 전반
78.5×202.0

병산서원 2층 누대 편액으로, ‘만대晩對’는 당唐나라 두보의 시 백제성루白帝城樓에 나오는 “푸른 절벽은 저 물녘에 대할 만하네 [취병의만대翠屏宜晩對]”라는 구절에서 인용하였다. 특히 만대루에 올라 낙동강과 병산을 바라보는 운치는 더 없이 뛰어나다. 글씨는 곡강曲江 이호李珣 1553-?가 썼다고 한다.



병산존덕사부향기
屏山尊德祠復享記

1630 (인조 8)
50.0×132.0

여강서원廬江書院에 모셨던 류성룡의 위패를 병산서원 존덕사로 옮겨 오면서 작성한 이준李堧, 1560-1635의 기문이다. 류성룡의 위패는 지역 사림의 공의로 1620년광해군 12 여강서원에 옮겨졌다가 1629년인조 7 다시 병산서원으로 돌아왔다. 현재 병산 서원 입교당立敎堂에 걸려 있다.



원임록 院任錄

1592 이전-1807 (4책)
27.0×23.0

병산서원의 운영을 담당한 원장院長과 유사有司 등 역대 임원의 명단을 수록한 것으로 병산서원에는 작성 당시의 원본과 복사본이 함께 있다. 임원 중 원장은 도유사都司라고도 하는데, 교체 때마다 유사 등의 임원과 더불어 수결手決을 하였다. 병산서원의 인적 구성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봉안록 奉安錄

1610-1614
39.0×24.5

병산서원의 배향자인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위패 봉안을 전후한 시기, 여러 집사 및 유사의 명단, 제문祭文 등을 엮어 놓은 것이다. 1610년광해군 2과 1612년광해군 4의 기록은 서원 봉안 준비를 맡은 임원 명단을 수록하였고, 1614년광해군 6의 기록은 정경세鄭經世, 1563-1633의 제문祭文이다.



집사록 執事錄

1614-1639년 26.5×29.5 (1책)
1658-1664년 23.7×22.5 (2책)
1666-1698년 21.5×24.0 (3책)
1723-1735년 27.5×21.5 (4책)

자료의 제목은 춘추향사집사분정기春秋享祀執事分定記로 모두 4책이 합책되어 있으며, 1614년광해군 6부터 1735년영조11 사이 3월 초에 열린 춘향春享과 9월 초에 열린 추향秋享 때의 집사 명단을 수록해 놓았다.



입원록 入院錄

?-1718년
33.0×20.0

병산서원 초창기부터 1718년숙종 44까지 입학한 학생들의 명단이다. 최초로 명단이 작성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병산서원의 전신인 풍악서당豊岳書堂 학생들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 된다. 명단 아래에는 해당 학생의 과거 시험 합격 여부를 기재 해 놓았다.



원노비추쇄안

院奴婢推刷案

1663~1762 (7책)
27.5×20.5 ~ 31.0×19.0

병산서원에 소속된 노비와 도망노비의 명단이다. 노비는 전답과 더불어 서원의 핵심 재산으로, 병산서원 재정 규모의 추이를 확인 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병산서원연액시사실

屏山書院延額時事實

1863 (철종 14)
31.5×28.0

1863년 철종 14 병산서원의 사액賜額과 관련된 기록들을 모아 놓은 자료로 청액 상소문과 국왕의 비답 등을 엮어 놓은 자료이다. 서두에는 사액을 청원하는 이계로李啓魯 등의 상소문과 고종의 비답批答, 사액이 마땅함을 아뢰는 비변사의 계문, 국왕의 윤허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병산 서원이 사액되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거재안

居齋案

1781~1792
31.0×21.5

병산서원에 기숙하면서 공부한 학생들의 명단과 관련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자료에는 학생들의 출생년도와 호號 또는 자자를 기재하였으며, 기숙 기간과 순번, 학습한 과목도 확인 할 수 있다. 실제 서원에서 실시된 교육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이다.



강안

講案

1789 (정조 13)
31.0×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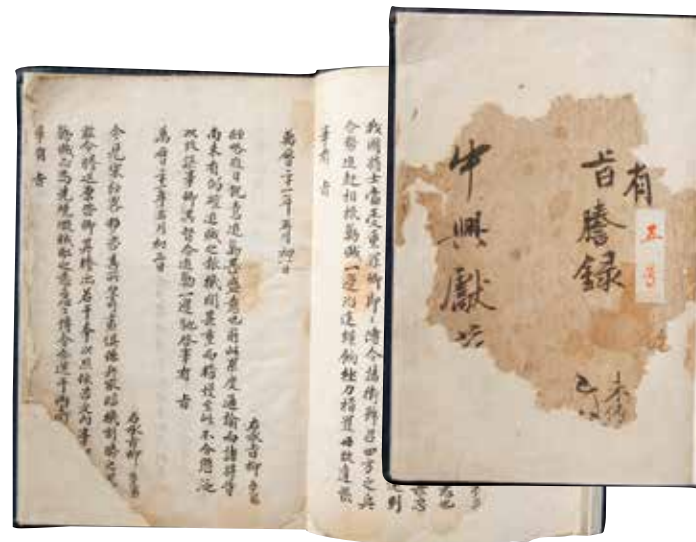
1789년 정조 13 병산서원 강회의 모습을 전해주는 자료로 참석한 학생의 성명과 출생년도, 자자를 기재하였으며, 학생 별로 평가한 경전과 성적을 기재해 놓았다. 서원 교육의 실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이다.



원안요람 院案要覽

1841 (1책) 28.3×20.0
1853 (2책) 30.0×21.0
1883-1896 (3책) 30.3×22.3

병산서원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지침을 엮은 것으로 제기·서책·잡물의 관리, 주요 재산인 전답과 노비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여러 가지 규정 등이 수록되어 있다.



중흥헌근 中興獻君

1593 (선조 26)
35.0×23.0

임진왜란 당시 1593년선조 26 4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류성룡柳成龍, 1542-1607에게 내려진 18건의 왕의 명령을 적은 유지有旨를 옮겨 적고 책으로 엮은 것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적은 것이 많고 긴박한 상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임진왜란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진사록·난후잡록·군문등록

辰巳錄·亂後雜錄·軍門臚錄

17세기 보물 제160호
진사록 30.5X21.0, 난후잡록 38.0X25.0, 군문등록 35.0x28.5

류성룡이 임진왜란 당시 겪었던 사건과 군사 정책 등을 수록해 놓은 자료로 필사본이다. 당시의 전란상황을 전해주는 자료로 매우 높은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진사록은 류성룡이 임진-계사년에 국왕에게 올렸던 군국정무軍國政務에 관한 서장書狀을 베껴 엮은 책으로 왜적의 동태, 명나라 장수와 우리나라 장수들의 작전 태세, 군량의 수집 보급, 무기의 조달, 군인들의 논공행상 등 각종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조정에 보고 또는 건의한 것이다.



징비록국보 제132호

懲毖錄

17세기
25.0X28.0

임진왜란 때 영의정領議政으로 도체찰사都體察使를 겸임하였던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이 임란 이전 일본과의 교린 사정과 1592년 4월 왜난이 발발하여 평정되기까지 7년간의 전황을 기록한 필사본이다. 원래 2권 1책이었는데, 1633년 류성룡의 아들 류진柳軫이 서애집西厓集 을 간행하면서 그 속에 수록하였고, 10년 뒤에 다시 16권으로 편차하여 간행하였다.



징비록 책판

懲毖錄

미상
21.5X35.0

징비록懲毖錄 책판은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이 안동으로 낙향한 후 3~4년 후 왜란 기간에 체험한 것을 기록한 징비록懲毖錄 친필본을 바탕으로 삼아 새롭게 편찬하여 판각한 것이다. 초본 찬술 이후 50여 년 뒤인 1647년인조 25경에 류성룡의 외손 조수익趙壽益, 1596-1674에 의해 16권으로 편찬하여 간행하였으며 전해지는 책판은 총 244매이다.



서애선생문집 책판

西厓先生文集

1633 (인조 11), 1894 (고종 31)
27.5X54.0

서애선생문집西厓先生文集 구판은 아들 류진이 소장하고 있던 초고를 바탕으로 유고를 수집하여 합천군수로 부임하였을 때 정경세와 이준의 조언을 받아 해인사에서 1633년인조 11 판각, 인쇄한 것으로 원집 20권, 별집 4권이다. 책판은 총 46매가 전해진다. 신판은 연보와 마찬가지로 1894년고종 31에 옥연서당에서 중간한 것으로 총 418매가 전해진다. 서애선생 별집西厓先生別集은 서애의 시문 집 중 본집에서 누락된 글을 별집으로 펴낸 것으로 구판 11매, 신판 83매이다.



서애묵적 책판

西厓墨蹟

1607 (선조 40)
27.5X54.0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유묵을 모아 목판본으로 판각한 것으로, 1607년선조 40에 펴낸 것이다. 16장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이다.



수암선생문집 책판

修巖先生文集

1713 (숙종 39)
21.0X32.0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3남인 수암修巖 류진柳軫, 1582-1635의 문집으로 문집 4권과 연보를 합하여 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기를 통하여 이 책판이 1713년 병산서원에서 판각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현재 67매가 전한다. 같은 시기에 간행된 수암선생연보修巖先生年譜 책판 31매도 남아있다.



도산금문록변정 책판

陶山及門錄辨訂

1916
19.0X32.5(51매)

도산서원에서 간행된 도산금문제현록을 변정한 것으로 체제 및 등재 문인의 사실 고증은 물론, 내용 및 오탈자들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1916년에 간행하였다. 전 5권 2책으로 책판의 분량은 총 51매이다.



영모록 책판

永慕錄

미상
20.0X35.0

영모록永慕錄은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이 1601-1606년에 풍산류씨 조상들의 유사와 문자를 모아 5권 2책으로 편찬한 것으로 풍산유씨세계도豊山柳氏世系圖가 수록되었고 서후書後에 편자의 편집 후의 감회가 적혀 있다. 책판은 총 54매가 전해진다.



성학십도 책판
聖學十圖

1916
64.0X104.0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이 1568년선조 1 12월의 경연經筵에서 선조宣祖가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군왕의 도에 관한 학문의 요점을 10개의 도圖와 설說로 집약하여 제시하고 이를 설명한 것이다. 책판은 1916년에 이루어졌으며 총 6매가 현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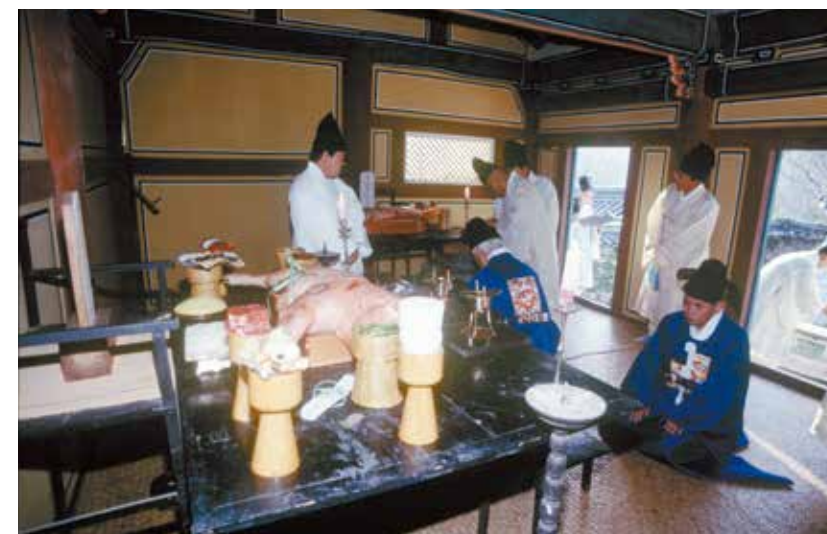
관복官服

병산서원에서는 헌관이 단령에 흉배를 단 관복을 입고 향사를 지낸다. 서원 향사가 조선시대의 의절이고, 홀기에 관복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관복을 입는 것이다.



헌작에 앞서 종향위에 상향하는 분헌관分獻官

병산서원의 종헌례에는 다른 서원과 달리 종헌관 이외에 종향위에 헌작을 하는 분헌관分獻官이 있어서, 종헌관과 함께 사당에 오른다. 종헌관은 주향위에, 분헌관은 종향위에 헌작을 하는데, 분헌관은 헌작에 앞서 종향위에 삼상향을 먼저 한다.



행례를 평가하는 제사공론祭祀公論

병산서원에서는 참사자들이 음복례를 행하기 전에 이번 향사가 절차상 실례가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제사공론祭祀公論을 한다. 나이 어린 집사가 먼저 “제사공론 합시다.”라고 하면 “제향에 결례는 없었습니까.”라고 물어보고, 공론이 다 오고가면 “제사공론 파합시다.”라고 한다.



사당 서쪽 월대에서의 축문 작성

병산서원에서는 집사 분정이 끝나면 대축이 초헌관을 모시고 사당의 서쪽 월대 위에서 축문을 쓴다. 대축은 축문을 쓰고, 초헌관은 이를 확인한다.



제물을 확인하는 근봉의례謹封儀禮

병산서원에서는 향사에 올리는 제물은 제기에 담기 전에 초헌관 및 재유사齎有司 4인의 입회하에 제물을 확인하는 의례를 행한다. 즉 정해진 향사 물품단자와 대조하면서 제물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시킨 후 용기에 담아 ‘근봉謹封’이라 쓰고 봉한다.



제물이 사당 중문으로 들어갈 때 읍하는 제관들

병산서원에서는 근봉 의례가 끝나면 제물을 사당으로 옮긴다. 이 때 초헌관을 비롯하여 모든 제관들이 사당 아래에 2열로 도열하였다가 제물이 사당 중문으로 들어갈 때 읍을 한다.



향약을 통한 향촌 교화의 장소였던

정읍 무성서원 武城書院

- 소 재 지 :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500
- 창건연대 : 1615년광해군7
- 사액연대 : 1696년숙종21
- 국가지정 : 사적 제166호



무성서원은 한국 서원의 발전과정에서 성리학 이념이 지역 단위의 지식인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확대되는 단계에 속한다. 성리학적 사회질서를 구축하고 향촌을 교화하고자 교육과 사회적 근거지에 설립되었다.

주향 인물 : 최치원 857- ?

전북 정읍의 칠보면 무성리 500번지에 소재한 무성서원은 전라우도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지방관으로 부임해 치적을 이루었던 인물과 흥학활동을 펼쳤던 지역사람들을 제향한 서원이다. 1615년광해 7 태산서원으로 규모를 갖춘 후 1696년숙종 21에 사액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려 ‘무성’이라 사액을 받았다.

무성서원은 최치원이라는 한국 유학사의 상징 인물이 제향된 곳이라는 점, 마을 속의 서원이면서 흥학과 교화의 특별한 전통과 성격을 지닌다. 고운 최치원을 비롯한 지방관들이 예악禮樂으로 백성들을 교화하고, 흥학 활동을 펼쳤던 지역 사람들을 기리는 특별한 서원이었고, 또 한말에는 강학 전통을 강화하였으며, 한말의 병오의병 창 의가 무성서원에서 이루어졌던 것 등이 주목되었던 것이다.

고운 최치원과 생사당과 태인 흥학당

무성서원은 한국의 여러 서원 중에서도 창건 연혁과 변천과정에서 독특한 특성을 가진 곳이다. 즉 무성서원은 서원 건립유서가 통일신라 시대 고운 최치원의 흥학활동에서 비롯되고,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수령의 흥학과 지역민 교화의 공적과 그 유서[學堂：서당터]를 기리면서 건립된 점이 바로 그것이다.

무성서원에 주향으로 제향되는 고운 최치원 857~? 은 한국 유학사의 상징적인 인물로 통일신라시기에 당나라로 유학하여 관리가 되었고 특히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저 유명한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을 지은 천하의 문장가로도 이름을 떨쳤다. 태인 고을 사람들은 최치원이 887년에 태산태수로 부임하여 군민을 교화한 ‘현가지성絃歌之聲’의 유풍을 백세토록 전하고자 현재 무성리 성황산 서쪽 능선의 월연대에 생사당을 지어 모셨다고 전한다.

최치원의 생사당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인지역의 또 다른 인물 불우현 정극인 1401~1481이 1483년 마련한 ‘향학당鄉學堂’과 합쳐져 1485년성종 16 현 위치로 이건하고 태인의 옛 지명을 따라 ‘태산사泰山祠’라는 사우로 이름을 바꾸었다. 정극인은 조선 초기 유학자로 만년에 태인에 은거하면서 향학당을 건립하여 젊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에 전념하였으며, 뜻을 같이하는 마을의 선비들과 향음주례를 실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무성서원의 전신 ‘태산서원’

신잡은 1543년중종 38 태인현감으로 부임하여 7년간 많은 치적을 남겼는데, 특히 고을 내 동서남북 모두 4곳에 학당을 설치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했다. 신잡이 이임하자, 고을의 선비들이 뜻을 모아 최치원의 경우처럼 생사당을 세워 그의 공적을 기렸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을 이어 1510년중종 5에는 송세립이 강당과 동·서재를 건립하여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서원의 전통을 일찍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태인의 흥학적 전통은 신잡申潛 현감에 의해서 다시 되살아난다. 1543년중종 38 태인 현감으로 부임한 신잡申潛은 7년간 재임하면서 많은 치적을 남겼다. 특히 고을 내 동서남북 4곳에 학당을 설치하여, 학문과 흥학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신잡이 이임하자, 고을의 선비들이 뜻을 모아 최치원의 경우처럼 생사당을 세워 그의 공적을 기렸다.

이처럼 무성서원은 다른 서원과 달리 최치원의 생사당에서 비롯되어 정극인, 신잡에 이르는 지방관으로서 유학의 진흥과 흥학의 치적을 남긴 인물들을 제향한 특별한 서원이었다.

그러다가 태산사는 1615년광해 7에 이르러 규모를 일신하여 서원으로 발전하였다. 당시 태산사에 모셔져 있던 최치원과 신잡을 함께 제향함으로써, 사묘인 태산사와 향학당이 결합하는 특이한 발전사를 보여주고, 이어 1630년인조 8에는 불우현 정극인1401~1481, 놀암 송세립1479-?, 묵재 정언충1479-1557, 성재 김약묵1500-1558, 또 1675년숙종 1에는 명천 김관 1575-1635까지 추배하여 최치원을 주향으로 모두 7위를 제향하기에 이른다. 이들은 모두 향촌 교화와 흥학에 특별한 행적을 보인 지역출신 인물들이었다.

‘무성’으로 사액을 받다.

그리고 태산서원은 1696년숙종 22에는 마침내 전라도 유생 202명은 사액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무성武城’이라는 사액을 받게 되었다.

당시 청액 상소에서는 사우의 창건이 이미 100여 년이 지났다는 점, 그리고 최치원의 문장과 학업, 종묘 배향을 비롯하여 신잡의 흥학 행적, 정극인 등 향현들의 활동을 적고, 이와 같은 선현들의 행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액 받지 못한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애석해하고 있으니, 특별히 유사에게 명하여 신속히 사액하여 사우를 빛내게 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 상소문은 1696년숙종 22 정월 초9일에 숙종에게 진달되었으며 그해 2월 9일 ‘무성武城’으로 사액을 받았다.

‘무성武城’, ‘현가絃歌’의 의미

서원은 액호 ‘무성武城’은 신라시대 태인의 지명이기도 하지만,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가 다스렸던 고장인 무성과 같은 이름이기도 하다. 이는 『논어論語』의 「양화陽貨」 편에서 공자의 제자 자유가 노나라 무성武城 현감이 되었는데 예악禮樂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 공자가 이 고을을 찾아가니 마침 현가絃歌가 들려와 탄복했다는 일화와 연관된다. 태산泰山이라는 옛 지명과 사우 이름이 있었음에도 ‘무성’이란 이름을 사액한 것과, ‘현가지성絃歌之聲’의 고사를 딴 문루 ‘현가루絃歌樓’는 이 서원이 읍이 크던 작던 간에 다스림은 반드시 예악으로 해야 한다는 공자의 교화사상을 나타낸다. 심학心學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흥학興學과 예교禮敎를 중심에 두었음을 상징한다.

마을 속 경관과 간결한 건축 구성

무성서원의 입지는 다른 서원들이 대부분 자연경관이 수려한 위치하는데 반해 무성서원은 마을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다. 무성서원이 자리 잡은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는 서북쪽에 솟은 칠보산에 기대어 형성된 마을이다. 바로 이 전형적인 배산임수형 형국의 마을 중심에 무성서원이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서원의 영역을 확장하지 않고 최소한의 건축 구성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축물들이 특별히 크거나 화려하지 않은 순수하고 검박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성서원의 건축이 지닌 이러한 형식과 형태에서 서원이 백성들과 가깝게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든가 향촌민과 함께 하면서 지역 문화를 선도하며,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는 의미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고운 최치원 영정과 문집

무성서원의 건립 유서가 한국유학의 도통이라 할 고운 최치원의 생사당에서 비롯되었음을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무성서원이 발전하면서 또한번 최치원과 관련한 특별한 사연들이 만들어 진다. 즉 무성서원에는 주향인 고운 최치원의 영정이 소장된 곳이다. 고운 최치원의 영정은 1784년정조 8 쌍계사에서 가져 왔고, 그런가하면 1834년에는 최치원의 『계원필경집』이 간행된 곳으로도 무성서원은 유명하다.

최치원의 영정影幀은 쌍계사에 봉안되었던 것인데, 무성서원에서는 최치원의 영정을 봉안하기 전에 사당을 증수하고, 1784년 쌍계사로부터 최치원 영정을 이안해 온다. 이 과정과 영당이건이 무성서원에 소장된 『중수일기』에 아주 상세하게 일기체로 수록되어 있다. 고운의 영정은 1784년 이안 이후 1825순조 25년 무성서원 강당이 소실되자 태인현감 서호순이 영정이 훼손될까 염려하여 1831년에 새롭게 개모하고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23년에는 한말의 저명한 화사 채용신1850-1941에 의하여 다시 개모되어 전북도립미술관에 위탁 보관되어 있다.

서유구는 1834년 호남관찰사로 재직 중 무성서원에 배알하였는데, 마침 홍석주의 집에 소장하고 있던 『계원필경』구분을 보고는 이를 교정하여 전주에서 간행하였다고 한다.

한말 병오창의와 무성서원

무성서원은 흥학당이라는 서당 강학과 향음주례, 향약의 전통이 합쳐져 오랜 전통을 이어 특별한 예교적 의미를 함께 갖고 있다. 무성서원에서는 1872년고종 9 현감 조중식趙中植이 원장을 맡으면서 매년 봄3월3일과 가을9월 9일에 강습례講習禮을 행할 것을 결의하였고, 1873년부터 1880년까지 총 20회향음주례 2회 포함의 강습례講習禮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강습례의 전통과 유림 강학의 전통이 한말 병오의병丙午義兵으로 이어진 것으로도 유명하다. 1906년 최익현과 임병찬의 병오창의 거점이 바로 무성서원이었던 것이다. 최익현崔益鉉, 1833-1906과 임병찬林炳瓚, 1851-1916은 1906년 6월 4일 무성서원에 모여 강회를 열고 최치원의 영정을 봉심하였다. 그리고는 당시 서원 소임 김기술, 유종규와 함께 강회에 참석하여 창의토적소를 올렸다. 강회가 끝난 후 80여 명의 의사가 함께 창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격문을 돌려 태인, 정읍, 순창, 곡성을 점령하였으나 6월 12일 순창에서 관군의 공격을 받아 최익현, 임병찬 등 13명은 붙잡혀 서울로 압송되어 감금 2년 선고를 받고, 대마도로 유배되었다. 강수재 앞에 있는 「병오창의기적비」에는 당시의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무성서원 고문서들

또한 무성서원에는 다양하고 특별한 서원 고문서자료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들 성책 고문서들은 필사 원본으로 무성서원의 역사와 문화, 활동 특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자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자료는 사액서원이고, 전라좌도의 수원首院으로 명성이 컸던 무성서원의 운영 모습과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대가 올라가는 유생안류원유안, 원생안과 함께, 사액을 받은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 연액기사, 중수일기, 그리고 완문·절목, 심원록과 봉심록 등등이다,

시대가 가장 올라가는 무성서원 유생안은 사액 이전의 태산서원 당시의 원생록 2책과 무성원서원으로 사액 받은 이후의 원생록 2책으로 시대가 매우 이른 1618년, 1620년, 1622년, 1639년, 1659년의 5건의 태산서원유생안泰山書院儒生案이 보존되어 있다. 무성서원원생안武城書院生案도 1773년과 1800년 원생안, 그리고 1801년의 노비안이 함께 철해져 있어 모두 7점의 유생안과 1종의 노비안이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무성서원에는 다른 서원들에서 보기 힘든 『연액기사延額記事』 1책이 전한다. 이는 무성서원 사액과 관련된 기록으로 1695년 무성서원 청액소에서부터 연액례, 폐물 등 부조기, 건물의 수리, 위패의 환안과 이안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귀중한 자료이다. 그리고 『중수일기重修日記』 1책은 1783년정조 7 고운 최치원의 영정을 봉안하기 전에 사당을 증수하는 과정에서 출연한 인명과 1784년 쌍계사로부터 최치원 영정을 가져오는 과정까지 영당이건 관련한 일체의 일기체 기록이다.

한편 서원 운영과 경제 실상을 구체적 보여주는 고문서로 무성서원의 완문과 절목이 4책으로 전해지고, 18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200여 년 동안 서원을 찾아와 봉심했던 인명록인 『심원록』과 『봉심록』도 5책으로 전하는데 이들 자료를 통하여 무성서원 학맥과 인맥, 정치사적 성향을 가늠할 수가 있다. 무성서원제물책武城書院祭物冊 1책은 1734년 무성서원에서 사용한 제물의 목록과 수량을 기록한 것이다. 사액 후 관에서 제수 공급한 물품 명목이 실려 있다.

제향의례 중에서 독특한 것은 무성서원은 제물을 사당에 봉치할 때 지역 전통 의례와 결합되어 외삼문 밖에서부터 강당의 앞마당에 제향공간까지 황토를 뿌리는 특이한 사례가 주목된다. 이는 무성서원의 특징으로 성현에게 올리는 제물을 신성시하여 일체의 삿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게 한다는 벽사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민간신앙과 습합된 의례로 보인다.



무성서원
武城書院

1696 (숙종 22)
54.0×201.0

통일신라의 문장가이자 태산현감을 지낸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을 제향하는 무성서원의 현판이다. '무성武城'은 통일신라 때 태인현의 옛 이름이기도 하며, 공자孔子의 제자 자유子游가 예악禮樂으로 다스렸던 무성현과도 같은 이름이다.



현가루
絃歌樓

1904
50.0×149.0

무성서원의 문루 현가루 현판으로 현가라는 이름은 공자孔子의 제자 자유子游가 노나라 무성武城의 수령이 되어 예악禮樂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 '현가지성 絃歌之聲'이 들렸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태산사
泰山司

20세기
50.0×190.0

무성서원 사우祠宇의 현판이다. 태산사는 통일신라 때 태산현감을 지낸 최치원崔致遠의 생사당을 1483년성종 14에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이다.



강수재
講修齋

19세기 말
26.0×63.0

무성서원의 강학당 현판으로 강수재는 무성서원 강습례와 관련되는 주요 건물이다. 18세기 초에 처음 건립되었으나, 1884년고종 21 지금의 모습으로 중수하면서 강당 앞이 아닌 좌측 별도 구역에 자리잡았다.



강당중창기

講堂重創記

1828 (순조 28)
38.5×90.0

무성서원이 화재로 소실되어 1828년순조 28 중수할 때의 기문으로, 제향인의 후손들이 힘을 합치고 태인현감 서호순徐灝淳이 적극 지원하였음과,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무성서원최선생문집중간기

武城書院崔先生文集重刊記

1833 (순조 33)
38.0×94.0

무성서원의 대표적인 제향인물이자 신라 말의 학자요 문장가인 최치원崔致遠, 857-?의 문집인 『계원필경桂苑筆耕』판각 을 무성서원에 소장한 내력을 기록하고 있다.『계원필경桂苑筆耕』은 전라도관찰사 서유구徐有集, 1764-1845가 전주감영에서 중간重刊하여 무성서원에 보관하였다.



무성서원복호보노환복기

武城書院復戶保奴還復記

1882 (고종 19)
33.5×96.5

무성서원은 사액과 함께 국가로부터 노비 30명을 받아 지원 받았으나 1868년고종 5 서원철폐령으로 소유권을 잃게 되자 태인 현감 이정직이 서원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노비를 다시 복구시킨 과정과, 참여한 인물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무성서원지개간기

武城書院誌改刊記

1884 (고종 21)
30.0×80.0

1884년고종 21 에 서원의 연혁과 각종 관련 자료를 모아 편집한 『무성서원지武城書院誌』를 발간한 과정과 참여자의 명단을 적은 것으로 서원지의 발문을 썼던 정읍현감 기량연의 글이다.



태산서원원생안
泰山書院院生案

1618-1620
23.0×19.0 (1책 24장)

태산서원의 초창기 유생 명단으로 1618년광해군 10 원생 54명의 명단, 1620년광해군 12 유생안 88명, 원생안 109명의 명단이 함께 묶여 있다. 무성서원으로 사액 받기 이전의 자료로 가치가 있다.



심원록·봉심록
尋院錄·奉審錄

1612-1915
35.0×15.0 (대소부동, 6책)

1612년광해군 4 이후 300여 년 간의 무성서원 방문자들의 명단으로, 약 2,500여 명 정도의 방대한 인명록이다. 방문자의 이름과 자호字號를 적고 관직 본관, 생년, 거주지, 일시, 방문 목적 등을 기록하였다. 무성서원의 학맥과 인맥, 정치적 성향을 가늠하게 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무성서원원생안
武城書院院生案

1773 (영조 49)
28.0×13.0 (1책)

무성서원 원생 명단으로 앞에 무성서원은 문묘 종향인을 제향한 서원으로 정원을 30명으로 정한다는 관찰사가 내린 공문이 첨부되어 있고 30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명단에는 거주지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





연액기사 延額記事

1696 (숙종 22)
36.0X14.01 (책58장)

무성서원의 사액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자료집으로 유지춘 柳之春 등의 청액 상소, 사액 결정과정, 예관의 파견과 예물, 각음의 부조와 재물 수입, 연액시의 제수, 이안, 환안제 축문, 그리고 사우중수 등등의 제반 자료를 망라하고 있다.



완문 完文

1838 (헌종 4), 1845 (헌종 11)
25.0X16.0, 21.0X18.02 (책15장)

무성서원의 경제실상과 운영모습을 보여주는 태인현에서 발급한 문서로 무성서원 전답을 팔아 여러 마을에 나누어 주고 이자를 받도록 한 내용이다. 절목節目에 마을별 분배 액수와 이를 증빙하는 관인이 찍혀 있다.



무성서원제물책 武城書院祭物冊

1734 (영조 10)
28.0X22.01 (책3장)

무성서원의 제향시 관청에서 지원 공급한 제물의 목록과 수량을 기록한 문서이다. 향향과 폐백幣帛을 비롯하여 쌀과 생선, 고기, 밤, 대추, 술 등이 있었으며, 항목마다 지원한 기관과 수량을 표기하였다.



중수일기 重修日記

1783 (정조 7)
37.0X17.01 (책17장)

1783년정조 7 무성서원의 사우를 중수하고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의 영정을 옮겨 봉안하는 과정을 기록한 문서이다. 문서에는 사우 증수에 참여한 기관과 인명, 여러 고을에 보낸 통문通文, 쌍계사雙溪寺에서 영정을 가져오는 일련의 과정 등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무성서원지
武城書院誌

1884 (고종 21)
30.5×20.3 (2권2책)

1884년 고종 21에 목활자로 간행된 상·하 2권 2책으로 최치원崔致遠, 857-?의 유적과 유문, 제향인물의 사적, 서원 창건과 사액과정, 각종 원규, 제향, 강습례 자료, 건물 중수기, 그리고 각종 물목과 전답안, 원생록, 봉심안 등이 수록되어 있다. 대원군의 서원훼철 이후의 재정비된 서원의 교육, 강학, 의례의 진면과 자료 집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 된다.



계원필경집
桂苑筆耕集

1834 (순조 34)
30.5×20.3 (20권 4책)

최치원崔致遠, 857-?의 시문집으로 20권으로 편차되어 있고, 여러차례 간행된 것으로 알려 져 있지만 간본은 거의 남아있지 않는다. 19세기에 이르러 전라도全羅道 관찰사觀察使로 재직 중이던 서유구徐有渠, 1764-1845가 홍석주洪奭周, 1774-1842의 집에 소장된 구본舊本을 얻어 교정하여 전주에서 1834년 순조 34에 금속활자로 간행하였다. 서문에서 서유구는 간행과정을 요약하고 태인 무성서원과 합천의 가야사에 나누어 보관한 것임을 기록하였다.

황토를 깬 신도神道

무성서원에서는 외삼문에서 사당까지 제물이 통과하는 길 양쪽으로 황토를 깬다. 이것은 황토를 깬 안쪽이 신도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제물에 부정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강당 중앙칸을 통해 내삼문 중문으로 들어가는 제물

무성서원의 제기와 제물은 반드시 정문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제물을 가자에 담아 두 사람이 메고 황톳길을 따라 강당 건물의 어칸중앙칸을 거쳐 사당 중문으로 들어간다.



영정影幀과 위패位牌

무성서원에서는 주향위인 최치원의 위패 이외에 영정도 함께 봉안하여 향사를 지낸다. 향교의 경우 공자 신위전에 공자의 영정과 더불어 위패를 모시고 석전을 지내고 있지만, 다른 서원의 경우 대부분 위패만 모시고 향사를 지낸다.



무성서원제물책武城書院祭物冊

1734년영조 10 7월 관청에서 무성서원의 향사때 지급한 제물의 목록과 수량을 기록한 문서이다. 향족과 폐백幣帛을 비롯하여 쌀과 생선, 고기, 밤, 대추, 술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항목마다 지급한 관청과 수량을 표기하였다.



중헌 및 음복수조례 후에 재배하는 삼헌관三獻官

무성서원에서는 중헌 및 음복수조례 후에 삼헌관만 재배를 하고, 철변두撤邊豆 후에 헌관을 제외한 재위자들만 재배를 한다. 다른 서원에서는 삼헌 후에 헌관만 재배를 하거나, 음복수조례후에 헌관 이하 모두 재배를 한다.



성리학의 실천 이론인 예학 논의의 산실이었던

논산 돈암서원 遯巖書院

- 소재지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74번지
- 창건연대 : 1634년인조12
- 사액연대 : 1660년현종1
- 국가지정 : 사적 제 383호



돈암서원은 성리학의 실천 이론인 예학을 한국적으로 완성한 거점으로서, 응도당은 정침이론을 한국의 건축언어로 재해석하여 완성한 뛰어난 건물로서 한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례이다.

주향 인물 : 김장생1548-1631

돈암서원은 조선 성리학의 예학禮學을 확립한 김장생金長生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1634년 창건한 호서지역의 대표 서원이다. 돈암서원은 예학禮學을 집대성한 김장생의 강학전통을 기반으로 수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다. 조선 예학의 연구의 거점으로서 예서禮書의 출판 보급의 산실이었다.

정회당과 양성당의 강학 전통

돈암서원은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 1548-1631의 강학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건립된 서원이다. 김장생의 강학활동은 아버지 김계휘金繼輝가 1557년명종 12 건립한 정회당靜會堂에서 비롯되었다. 김계휘는 연산에 낙향하여 후학 양성과 향촌 교화를 위해 정회당을 설립하였고, 그 전통을 아들 김장생이 이어받아 1602년선조 35 양성당養性堂을 짓고 강학을 시작하였다.

양성당은 호서예학湖西禮學의 산실로 이곳에서 배출된 문인들은 돈암서원 건립의 주역이자 인적 배경이 됨은 물론 조선중기 이후 호서사림湖西士林의 중심 역할을 한다.

서원 건립과 사액

1631년인조 9 김장생이 세상을 떠나자 이듬해인 1632년에 아들 신독재 김집愼獨齋 金集, 1574-1656을 필두로 김장생의 문인들이 주도하여 서원 건립을 발의하여 1634년인조 12에 서원이 건립되었다. 1656년효종 7 김집의 사후 1658년 추배가 이루어지고 1659년 ‘돈암遜巖’이라 사액이 내려졌다. 돈암서원에는 기호사림을 이은 호서사림의 주역들이 차례로 제향되었으니 1688년숙종 14에 송준길, 그리고 1695년에는 송시열이 추배되었다.

호서 수원湖西首院, 기호예학畿湖禮學의 거점

돈암서원은 창건 이후 호서학파의 공론이 형성되는 거점이 되었다. 창건의 유서를 마련하는 사계 김장생은 조광조·이이·성혼을 잇는 기호사림의 적통이자 예학의 대가로서, 실천적 호서예학의 종장으로 불리운다. 아들 신독재 김집1574-1656은 김장생의 차남으로 아버지 김장생과 함께 예학의 기본적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송시열 등에게 학문을 전수하여 기호학파畿湖學派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김장생이 편찬한 『의례문해疑禮問解』등을 교정하고 편집하는 일에 전력하였다. 1648년인조 26에는 김장생의 저서 『상례비요喪禮備要』를 중간하였다. 저서로는 『신독재문집』이 편저로는 『의례문해속疑禮問解續』 등이 있다. 그들이 양성한 후학들이 바로 송시열과 송준길·이유태·윤선거·유계로 호서의 오현五賢으로 불리며 학문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돈암서원을 중심으로 호서지역 사람들은 교류와 강론, 각종 서적의 출판, 스승에 대한 추충 활동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으며, 효종 즉위 이후 북벌北伐의 중추 세력을 형성한 산림들 중에는, 김장생의 문인 중 무려 14명이 포진되기도 하였다. 명실상부하게 돈암서원 배출인물들이 병자호란 이후 17세기 조선의 정계와 사상계를 주도하며 공론을 이끌어갔던 것이다.

조선후기 예학의 성행은 성리학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7세기 예송논쟁의 전개와 함께 예서禮書의 출판은 각 학파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주요사업이었다.

돈암서원 건축과 응도당凝道堂

돈암서원은 건축적인 측면에서도 호서지역의 규범적이고 대표적인 서원으로서 의미가 있다. 돈암서원은 마을과 경지가 함께 어울어진 평야에 입지하여 먼 산을 바라보는 곳에 입지한 야경서원으로 서원의 문루인 산양루山仰樓는 멀리 고산高山을 전망하는 의미를 지닌다. 김장생은 양성당에서 전망하는 경치를 “산을 우러르며 즐기고 시내를 내려다보며 물을 살피며 자연 경물을 접하는 대로 이치를 깨닫는다”고 기술한다. 배치구조도 김장생이 『가례집람』에서 언급한 서원건축의 구체적인 구조를 실현하여 돈암서원은 호서지역 서원건축의 모범이 되었다.

제향시설로 사우 숭례사와 전사청이 있고, 강학시설로 강당 양성당養性堂, 응도당과 재사 거경재, 정의재가 있다. 강당 양성당養性堂의 ‘양성養性’은 김장생이 마음공부를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이름 붙인 당호堂號이다. 그리고 동재는 거경재居敬齋로 서재는 정의재精義齋로 명명하여 동·서재에서 수업하는 선비들은 마땅히 거경과 정의로써 본성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유경사-양성당 -거경재·정의재-산양루로 이어지는 돈암서원이 상징하는 기호 경관이다.

그리고 특히 정면 5칸, 측면 3칸의 강당인 응도당凝道堂은 돈암서원 건물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건물이며, 김장생이 『가례집람』에서 언급한 서원건축의 예제를 충실하게 재현한 건축이라는 점에서 그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 제1569호로 지정되었다. 큰 건물의 경우 표현이 잘못되면 위압적이고, 무뚝뚝한 건물이 되기 쉽다. 그런데 응도당은 공포·화반·대공 등의 구조재에 장식수법을 사용하여 지붕을 경쾌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했다. 응도당은 뛰어난 장식수법을 활용함은 물론 기호학과 건축에 대한 생각을 실천적으로 만들어 낸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예서의 출판과 돈암서원

예송논쟁으로 알려진 17세기의 예서禮書의 출판은 각 학파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주요사업이었으며, 돈암서원이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주자가례』를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심화되면서 각종 주석서들과 함께 더불어 가례의 언해작업도 이루어진다. 돈암서원의 예서출판은 서인 예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의미가 있으며, 특히 돈암서원에서 간행한 『상례비요』, 『가례집람家禮輯覽』, 『의례문해속儀禮問解續』 등 예서 3종은 예학서의 간행에 있어서 서원의 역할을 파악하는 단초가 된다.

『상례비요』는 17세기 전반기에 신의경申義慶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 원래는 1권 1책의 분량이었으나 1620년광해군 12 김장생이 여러 부분을 증보하고 속례도 첨부하여 사용에 편리하게 하고, 서문을 붙여 체제를 갖추었다. 그 뒤 1648년 그의 아들 김집金集이 다시 교정하여 2책으로 1621년광해군 13 돈암서원에서 중간하였다.

『가례집람』은 10권 6책으로 구성되었으며 『가례』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고 예서禮書의 고전과 여러 학자의 관계설을 주석으로 삼아서 김장생1548-1631이 편찬한 책이다.

김장생은 『가례집람』 외에도 『의례문해疑禮問解』, 『개장의改葬儀』, 『제의정본祭儀正本』, 『예기기의禮記記疑』 등 여러 편의 예서를 남겼다.

그리고 돈암서원은 사계 김장생과 신독재 김집의 문집으로 『사계유고』, 『사계연보』, 『사계전서』, 『신독재유고』와 『신독재전서』 등을 간행하였다. 한편 돈암서원에서는 제향인물의 문집들이 연이어 출판되었다.

현재 돈암서원에는 1922년에 건립된 장판각에 이들 여러 책판이 소장되어 있다. 현존 소장 책판은 『가례집람』 169판, 『경서번의』 86판, 『사계선생연보』 3판, 『사계선생유고』 160판, 『사계전서』 953판, 『사계전서』속 79판, 『상례비요』 32판, 『신독재연보』 13판, 『신독재선생유고』 202판, 『신독재전서』 140판, 기타 4판으로 총 1,841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고문서로는 김장생 문묘배향 교지, 『돈암서원유생도기遯巖書院儒生到記』, 『사계신독재양선생문인록沙溪愼獨齋兩先生門人錄』 등 10종이 전해진다. 현판·기문자료는 돈암서원의 상량문과 편액, 양성당의 기문과 증수기, 이진기 등이 있다.



돈암서원
遼巖書院

1660 (현종 1)
85.0×230.0

사액 현판으로 '돈암遼巖'이란 원래 서원이 위치한 곳 가까이 있던 바위를 일컫는 말이다. 사액 현판의 글씨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썼다고 하며, 서원 정문인 입덕문入德門에 걸려 있다.



응도당
凝道堂

미상
80.0×185.0

돈암서원 큰 강당의 현판으로 '응도凝道'란 덕을 닦고 학문을 모아 성취한다는 의미를 지녔다. 원래 돈암서원 강학 활동의 중심으로, 옛 건물의 제도를 제대로 본받아 지은 것으로 유명한 응도당은 보물 제 1569호로 지정 되었다.



송례사
崇禮祠

현대
65.0×200.0

돈암서원의 사우 현판으로 '송례崇禮'는 예를 높인다는 의미인데, 군자가 덕을 닦고 학문을 이루는 방법을 말한다. 문묘에 종향된 김장생金長生, 1548-1631, 김집金集, 1574-1656, 송시열宋時烈, 1607-1689, 송준길宋俊吉, 1606-1672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으며 사우 이름을 유경사唯敬祠라 부르기도 한다.



양성당
養性堂

1660 (선조 35)
55.0×150.0

현재 돈암서원 강당 현판으로 김장생金長生이, 스스로 늙더라도 게으르지 않도록 자신을 경 계하고자, '오랫동안 힘들어 본성을 기른다' 는 의미를 부여한 당호이다. 이견과정에서 현판만 전해지던 것을 현재 위치로 서원을 이전하면서 새 강당에 계판하였다.



정회당
靜會堂

17세기 초
44.0×107.0

정회당은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아버지 김계휘金繼輝, 1526-1582가 낙향한 후 연산현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곳이다. '정회靜會'란 고요히 모인다는 의미로 이 정회당이 훗날 돈암서원을 건립하는 기반이 되었다. 글씨는 이 일대에서 명필로 알려진 김예산金禮山이 8세에 쓴 것이다.



양성당기
養性堂記

1603 (선조 36)
45.0X100.0

정엽鄭曄, 1563-1625이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부탁으로 1603년선조 36에 지은 양성당기문으로 양성당 주변의 경관 과 함께 양성당을 건립하게 된 사연, 그리고 '양성養性'의 의미처럼 학문의 큰 줄기가 이어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양성당제영
養性堂題詠

17세기 전반
45.0X120.0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이 1602년선조 35 고향으로 돌아와 양성당養性堂을 짓고, 옛날의 시를 다시 곁고 당시의 17세기 전반의 저명한 인물 19명에게 차운次韻 시를 받아 계판한 것이다. 이를 통해 김장생과 양성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폭넓은 인적 교류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양성당십영
養性堂十詠

17세기 후반
45.0X150.0

양성당십영養性堂十詠은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이 양성당 주변의 빼어난 산수 경관을 읊은 것으로 이 현판에는 이단하李端夏, 1625-1689, 황혁黃赫, 1551-1612, 장유張維, 1587-1688 등 저명인사들의 시문詩文이 기록되어 있다.



연산돈암서원상량문
連山遯巖書院上樑文

1633 (인조11, 3월)
37.0X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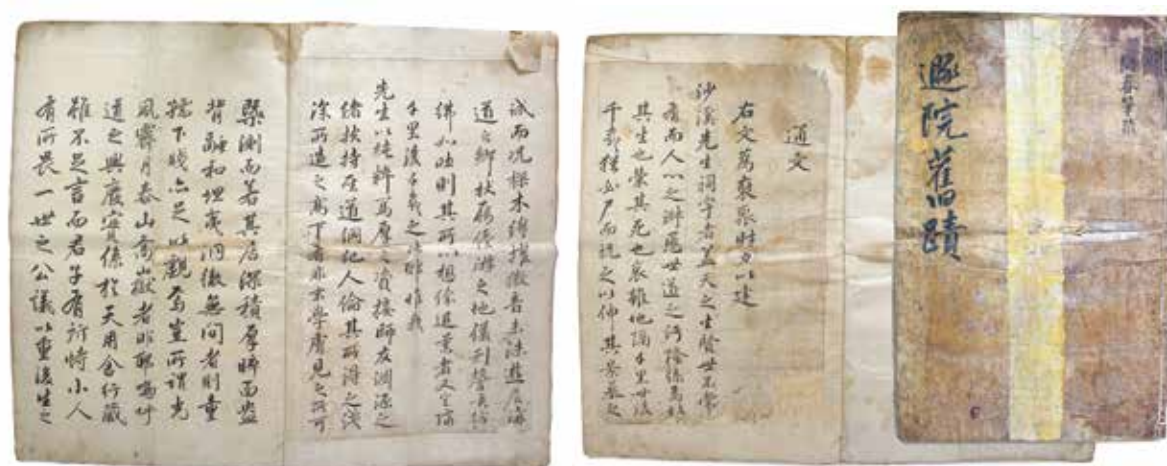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이 지은 돈암서원 창건시의 상량문이다.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성품과 학문, 그리고 많은 후학들이 따랐음을 칭송하고 이어 서원을 세운 내력과, 많은 선비들이 이곳에서 강학과 장수의 진통을 이어가기를 기원하고 있다.



아한정제영
雅閑亭題詠

1881 (고종 18)
40.0X127.0

양성당의 전신인 아한정은 원래 최청강崔淸江, ?-?의 별서別墅였다. 이 현판에는 아한정에 관한 김국광金國光, 1415-1480, 신숙주申叔舟, 1417-1475, 송익필宋翼弼, 1534-1599, 김은휘金殷輝, 1541-1611 등이 지은 시문이 판각되어 있다. 글의 말미에는 최청강의 후손 최창환崔昌煥이 아한정 건립과 여러 시가 전해오는 유서를 설명해 두고 있다.



신독재선생봉안시 유생내회록
愼獨齋先生奉安時儒生來會錄

1658 (효종 9)
37.0×26.5

1658년 효종 9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 1574-1656을 추배할 당시 참석한 유생들의 명단으로 총 323명의 관직과 이름, 생년과 자字, 그리고 출신지가 수록되어 있다. 당시 돈암서원의 학맥과 인맥,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는 문서이다.



돈원구적
遜院舊蹟

1632 (인조 10)
66.5×42.5

1632년 인조 10 돈암서원 창건 당시 재원마련을 위하여 여러 향교와 서원, 그리고 사람들에게 발송한 통문通文이다. 윤전尹詮, 1575-1636을 비롯한 56인 유사有司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 원래는 하나의 문서였던 것을 여러 장으로 분리하여 성책成冊하였으며,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필적이다.

원중구적
院中舊蹟

1688 (숙종 14)
66.5×42.5

1688년 숙종 14 돈암서원에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을 추배할 때 참석한 유생들의 명단으로 총 180명의 관직과 이름, 자字와 생년, 그리고 출신지가 쓰여 있다. 17세기 후반 돈암서원의 사회적 연결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돈암서원재임안
遼巖書院齋任案

1738-1846
36.5x24.5

1738년부터 1846년까지 108년 동안 돈암서원 운영을 담당했던 원장院長을 비롯한 장의掌議, 유사有司, 직월直月 등의 명단을 기록한 문서이다. 원장院長으로는 이조판서 이재李繼, 1680-1746를 시작으로 박필주朴弼周, 1665-1748와 송환기宋煥箕, 1728-1807 등 모두 7명이 기록되어 있다.



돈암서원전답양안
遼巖書院田沓量案

1781
35.5x25.5

돈암서원의 경계기반을 알려주는 자료로 서원전답의 현황총록이다. 전답의 위치와 넓이, 도조로 받은 액수 등을 기입하였다.



재중기부
齋中記簿

무오戊午 3월
34.5x20.5

돈암서원에 보관된 서책書冊과 제기祭器, 각종 기물의 목록과 수량을 정리한 것으로 각종 성리서와 예서禮書, 문집류 등으로 다양한데 항목마다 수량과 보관 상태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별도의 항목을 두어 유실된 서책의 현황과 사유도 첨부하였다.



돈암서원학계안
遼巖書院學契案

1886 (고종23. 5월)
32.5x23.0

돈암서원에서 학계學契를 만들어 운영한 규칙으로 6개조의 절목에 매년 1회 향음주례를 행한 뒤 강회講會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하여, 운영비용과 임원선발, 서책관리 등에 관한 항목을 정리하였다. 충청관찰사 심상훈의 300량 지원내용과 수결, 관인이 찍혀 있다.



**절목
節目**

1892 (고종 29, 2월)
37.0×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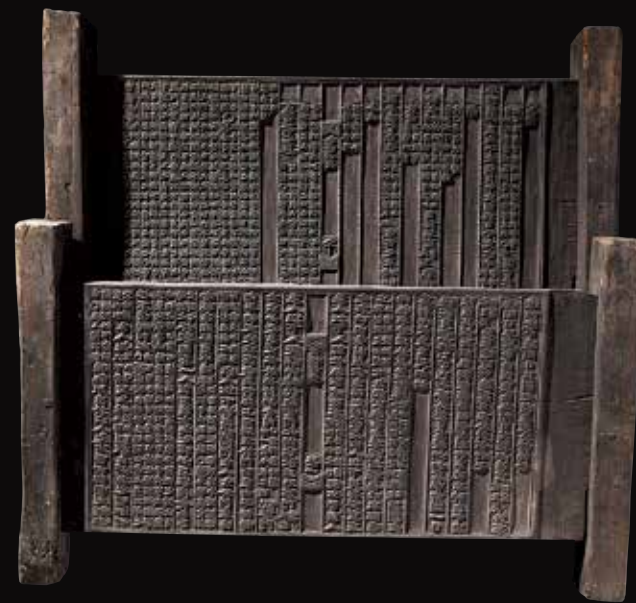
돈암서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마련한 절목으로 제향과 강학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폐단을 막고자 하며 이 절목을 서원과 관청에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독재유고와 신독재전서
慎獨齋遺稿, 慎獨齋全**

1710 (숙종 36), 1924
54.0×29.5(7 책), 51.0×27.5 (9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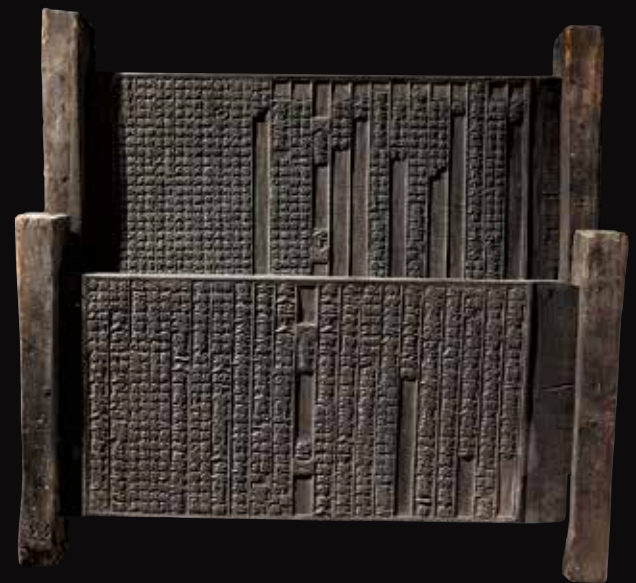
신독재慎獨齋 김집金集, 1574~1656의 문집은 돈암서원에서 2차례 간행되었다. 초간은 1710년숙종 36에 신독재유고慎獨齋遺稿 15권 7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고, 신독재전서慎獨齋全書는 1924년 20권 9책으로 간행되었다.



**상례비요
喪禮備要**

1648 (인조 26)
51.0×34.0 (책판 2책)

상례비요喪禮備要是 신의경申義慶, 1557-1648이 저술한 1권 1책을 1620년에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이 증보하고 속례를 첨부하고, 1648년인 조 26 아들 김집金集, 1574-1656이 다시 교정하여 2책으로 간행하였다.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로 특히 서인-노론계의 예학적 정통을 잇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저술이다.



**가례집람
家禮輯覽**

1685 (숙종 11)
60.5×30.5 (책판 6책)

가례집람家禮輯覽은 10권 6책으로 가례 본문을 중심으로 예서와 여러 학자의 예설을 주석으로 삼아서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이 편찬한 것으로 1685년에 간행되었다. 권1은 통례通禮, 권2는 관례冠禮, 권3은 혼례婚禮, 권4~9는 상례喪禮, 권10은 제례祭禮로 구성되어 있다.



신독재유고와 신독재전서
愼獨齋遺稿, 愼獨齋全書

1710 (숙종 36), 1924
54.0×29.5(7 책), 51.0×27.5 (9책)

신독재 愼獨齋 김집金集, 1574-1656의 문집은 돈암서원에서 2차례 간행되었다. 초간은 1710년숙종 36에 신독재유고 愼獨齋遺稿 15권 7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고, 신독재전서 愼獨齋全書는 1924년 20권 9책으로 간행되었다.



사계유고·사계연보·사계전서
沙溪遺稿·沙溪年譜·沙溪全書

1792 (정조 16), 1922
사계유고 50.0×31.5, 사계연보 50.5×23.0 (6책),
사계전서 50.0×28.0 (24책)

김장생 金長生, 1548-1631의 문집은 모두 4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는데 이중 3, 4차 간행이 돈암서원에서 이루어졌다. 1688년숙종14 경에 호남에서 2차 간행된지 약 100여년이 지난 1792년정조16 에 3간본이 돈암서원에서 간행되었으며, 이 때 사계선생연보도 함께 만들어졌다. 4간본 사계전서 沙溪全書는 1922년 돈암서원에서 후손들이 51권 24책의 목판본으로 간행 하였다. 이 4차본에는 기존의 유고 13권과 경서번의, 근사록석의, 전례문답, 가례집람, 상례비요, 의례문해 등의 저작과 유고에서 누락되었던 시문을 수록하고 부록에 연보를 합하였다.

3번 3두의 진설

대부분의 서원이 4번 4두인데 반해, 돈암서원에서는 3번 3두로 진설한다. 3번에는 녹포와 능인 대신에 육포와 은행을 담고, 황율로 밤을 담는다. 3두에는 녹해 대신에 조기를 담고, 청저로 무, 구저로 부추를 담는다.



산뢰山罍

산뢰는 산과 우레 문양을 새긴 술 항아리로, 종헌 술인 청주淸酒를 담는다. 요즘에는 삼헌의 구분 없이 대부분 산뢰山罍를 쓰거나, 주향위主享位와 종향위從享位 준을 구별하여 쓰기도 한다.



제복祭服

돈암서원에서는 헌관이 향교 석전에 준하여 금관金冠梁冠에 제복을 입고 향사를 지낸다. 서원의 제복은 도포에 유건을 쓰는 유복으로 전승되어 왔으나, 근래에 향교 석전에 준하여 제복으로 바꾸었다.



철변두撒籩豆

철변두는 진설된 제물을 물린다는 의미로, 돈암서원에서는 주향위 및 3배향위 앞의 변과 두를 모두 조금 옮긴 후에 헌관 이하 참사자 모두 재배를 한다.



향사 전 사당 앞에서 축문에 초헌관의 이름을 써넣기

돈암서원에서는 향사를 시작하기 전에 고종 때 왕실에서 하사한 내사연內賜顯에 먹을 갈아 축문에 초헌관의 이름을 써 넣는다. 이 벼루는 옥등잔과 같이 서원이 특별히 보물로 간직해 오는 것으로 제향 때에만 사용한다.



향사 봉행 전 옥등잔 불 밝히기

돈암서원에서는 사당의 신위 앞에서 고종 때 왕실에서 하사한 옥등잔에 불을 밝히고 향사를 봉행한다. 이 등잔은 왕실에서 하사한 벼루와 함께 서원에서 보물로 여기는 것이다. 근래 향사에는 등잔에 불을 켜지 않은 채 상징적으로 신위 앞에 놓는다.



서문으로 나오는 헌관

돈암서원에서는 헌관 및 집사는 모두 동쪽 계단으로 오르내리지만, 사당의 출입은 동쪽 문으로 들어갔다가 서쪽 문으로 나온다. 다만 대축이 축문과 폐백을 가지고 나올 때에만 서쪽 계단으로 내려온다.



전사청에서 제기 닦기

제기를 보관하는 제기고에서 향사에 쓸 제기를 모두 꺼내어 놓고 전사청에서 깨끗하게 닦는다. 변과 두를 제외한 제기들이 대부분 놋쇠로 만든 제기이기 때문에 기와장 등을 부수어 닦았다. 예전에는 남자들이 제기를 닦았으나, 요즘에는 여자들이 주로 닦는다.



전사청에서 제물 옮기기

돈암서원에서는 전사청에서 깨끗하게 닦은 제기를 확인하고, 가자架子에 실어 사당으로 옮긴다. 이 때 제기와 제물은 신위에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중문을 거쳐 사당에 들어가고, 사당 안에서 진설된다.



[부 록]

9개 서원별 기록문서 목록

1. 영주 소수서원(紹修書院)
2. 함양 남계서원(濫溪書院)
3.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4. 안동 도산서원(陶山書院)
5. 장성 필암서원(筆巖書院)
6. 달성 도동서원(道東書院)
7. 안동 병산서원(屏山書院)
8. 정읍 무성서원(武城書院)
9. 논산 돈암서원(遯巖書院)

1. 영주 소수서원

● 현판·기문

文成公廟 朱之蕃

1605년 164×52cm 사우 편액

白雲洞 周世鵬

1610년 108×47cm 명륜당(강학당) 편액

白雲洞次朱文公白鹿洞賦 周世鵬

1543년 120×43cm

白鹿洞賦 周世鵬

1593년 120×43cm

白雲洞紹修書院記 申光漢

1550년 253×58cm

白雲洞書院規 周世鵬

1543년 146×46cm

白雲洞書院令 周世鵬

1543년 60×32cm

文成公享祀執事粉定記 周世鵬

1543년 187×43cm

白雲洞安文成公祠堂記 成世昌

1545년 104×60cm

白雲書院榜 周世鵬

1545년 45.5×146cm

嘉靖二十五年立十日月日立案 周世鵬

1546년 61×36cm

乾隆十五年庚午立案 申宗夏

1750년 36.8×61.8cm

夙興夜寐箴 李家淳

1827년 120×44cm

心箴과 敬齋箴 李家淳

1827년 114×43cm

四勿箴 李家淳

1827년 125×40cm

紹修廟宇重修記 周龍鎬

1874년 98×48cm

鳶飛魚躍 朱熹

98×29cm

順興都護府 傳 恭愍王

160×35cm

學求聖賢一 安珦

고려 말 108×28cm 주련

學求聖賢二 安珦

108×28cm 판각 주련

學求聖賢三 安珦

106×29cm 판각 주련

鳶飛魚躍一 朱熹

36×122cm 판각 주련

至樂齋

조선후기 95×41cm

至樂齋 重修 上樑文 姜忱

18세기 98×37cm 상량문

至樂齋 重修記板 姜忱

1799년 98×37cm 상량문

(詩文) 尹卓然

1592년 72×33cm 시문

(詩文) 柳雲龍

1593년 52×32cm 시문

(詩文) 趙士秀

1550년 62×33cm 시문

(詩文) 李 竣

1614년 62×30cm 시문

(詩文) 朴承健

17세기 62×30cm 시문

(詩文) 姜 忱

1799년 56×27cm

學求齋

72×37cm 편액

日新齋

96×53cm 편액

直方齋 李滉

120×46cm 편액 1720년 개각

敬止堂 李滉

조선중기 132×52cm 편액

景濂亭 周世鵬

1545년 104×48cm

景濂亭 黃耆老

16세기 118×51cm 편액

(詩文) 周世鵬

1543년 49×30cm 시문

(詩文) 黃俊良

1546년 43×26cm 시문

(詩文) 李 滉, 盧慶麟

1547년 53×28cm

(詩文) 安 鉉, 黃孝恭, 安公信

1547년 60×30cm

(詩文) 李 滉, 李中斗

1549년 56×38cm 이중두가 게첩

(詩文) 黃俊良

1551년 55×36cm

(詩文) 崔 頤

1560년 43×27cm

(詩文) 黃應奎

1590년 44×30cm

(詩文) 成以敏, 趙 昱

1610년 59×27cm

(詩文) 李 滉

1610년 43×25cm 1610년 추각

(詩文) 黃 暹

1610년 45×30cm

(詩文) 黃 是

1619년 34×23cm

(詩文) 洪宇定

1636년 52×32cm

(詩文) 金應祖, 吳 健

1658년 59×28cm

(詩文) 柳世鳴

17세기 33×27cm

(詩文) 姜 忱

1799년 58×37cm

(詩文) 金鎮雨

조선중기 36×27cm

(詩文) 鄭宗魯

조선후기 59×40cm

(詩文) 鄭 澣

19세기 37×28cm

鳳棲樓 重營記 安軸

고려말 60×119cm

完文順興 慶尙監司

112×36cm

啓下關文

1726년 152×45cm

文聖王影幀室

조선후기 136×39cm

典祀廳記文

210×33cm

紹修書院童蒙齋重建記 金曾鉉

1854년 86×41cm

● 고문서

觀察使關文

1546년 95.8×76.9cm 1장

紹修書院謄錄

1547년 1책

紹修書院入院錄

1543~1846 36×25.5cm 4책

紹修書院院錄謄本

丙戌 35×31.5cm 1책(9장)

院任題名錄

1542~1718년 27×34cm 1책(16장)

紹修書院任事錄

1542~1914년 25.4×39.6cm 4책

紹修書院執事錄

27×37.5cm 1책

尋院錄

1721~1918년 24.6×35.2cm 16책

紹修書院立議

甲申 23×33.8cm 1책(12장)

紹修書院 傳掌記

丁丑~辛丑 21×32.0cm 4책

紹修書院冊錄目錄

1653~1917년 29.7×20.6cm 6책

紹修書院田畝案

1762년 33×21.9cm 1책

紹修書院畚案

1766년 27×52.0cm 1책(25장)

紹修書院田畝量案

1911년 30.3×27.6cm 1책

紹修書院三所田畝謄錄

紹修書院奴婢案

1737~1783년 32.7×22cm 3책

紹修書院秋收記

庚子~辛丑 30×19.8cm 1책

詩用面分錄

癸酉~乙丑 27×33cm 8책

紹修書院詩存錄

27.5×37.8cm 1책(34장)

紹修書院雜錄

1626~1900년 22.5×30.5cm 8책

居齋錄

1780~1793년 21.5×32cm 1책(70장)

居齋雜錄

1761~1780년 22.3×33cm 2책

通讀雜錄

辛酉 21.5×32.7cm 1책(49장)

紹修書院朔望講都會

27.2×32.1cm 1책(36장)

謹次紹修書院講會韻

25.2×385cm 1축 낱장

仰高臺楔帖

29.9×27.2cm 1책(78장)

雲院雜錄

20.4×31.2cm 3책

鄉飲酒禮詩律訓約

壬子 30.3×31.8cm 1책(9장)

都圈點秩

乙未 100.2×29.4cm 1장

紹修書院廟宇重修記

1813년 1책

紹修書院聖幀改摹日記

1815년 23×33.5cm 1책(53장)

紹修書院影幀處變詩事蹟

1911년 30.3×24.0cm 1책(9장)

● 책판

竹溪誌 周世鵬

17C중엽 55.6×22.5cm 229점

追遠錄 順興安氏

59.4×21cm 661점

家禮諺解 申湜

17C초 4점

六先生遺稿 朴崇古

1658년 8점

2. 함양 남계서원

● 현판·기문

濫溪

1566년 120×60cm 사액현판

書院

1566년 123×75.5cm 사액현판

月誠堂 姜翼

1564년 172×85cm 강당 편액

居敬齋 曹植

88×36cm 강당 동쪽 협실

集義齋 曹植

91.5×40cm 강당 서쪽 협실

濫溪書院記 姜翼

1561년 160×40cm

院規

癸丑 154.5×30cm 重刊

養正齋 曹植

87×38.5cm 동재 편액

咏梅軒 曹植

87.5×24.5cm 동재 마루

輔仁齋 曹植

86×36.5cm 서재 편액

愛蓮軒 曹植

88×27.5cm 서재 마루

遵道門 曹植

121.5×49.5cm 외삼문

風詠樓 鄭煥弼

173.5×81.5cm 문루

風詠樓記 鄭煥弼

1849년 154×39.5cm

| | |
|---------------|----------------------------|
| 風詠樓重建記 奇正鎭 | 1849년 142.5×38.5cm |
| 風詠樓重建記 閔丙承 | 1940년 117×39.5cm |
| ● 고문서 | |
| 哀寶錄(附現存書冊于上篇) | 1552~1913년 1책(55장) |
| 乙卯年 書院哀寶錄 | 1555~1559년 30×26cm 1책 |
| 經任案 | 1552~1687년 22×30cm 1책(25장) |
| 經任案(上) | 1552~1705년 30×34cm 1책(69장) |
| 經任案(下)(院錄) | 1651~1671년 25×35cm 1책 |
| 經任案 | 1777~1795년 22×30cm 1책(14장) |
| 經任案 | 1795~1852년 26×32cm 1책(39장) |
| 經任案(下) | 1779~1886년 20×35cm 1책(22장) |
| 經任案 | 1886~1917년 1책 |
| 上樑時執事錄 | 1849년 42×56cm 1매 |
| 叅祭錄(丙午 二月) | 1846~1886년 21×33cm 1책 |
| 叅祭錄(戊子 八月) | 1888~1910년 1책 |

| | |
|--------------|------------------------|
| 濫溪書院春秋享禮儀節 | 14×40cm 1책 |
| 濫溪書院田畚量校第坐膳書 | 1733~1737년 30×49cm 1책 |
| 濫溪書院田畚量案 | 1740년 30×49cm 1책 |
| 濫溪書院完文 | 1843년 29x32cm 1책(9장) |
| 濫溪書院門樓上樑文 | 1849년 43×90cm 1매 |
| 景一齋記 | 1881년 52×26cm 1매 |
| 書院建置圖 | 46×48cm 1매 |
| ● 책판 | |
| 一蠹文集 鄭汝昌 | 1635, 1743, 1919년 369매 |
| | 경남 도유형문화재 제166호 |
| 開巖文集 姜翼 | 1686년 186매 |
| | 경남 도유형문화재 제167호 |

● **금석문**

| | |
|-------------|-------------------|
| 濫溪書院廟庭碑 金鍾厚 | 1779년 93×198×29cm |
|-------------|-------------------|

3. 경주 옥산서원

● **현판·기문**

| | |
|------------|--------------------------|
| 體仁廟 | 133×92cm 사우 편액 |
| 玉山書院 金正喜 | 1839년 180×79cm 사액 편액 |
| 玉山書院 李山海 | 1573년 240×83cm 사액 편액(舊額) |
| 求仁堂 盧守愼·韓濩 | 182×84cm 강당(편액) |
| 兩進齋 盧守愼·韓濩 | 110×63cm |
| 偕立齋 盧守愼·韓濩 | 111×63cm |
| 白鹿洞規 | 150.5×62cm |
| 傳教膳書 | 158×62cm |
| 御製祭文 正祖 | 1792년 220×95cm |
| 敏求齋 許曄·裨大維 | 82×35cm 동재(南齋) |
| 闇修齋 許曄·裨大維 | 84×34cm 서재(北齋) |
| 玉山書院記 許曄 | 1573년 130×44cm |
| 國忌 | 200×49cm |
| | |
| 無邊樓 盧守愼·韓濩 | 1572년 114×62cm 문루 편액 |

| | |
|------------|--------------------|
| 亦樂門 盧守愼·韓濩 | 1572년 129×49cm 외삼문 |
| 經閣 | 94×42cm |
| 御書閣 | 102×61cm 유물전시관 |
| 書院書冊不出院門 | 1840(?)년 138×86cm |
| 神道碑閣 | 100×63cm |
| 文集板閣 | 188×51cm |
| 淸芬閣 | 102×61cm 유물전시관 |
| 洗心門 | 55×17.5cm |

● **고문서**

| | |
|---------|--------------------------------|
| 首副任案(天) | 1573~1632년, 甲申 32.5×22.2cm 5冊 |
| 執事記 | 1585~1910년 33.3×22.3cm 15冊 |
| 呈書膳錄 | 1588~1683년 28.0×22.2cm 1冊(23장) |
| 尋院錄 | 1573~1910 37.4×25.5cm 130冊 |
| 本鄉尋院錄 | 戊午~己卯 33.0×20.0cm 35책 |
| 立學記 | 1649년 36.0×22.8cm 1冊(10장) |

| | |
|-----------|-------------------------------|
| 所志草(成冊) | 1552~1602년 39.5×22.8cm 1冊(9장) |
| 玉山書院考往錄 | 1816~1873년 37.0×25.4cm 1冊 |
| 傳教謄書 | 丁卯 38.0×30.4cm 1冊(6장) |
| 玉山書院院生案 | 己亥~己酉 25.9×20.9cm 3冊 |
| 玉山書院儒生案 | 戊寅~丙寅 22.5×23.0cm 40冊 |
| 院奴婢案 | 1629~1758년 24.2×20.0cm 3冊 |
| 奴婢推刷案 | 1747년 28.8×20.0cm 1冊(14장) |
| 所屬案 | 壬申~1751년 26.2×20.5cm 8冊 |
| 院屬案 | 壬辰~1800년 21.4×20.6cm 3冊 |
| 他邑所屬案 | 1755년 25.0×20.0cm 1冊(7장) |
| 玉山書院所屬案 | 丙寅~庚子 20.7×21.4cm 6冊 |
| 玉山書院良下典案 | 己卯~癸酉 23.0×19.3cm 29冊 |
| 玉山書院良下案 | 壬辰,庚寅, 戊辰 21.7×20.8cm 3冊 |
| 玉山書院良丁案 | 乙卯~壬申 23.0×20.5cm 4冊 |
| 玉山書院都色良丁案 | 癸巳~戊午 23.5×21.5cm 12冊 |
| 御書閣守直軍案 | 癸未 22.4×22.0cm 22冊 |

| | |
|----------|--------------------------------|
| 玉山書院守直軍案 | 1857년 21.5×19.6cm 6冊 |
| 書冊傳與都錄 | 1543~壬申 41.0×34.0cm 4冊 |
| 書冊記 | 1752~1773년 35.0×23.0cm 4冊 |
| 到記 | 戊申 21.5×29.0cm 36冊 |
| 立議 | 1618~1634년 80.0×39.0cm 3枚 |
| 完議 | 乙亥 37.0×24.0cm 1冊(12장) |
| 完議 | 丁亥~丁丑 47.6×57.4cm 10枚 날장 |
| 完文 | 甲寅~1902 53.4×63.5cm 8枚 날장 |
| 薦案 | 1734~1827년 23.3×128cm 5枚 날장 |
| 講案 | 1802~1817년 41.6×266.0cm 2枚 날장 |
| 節目 | 辛亥~庚子 21.5×74.3cm 8枚 날장 |
| 執事分定記 | 甲寅~丁巳 28.7×331.8cm 15枚 날장 |
| 笏記 | 32.0×50.0cm 2枚 날장 |
| 賜致祭時日記 | 1792년 35.5×22.8cm 1冊(13장) |
| 賜祭文 | 1781~1839년 54×68.6cm 4枚 |
| 書院田畚秩 | 丁巳~甲午 21.0×30.5cm 1冊(13장) |

| | |
|----------|--------------------------------|
| 玉山書院田畚査□ | 1711년 36.0×21.0cm 1冊(13장) |
| 玉山書院衿記 | 戊申, 丁未 32.0×30.8cm 2冊 |
| 秋收記 | 己巳~甲戌 24.0×43.0cm 8冊 |
| 傳與記 | 戊午~戊辰 22.8×20.2cm 40冊 |
| 刊所傳與記 | 壬申~丙子 30.3×21.0cm 5冊 |
| 堂中傳與記 | 癸巳 25.1×21.5cm 1冊(4장) |
| 書冊傳與記 | 丙午 21.7×30.8cm 1冊(15장) |
| 秋穀收納記 | 甲寅~甲辰 21.5×27.0cm 10冊 |
| 夏穀收納記 | 甲寅~己酉 27.0×22.5cm 11冊 |
| 上書 | 1740~1884년 129.2×68cm 10枚 날장 |
| 所志 | 1715~壬午 67.0×39.2cm 24枚 날장 |
| 書目 | 甲辰~辛酉 36.3×35.2cm 5枚 날장 |
| 稟目 | 壬寅~癸卯 65.7×53.3cm 5枚 날장 |
| 單子 | 辛未~1884년 56.2×36.0cm 6枚 날장 |
| 通文 | 1865년~신해 100.5×89.2cm 187枚 날장 |

| | |
|-------------|---------------------------|
| 關文 | 丙子 40.5×87.1cm 1枚 날장 |
| 牒呈 | 庚子~己亥 53.8×51cm 3枚 날장 |
| 帖 | 乙巳~己未 27.1×99.3cm 3枚 날장 |
| 奉告玉山書院諸生文 | 丙申 41.0×113.5cm 1枚 날장 |
| 祭需單子 | 乙巳~辛丑 45.0×52.1cm 4枚 날장 |
| 賭租豫賣秩 | 甲寅~丙辰 21.0×88.0cm 4枚 날장 |
| 奴子爬定秩 | 丁卯~庚午 48.5×55.6cm 10枚 날장 |
| 山堂居接謄錄 | 辛卯, 甲午 33.1×22.7cm 1冊(6장) |
| 重修所別辦完議 | 丁巳 35.2×22.6cm 2冊 |
| 玉山書院道會時到記 | 癸卯 22.0×21.0cm 2冊 |
| 御製刊時到記 | 甲寅 24.0×22.6cm 1冊(6장) |
| 刊役時到記 | 丙午 22.8×22.7cm 1冊 |
| 禁養參同錄 | 戊寅 22.5×22.4cm 1冊(10장) |
| 道會題名錄 | 1717년 26.3×23.8cm 1冊(20장) |
| 文集刊役記事 | 1744년 31.0×20.2cm 1冊(8장) |
| 講堂重建時鄉中出物置簿 | 1839년 35.3×23.4cm 1冊(27장) |

| | |
|-------------|--------------------------------|
| 重修錢冊 | 1840년 23.3×21.2cm 1冊(7장) |
| 求仁堂重建日記 | 1840년 36.0×26.6cm 1冊(61장) |
| 晦齋先生別集刊所扶助記 | 甲戌 20.4×30.0cm 1冊(11장) |
| 求仁堂重修扶助記 | 乙巳~丙午 22.0×31.7cm 1冊(37장) |
| 體仁廟重修扶助冊(鄉) | 1905년 18.0×31.0cm 1冊(4장) |
| 體仁廟重修扶助記(道) | 1905년 23.5×31.0cm 1冊(4장) |
| 鄉中錢入記 | 1840년 20.2×19.7cm 1冊(11장) |
| 奴廳田畝衿記 | 己卯 22.7×21.5cm 1冊(17장) |
| 下廳息券 | 1819~1823년 22.6×21.4cm 1冊(29장) |
| 會計錄 | 庚申, 壬申 27.0×18.5cm 2冊 |
| 都錄 庚寅 | 21.4×28.3cm 78冊 |
| 刊所都錄 癸丑 | 21.7×20.7cm 39冊 |
| 穀物收入都錄 | 丁酉~壬寅 21.0×28.4cm 2冊 |
| 獨樂堂書冊都錄 | 甲寅 32.5×23.7cm 1冊(26장) |
| 別所都錄 | 1749~1797 24.5×24.4cm 2冊 |
| 食床都錄 | 己酉~癸丑 22.3×28.8cm 9冊 |

| | |
|------------|--|
| 重建時下記都錄 | 庚子~己亥 35.0×22.5cm 1冊(64장) |
| 遺物都錄 | 乙未~癸酉 21.0×19.8cm 22冊 |
| 重修都錄 | 丁巳 正月 23.3×22.4cm 1冊(14장) |
| 會計都錄 | 癸丑, 甲寅, 癸亥 28.5×20.0cm 9冊 |
| 庫子下記 | 丙戌~戊子 22.1×30.0cm 3冊 |
| 無邊樓重修下記 | 癸卯 19.0×21.0cm 2冊 |
| 各樣捧上用下記 | 壬午 30.0×21.5cm 1冊(13장) |
| 御書失變時下記 | 丙辰 20.3×30.8cm 1冊(10장) 榜目 壬午 21.0×23.4cm 1冊(4장) |
| 享會錄(天) | 庚戌~丙子, 丙辰~癸酉 21.8×28.7cm 5冊 |
| 會友錄 | 己亥, 庚子, 庚午 34.0×23.0cm 1冊(25장) |
| ● 책판 | |
| 求仁錄 李彦迪 | 63.0×22.4cm 79매 |
| 近思錄 | 61.3×21.0cm 130매 |
| 琴坡先生文集 李鼎秉 | 1936년 50.0×21.6cm 127매 李錫永 編 |

| | |
|---------------|--------------------|
| 大學章句補遺 李彦迪 | 54.3×20.8cm 32매 |
| 奉先雜儀 李彦迪 | 58.5×22.5cm 13매 |
| 林居十五詠 李彦迪 | 37.5×91.5cm 12매 |
| 立春祝文 | 59.0×33.0cm 1매 |
| 中庸九經衍義 李彦迪 | 55.5×23.7cm 208매 |
| 中庸九經衍義別集 李彦迪 | 56.6×24.5cm 142매 |
| 千字文 | 54.8×16.3cm 1매 |
| 太極問辯 李彦迪 | 58.5×22.2cm 38매 |
| 晦齋先生文集(1) 李彦迪 | 59.4×23.3cm 163매 |
| 晦齋先生文集(2) 李彦迪 | 55.3×20.9cm 72매 |
| 晦齋先生別集 李彦迪 | 52.2×22.2cm 79매 |
| 晦齋先生元朝五箴 李彦迪 | 63.8×190.0cm 13매 |
| 晦齋先生遺墨 李彦迪 | 65.8×29.7cm 12매 |
| ● 금석문 | |
| 文元公晦齋李彦迪神道碑 | 奇大升 찬, 李山海 서 1577년 |

4. 안동 도산서원

● 현판·기문

| | |
|---------|-------------------------|
| 尙德祠 | 16세기 169.5×70cm 사우 현판 |
| 陶山書堂 李滉 | 16세기 27.8×58.5cm 현판 |
| 陶山書院 韓濩 | 1575 206.3×57.5cm |
| 巖栖軒 李滉 | 16세기 54.5×29cm |
| 玩樂齋 李滉 | 16세기 62×30cm |
| 典教堂 | 16세기 208.8×76.1cm 강당 |
| 閑存齋 | 16세기 147.1×57.1cm 서쪽 협실 |
| 博約齋 | 16세기 141.5×53.5cm 동재 |
| 弘毅齋 | 16세기 148×58cm 서재 |
| 隴雲精舍 李滉 | 16세기 28×58cm 기숙재 |
| 隴雲精舍 | 31×60.2cm |
| 觀瀾軒 李滉 | 16세기 56.7×25.3cm |
| 進道門 | 209×76cm 외삼문 |
| 光明室 李滉 | 108.3×48.2cm 장서고(동) |
| 光明室 李滉 | 106.2×46.5cm 장서고(서) |

| | |
|-------------------|-----------------------|
| 亦樂書齋 鄭科 | 16세기 120×42cm 서재 편액 |
| 時習齋 李滉 | 16세기 57.3×24.7cm 농운정사 |
| 啓賢祠 | 98×46.5cm |
| 清溪書院 | 137×50cm 1점 |
| 清涼精舍 | 111.6×43.5cm 1점 |
| 鄉賢祠 | 112×41cm 1점 |
| 夙興夜寐箴 陳柏 | 61.5×37cm |
| 四勿箴 程頤 | 81×37cm |
| 白鹿洞規, 朱熹 | 98×38cm |
| 國忌 1 | 138×42cm |
| 國忌 2 | 55.5×35.5cm |
| 院規 李滉 | 145×55.5cm |
| 肅廟丙辰十月初十日 | 18세기 75×34.5cm |
| 壬子三月初三日 正祖·李晚秀 | 1792년 82×56cm |
| 陶山書院遣閣臣致祭文 正祖·李晚秀 | 1792년 73×54cm |
| 忌日 | 35×63cm |

| | |
|-------------------|-----------------------|
| 享祀時獻官執事 | 131.2×40.5cm |
| 眞城李東俊公功績記 劉成鍾·文在球 | 2012년 107×37cm 광명실 |
| 李主簿公事蹟 李彙寧 | 1848년 96.5×35.5cm 광명실 |
| 陶山十二曲 | 詩板 64.5×41cm 3점 |
| 陶山雜詠并記 | 詩板 56×19.8cm 8점 |
| 梅花 | 詩板 68.7×39.5cm 13점 |
| 無自欺慎其獨 書板 | 94.5×50cm 1점 |
| 屏名 書板 | 49×89cm 9점 |
| 思無邪毋不敬 書板 | 94.5×50cm 1점 |
| 四物箴 書板 | 86×43cm 4점 |
| 四時吟 詩板 | 25×53.5cm 4점 |
| 惺齋八詠 詩板 | 30×65.5cm 4점 |
| 宋朱熹 書板 | 60.1×25.5cm 1점 |
| 李廷科 謹題 詩板 | 64×37.8cm 1점 |
| 積善 書板 | 78×124cm 1점 |
| 篆書體 書板 | 33×10.4cm 1점 |

| | |
|--------------|-------------------------|
| 懲忿窒慾 書板 | 44×84cm 1점 |
| 退溪 詩板(1) | 106.5×29.5cm 1점 |
| 退溪 詩板(2) | 38×90cm 4점 |
| 晦齋 詩板 | 38×90cm 5점 |
| ● 고문서 | |
| 思悼世子追尊萬人疏 | 1885 9,650×111cm 1매 |
| 陶山書院書目 | 丁酉~丙戌 36×58cm 5매 |
| 帖 | 丙子~癸巳 94.5×29cm 6매 |
| 牒呈 | 癸酉~戊子 19×26cm 20매 |
| 標記 | 1870 36×26cm 3매 |
| 土地賣買文記 | 1576~1873 67.5×45cm 23매 |
| 奴碑賣買文記 | 1626~1893 46×34cm 13매 |
| 賜祭文 | 1614~1839 80×55.5cm 8매 |
| 完文 | 戊辰~丙寅 53×45cm 5매 |
| 完議 | 1640~乙卯 50×38.5cm 5매 |

| | |
|----------|--------------------------|
| 奴碑許讀明文 | 1705 52×57.5cm 1매 |
| 立案 | 1725 111×29cm 2매 |
| 祭需單子 | 癸卯 17.5×25cm 10매 |
| 牌旨 | 壬戌~戊辰 36×28cm 13매 |
| 告目 | 辛丑~甲辰 52.5×34.5cm 9매 |
| 通文回文 | 辛丑~乙丑 58×96.3cm 356매 |
| 奴婢置簿 | 壬辰~癸卯 67×11cm 4매 |
| 置簿記 | 甲戌, 乙巳, 甲寅 18×19.5cm 30매 |
| 秋收記 | 8.5×19.5cm 3매 |
| 享禮時執事錄 | 丙戌~壬申 85×24cm 10매 |
| 上有司望記 | 57×96cm 230매 |
| 齋有事望記 | 己巳 52×87cm 2매 |
| 享禮時取士都薦紙 | 壬申~辛未 1283×48cm 5매 |
| 告由文 | 壬戌~丁酉 21.5×34cm 51매 |
| 節目 | 癸巳 52.5×13cm 5매 |
| 地稅分排記 | 己巳 225.5×16cm 27매 |

| | |
|------------------|--------------------|
| 試土壇碑閣上樑文 | 地稅未捧記 |
| 甲申 51×120.5cm 1매 | 庚寅, 辛未 28×20cm 2매 |
| 己未正謁時到記 | 扶助記 |
| 己未 23.5×17cm 1매 | 甲辰 26.3×23.5cm 1매 |
| 戊辰秋收時未捧記 | 關文 |
| 戊辰 61.5×14cm 1매 | 己卯 48×54cm 1매 |
| 辛丑貸貰未納抄 | 報營草 |
| 辛丑 74×20cm 1매 | 94×26.6cm 1매 |
| 春秋收未捧記 | 陶山書院享禮時獻官 |
| 106×23.5cm 7매 | 辛亥 52×82cm 1매 |
| 米用記 | 癸丑賜祭時笏記 |
| 15.5×14.5cm 1매 | 1733 78×36cm 1매 |
| 書冊目錄 | 陶山書院致祭儀 |
| 56.5×24.5cm 2매 | 67×26.5cm 1매 |
| 丙午秋收堊貰 | 享禮笏記 |
| 丙午 102×21cm 1매 | 127.5×37cm 1매 |
| 用下記 | 鄉飲酒禮 |
| 17.5×11.5cm 1매 | 313.5×31cm 1매 |
| 陶山書院田畚移作件記 | 丙子賜祭時禮曹儀節 |
| 97×30cm 1매 | 1816 65×40cm 1매 |
| 良坪地稅未捧 | 文成公廟祭笏記 |
| 24×14.5cm 1매 | 9.5×32cm 1매 |
| 及門諸賢 | 丹陽禹先生行祀笏記 |
| 169×19cm 1매 | 11×32.5cm 1매 |
| 試土壇重建物財道會時分定 | 乙未還安後行祀時儀節 |
| 58×37.5cm 1매 | 乙未 48.5×49cm 1매 |
| 良坪地稅 | 藥山吳先生集刊役時爬錄 |
| 20×12cm 1매 | 癸亥 38.5×29.5cm 1매 |
| 刊行所扶助記 | 退溪先生年譜重刊時爬錄 |
| 12×19cm 1매 | 甲午 235.5×32.5cm 1매 |
| 尙德祠重修擇日 | 尙德祠修理時執事 |
| 41×27cm 1매 | 辛丑 453×30.5cm 1매 |

| | |
|----------------------------|--------------------|
| 光明室修理時爬錄 | 道會時本院爬定執事錄 |
| 己卯 271.5×47.5cm 1매 | 辛未 308.7×46.9cm 1매 |
| 取土面薦有事錄 | 啓賢祠營建時爬錄 |
| 辛未 108×30cm 1매 | 癸未 315.2×48.7cm 1매 |
| 疏任錄 | 隴雲精舍重修時爬錄 |
| 110×12.5cm 1매 | 210×43cm 1매 |
| 陶山書院廚舍重修時爬錄 | 尙德祠還安告由時爬錄 |
| 140.9×47.5cm 1매 | 庚子 152.6×49.cm6 1매 |
| 龍雲精舍重修時爬錄 | 啓賢祠營建都監名案 |
| 甲辰 389×43.1cm 1매 | 34.4×43.3cm 1매 |
| 藏板閣重修時爬錄 | 製通名案 |
| 壬午 262.4×47.9cm 1매 | 53.6×41.9cm 1매 |
| 退溪先生世系圖并附錄重刊時爬錄 | 亦樂書齋重修時爬錄 |
| 庚辰 160.3×32.2cm 1매 | 甲午 56.7×32.6cm 1매 |
| 尙德祠重修時爬錄 | 當番儒生名案 |
| 221.8×49.5cm 1매 | 89×48.7cm 1매 |
| 芝山李公實紀刊役時爬錄 | 東西齋重修時爬錄 |
| 196×48.7cm 1매 | 甲戌 176.2×47.6cm 1매 |
| 請陶山書院尙德祠復位版疏爬錄 | 移安時執事錄 |
| 辛丑 232.5×44.9cm 1매 | 己亥 104×48.4cm 1매 |
| 尙德祠還安時執事錄 | 溪南名帖 |
| 癸卯, 庚子, 辛丑 263.4×44.9cm 3매 | 20.6×26.4cm 1매 |
| 尙德祠復位版奉安時執事錄 | 傳掌記 |
| 辛丑 207.5×44.1cm 1매 | 25×35cm 43책 |
| 陶山諸了錄刊役時爬錄 | 獻官執事案 |
| 癸丑 362.3×36.2cm 1매 | 21×33.5cm 12책 |
| 板校名案 | 藏書傳掌記 |
| 甲辰 343.3×43cm 1매 | 25×28cm 11책 |
| 山雲詩辨破錄刊役時執事錄 | 尋院錄 |
| 甲寅 66.2×25.9cm 1매 | 23×33cm 68책 |
| 義理闡揮疏任分定錄 | 收睹記 |
| 234×25cm 1매 | 戊戌~庚子 28×24cm 3책 |

| |
|--------------------------------|
| 月下記 |
| 辛卯~己亥 乙巳~戊午 28.5×12.5cm 28책 |
| 甲辰參院錄 |
| 甲辰~癸卯 26.5×21cm 7책 |
| 穀收未捧記 |
| 丙戌~丁丑 28×24cm 8책 |
| 田畚春秋收稅記 |
| 辛丑 28×31.5cm 1책 |
| 穀用簿 |
| 辛巳~壬子 27.5×25cm 25책 |
| 穀用收拂簿 |
| 辛亥~壬子 27×22.5cm 2책 |
| 陶山書院別庫文簿 |
| 壬寅, 甲寅 26×23cm 2책 |
| 陶山書院別所文簿 |
| 丙戌, 戊子, 丁亥 27×23cm 3책 |
| 壇所文簿 |
| 庚寅 23×21.5cm 1책 |
| 陶山書院本所文簿 |
| 己巳 30.5×27cm 3책 |
| 院宇保存關係收支簿 |
| 戊申 29×22.5cm 1책 |
| 陶山書院勘簿記 |
| 庚子~癸丑 26.5×20cm 6책 |
| 陶山書院奴婢案 |
| 22.5×34cm 10책 |
| 米用簿 |
| 丙申~丁未 27.5×29.5cm 6책 |
| 藏板閣冊板目錄 |
| 壬午 26.5×24cm 1책 |

| |
|-----------------------|
| 陶山書院田畚案 |
| 28×32cm 7책 |
| 陶山書院書冊目錄 |
| 乙巳, 乙亥 24×37cm 7책 |
| 節目 |
| 戊申, 壬申 16.5×29cm 2책 |
| 陶山書院守護軍案 |
| 壬辰~庚子 17.5×27.5cm 10책 |
| 賜額時日記 |
| 丙辰 20.6×34cm 2책 |
| 賜祭文 |
| 30.5×40.5cm 1책 |
| 廟宇修理時日記 |
| 癸酉, 己亥 28×21cm 2책 |
| 時到記 |
| 己亥 17×18cm 154책 |
| 遊院錄 |
| 辛亥~丙申 24.4×38cm 7책 |
| 陶山書院奴婢案 |
| 庚辰~癸巳 24×33.5cm 11책 |
| 成冊 |
| 己丑 28.5×31.5cm 5책 |
| 通文 |
| 己酉, 戊辰 19.5×31.2cm 2책 |
| 陶山書院修理所秋收記 |
| 庚午 18.5×19.5cm 1책 |
| 祭需所田畚成冊 |
| 17.5×15.5cm 1책 |
| 刊役所下記 |
| 18×19cm 1책 |



| |
|-----------------------------|
| 己未隨補所 |
| 庚午 28.5×18cm 1책 |
| 隨補所記事 |
| 戊午 29×25cm 1책 |
| 田畚春秋收貰記 |
| 丁卯, 乙巳, 己亥 26×29cm 3책 |
| 及門錄營刊時扶助記 |
| 癸丑 28×24cm 1책 |
| 巖棲軒修理時下記 |
| 己巳 27×16.5cm 1책 |
| 修理所文簿 |
| 戊辰, 庚辰~丙午 26.5×22.5cm 6책 |
| 降廳重建時下記 |
| 癸酉 27×16cm 1책 |
| 尙德祠重修時流用記 |
| 己亥 27×25cm 1책 |
| 典教堂重建時流用下記 |
| 28×23.5cm 1책 |
| 典教堂修理日記 |
| 丁酉 27.5×23cm 1책 |
| 隴雲精舍修築文簿 |
| 甲辰 22×29cm 1책 |
| 船造時下記 |
| 己亥 28×19.5cm 1책 |
| 刊役時下記 |
| 丙申 28.5×15.5cm 1책 |
| 重修時月下記 |
| 己亥 28×160cm 1책 |
| 渡船修理時下記 |
| 丁酉 28.5×160cm 1책 |



| |
|-------------------|
| 隴雲精舍修理時月下記 |
| 甲辰 24×13cm 1책 |
| 改船時下記 |
| 丙戌 28.5×21.5cm 1책 |
| 陶山及門錄刊役時下記 |
| 癸丑 24×24cm 1책 |
| 光明室修理時下記 |
| 己卯 28.5×23.5cm 1책 |
| 光明室修理扶助記 |
| 己卯 27.5×22cm 1책 |
| 藏板閣修理下記 |
| 壬午 28×19.5cm 1책 |
| 造船時下記 |
| 乙卯~丙子 23×18cm 2책 |
| 陶山書院乙丑春收納原簿 |
| 乙丑 21×31cm 1책 |
| 教院祭物膳錄 |
| 庚申 29×32cm 1책 |
| 捧入記 |
| 辛巳 28×16.5cm 1책 |
| 庫直捧入記 |
| 丁丑 27.5×17cm 1책 |
| 陶山書院穀數及錢文推捧冊 |
| 庚午 16.5×19cm 1책 |
| 田畚移作成冊 |
| 壬寅 20×29cm 1책 |
| 師門手簡傳掌案 |
| 21×23cm 1책 |
| 食床案 |
| 27.5×15.5cm 1책 |

| | |
|------------|---------------------|
| 陶山書院修理日記 | 己酉 28×22.5cm 1책 |
| 藏板閣修理日記 | 28.5×26cm 1책 |
| 尙德祠修理日記 | 癸卯 23×30cm 1책 |
| 收捧記 | 甲午 27.5×16cm 1책 |
| 隴雲精舍落成時道辨記 | 甲辰 26.5×21cm 1책 |
| 移安時日記 | 己亥 21×34.5cm 1책 |
| 日記草 | 己亥 29×25cm 1책 |
| 節要言行錄修刻時日記 | 丁卯 18×27.5cm 1책 |
| 日記 | 辛未 24×21cm 1책 |
| 天淵臺巖石事變時日記 | 癸巳 28.5×17cm 1책 |
| 典教堂前堦改築時日記 | 29×21.5cm 1책 |
| 築堦時日記 乙亥 | 27.5×24cm 1책 |
| 田畚稅收記 | 22.5×32.5cm 1책 |
| 一應置簿田畚秩 | 1619 26.5×38.5cm 1책 |
| 田畚寄附寶文義塾成冊 | 1910, 己酉 22×33cm 2책 |
| 仰役奴私田量銃記 | 己酉 22×33.5cm 1책 |

| | |
|----------|------------------------|
| 庚子量案 | 庚子 25×42.5cm 1책 |
| 壇所楔案 | 癸酉 19.5×27.5cm 1책 |
| 刊役下記 | 乙卯 25×12cm 1책 |
| 置簿冊 | 26.5×24.5cm 1책 |
| 門人錄草 | 22.7×33.5cm 1책 |
| 禮安別惑錄 | 25×23cm 1책 |
| 都辨所文記 | 辛未 18×25cm 1책 |
| 訓令·完文 等 | 27.5×23cm 1책 |
| 陶山書院完議節目 | 庚午 26.5×31cm 1책 |
| 完文 | 壬寅 22.5×40cm 1책 |
| 未捧記 | 辛未~癸巳, 辛卯 27.5×16cm 2책 |
| 未納記 | 乙巳, 丙午 28×16cm 2책 |
| 癸卯~甲辰未納抄 | 15.5×27.5cm 2책 |
| 院中新規定式 | 庚申 21×31.5cm 1책 |
| 堂會時節目 | 癸巳 28×32.5cm 1책 |
| 癸卯通告錄 | 癸卯 28.5×18cm 1책 |

| | |
|-------------|-----------------------|
| 通文謄草 | 甲子, 辛未, 壬戌 27×23cm 3책 |
| 壬寅通文發送錄 | 壬寅 25×28cm 1책 |
| 擬辨 | 癸卯 21.5×28.5cm 1책 |
| 廟階磚石改築時日記 | 27×24.3cm 1책 |
| 丙戌雲影臺川防時日記 | 丙戌 18×27.5cm 1책 |
| 修理時下記 | 28.5×20.5cm 1책 |
| 戊午~丙戌獻官執事錄 | 戊午~丙戌 21×34.5cm 1책 |
| 陶山書院田畚案 | 20×27cm 1책 |
| 乙亥食堂錄 | 乙亥 22.5×30.4cm 1책 |
| 禮安書院鄉賢祠精舍成冊 | 22.7×31cm 1책 |
| 甲子延額時到 | 甲子 24.5×33.5cm 1책 |
| 用下記 | 28×33cm 1책 |
| 陶山書院廟變時日記 | 1901 25×29cm 1책 |
| 辛丑廟變後儀節 | 1901 26×30.8cm 1책 |
| 辛丑陶山書院復甞時日記 | 1901 24.6×32.5cm 1책 |
| 舊位版埋安時日記 | 27.5×29.5cm 1책 |

| | |
|------------|-------------------|
| 己巳從祀位改題時日記 | 己巳 26×27.7cm 1책 |
| 汾李辨誣事變日記 | 20세기 초 20×30cm 1책 |
| 汾川往復文字 | 20세기 초 28×24cm 1책 |
| 壬戌廟宇重建時日記 | 癸亥 18×29cm 1책 |
| 及門錄營刊時日記 | 20세기 초 23×35cm 1책 |
| 辛亥天淵臺封築時下記 | 辛丑 28.5×24.5cm 1책 |
| 辛丑廟宇修理時日記 | 辛丑 27.5×31.2cm 1책 |
| 乙未廟宇修理時日記 | 乙未 30.5×33.7cm 1책 |
| 己巳巖栖軒修理時日記 | 己巳 26.5×23cm 1책 |
| 乙未重修事實 | 甲戌 20.5×29.5cm 1책 |
| 甲辰重修唱酬錄 | 甲辰 26×25cm 1책 |
| 甲申日記 | 甲申 27×32cm 1책 |
| 陶山書院庶類事變日記 | 19세기 말 27×32cm 1책 |
| 乙酉院事顛末 | 乙酉 27×23.5cm 1책 |
| 光明室書史傳掌記 | 21.5×32cm 1책 |
| 癸巳貞元契帖 | 癸巳 27.5×24.3cm 1책 |

癸未陶山書院完議

癸未 27×31cm 1책

己亥尋院錄

乙亥~丙戌 28.5×24cm 3책

丙申參院錄

丙申~甲午 27.7×23.5cm 3책

陶山書院參拜錄

甲午 29.7×22.5cm 1책

紹修書院入院錄

己未 25.5×36cm 1책

丙戌紹修書院院錄曆本

丙戌 31.5×35cm 1책

書院補上曆錄傳掌

33.5×27cm 1책

創建錄

22.5×36cm 1책

陶山書院春秋收臺帳

丁卯 27.5×47cm 1책

陶山書院奴婢案

20.8×32cm 1책

書院守護軍案

20×32.5cm 1책

陶山書院取士時大谷收單

癸未 22×27.5cm 1책

未捧傳掌記

27.2×28.5cm 1책

陶山重刊所下記

16×21.5cm 1책

辛未春秋賭稅案

辛未 27.2×31cm 1책

※ 이밖에도 簡札, 單子, 易東書院, 孤峰書堂 관련 고문서가 보존됨

● 책 판

退溪先生自省錄

李滉 1585년 19.3×23cm 42판

松齋詩集

李瑀 1584년 16×18.7cm 55판

啓蒙傳疑

李滉 乙卯 17.3×21cm 42판

文純公退陶李先生墓碣銘

奇大升 17.5×20.2cm 2판

眞城李氏族譜

李詠道 1600년 18×22.5cm 10판

退溪先生文集(庚子本)

李滉 1600년 17.5×20cm 753판

古鏡重磨方

李滉 1607년 18.5×21.4cm 26판

恥齋先生遺稿

洪仁祐 1639년 16.3×18cm 70판

月川先生文集

趙穆 1666년 15.8×19.3cm 109판

退溪先生文集(甲辰重刊本)

李滉 1724년 17×21cm 1,143판

退溪先生言行錄(新)

李守淵 1732년 17.2×20cm 100판

宋季元明理學通錄

李滉 1743년 17×21cm 300판

朱子書節要

李滉 1743년 17×20cm 462판

大寶箴書板

70×41.5cm 11판

誣書辨破錄

17.5×18.8cm 1판

溫溪先生逸稿

李滉 18C 후반 15.8×20cm 119판

溪山世稿

李中應 (李安道等)

1824 16.3×18.2cm 56판

後溪集

李頤淳 1840년 17.3×21.3cm 2판

退溪先生年譜(舊)

柳成龍 1843년 17×19.8cm 40판

退溪先生年譜(新)

柳成龍 19C 후반 17×21cm 65판

雲巖逸稿

金緣 1870년 16.3×13cm 6판

蒙齋先生遺稿

李安道 19C 후반 17.5×20.2cm 49판

松齋先生文集續集

李瑀 1900년 16.2×17.5cm 21판

退溪先生續集

李滉 1905년 17×20cm 150판

退溪先生言行錄(舊)

李守淵 1905년 17.8×21.2cm 102판

陶山及門諸賢錄

陶山書院 1914 17.3×20.2cm 102판

嶠南賓興錄

李忠鎬 1922년 14.8×19.7cm 24판

吾家山誌

李晩輿 1924년 16.8×18cm 37판

松齋先生文集別集

李瑀 1937년 16.2×17.5cm 40판

5. 장성 필암서원

● 현판 기문

筆巖書院

1662년 148×54cm 尹鳳九 필, 사액현판

祐東祠

년대 미상 111×47cm

주자서 집자, 사우 편액

敬藏閣

18세기말 88×46cm 정조 어필,

묵죽도 판각

清節堂

17세기 후반 146×54cm 宋浚吉 필,

강당 편액

進德齋

17세기 141×45cm 宋浚吉 필,

동재 편액

崇義齋

17세기 146×52cm 宋浚吉 필,

서재 편액

廓然樓

18세기말 192×90cm 宋時烈 필,

학연루 외부 계판

廓然樓

18세기말 192×90cm 宋時烈 필,

학연루 내부 계판

藏板閣

년대미상 80×39cm 필자 미상,

경판각 편액

文廟從祀頒教文

1796년 100×41cm, 具庠 찬

文廟從祀教書 文廟陞配祝文

1796년, 110×39cm, 具庠 찬, 朴載淳 필

傳敎

1692년 101×62cm 속중 전교
1710년 계판

白鹿洞學規 附先生讀白鹿洞規詩

1710년 210×75cm 주희, 하서 김인후

頒祭文

1662년 57×35cm
현종 예조정랑 尹衡 찬

(魚允中詩)

1887년 39×27cm 魚允中 찬

筆巖書院敬次淸陰族祖韻

년대미상 41×35cm 金時絜 차운

筆巖書院敬次淸陰金先生韻

년대미상 51×34cm 屏溪 尹鳳九 찬

筆巖書院謹次曾祖韻

18세기초 31×79.5cm 金昌翕 찬

筆巖書院敬次松江先生韻

년대미상 32×26cm 金鑣玉 찬

筆巖書院敬西垞柳相公韻

題書院重營廳

년대미상 61×29cm 金友伋 찬

(題河西書院)

1617년 70×38cm 柳根 찬

(題筆巖書院)

18세기 51×30cm 權鐔 찬

嗟韻河西先生書院

1618년 87×45cm
權鐔, 柳根, 洪千環 찬

(懷河西/鼇山雜詠 河西先生)

16세기 45×24cm

鄭澈, 淸陰 金尙憲 찬

(讀河西集)

16세기 40×22cm 高敬命 시

御製賜祭文

1786년 49×30cm 朴天行 치제

筆巖書院重修記

1888년 149×38cm 知府 金升集

鼓巖先生追配時儒林上言

儀曹回啓 批答

1786년 70×39cm 金履鉉 찬

執事分定記

甲寅 160×38cm 필자 미상

院中執綱記

壬申 임원 집강기

講修齋(執綱記)

癸亥

國忌(懸板)

1887년 170×33cm
27왕 38왕비 제일, 동재 계판

朱熹尺牘(與彥修少府帖)

년대미상 61×25cm
朱熹 필 모각 동재 계판

(謁河西書院 次松江使相鄭公(澈)韻)

년대미상 趙憲 찬 서재 계판

廓然樓記

1760년 136×46cm 金時絜 찬

筆巖書院廓然樓重建上樑文

1752년 93×42cm 宋明欽 찬

筆巖書院前方塘/口呼於筆巖

년대미상 68×35cm 金時瑞 찬

● 고문서

筆巖書院 院長先生案

17~18세기 43.3 × 29.7cm

筆巖書院執綱案

1752년~1887년 27.5 × 31.9cm

1책(19장)

筆巖書院院籍(1)

1708년 45.5 × 27.2cm 146명

筆巖書院院籍(2)

1717년 45.5 × 27.2cm 378명,

筆巖書院院籍(3)

1742년 45.5 × 27.2cm 306명

筆巖書院院籍(4)

1802년 45.5 × 27.2cm,
書冊, 冊版, 祭器 祭服, 書院查 기록

筆巖書院成冊

1680년 29.6 × 25.5cm, 전장기

奉審錄

1624년~1701년 46.1 × 29.5cm 2책

奴婢譜

1745~1802년 27 × 31.3cm 1책(19장)

奴婢案

1846년 33.7 × 29.2cm, 保奴案 총 30명

文契案

1678년 32.3 × 24cm 1책(7장)

● 전적, 책판

百聯抄解

16세기 후반 27.8×17.7cm 1책

百聯抄解

1568년경, 13판

墨竹圖

1568년, 1770년, 3판

河西先生全集

1568~1802년 650매
53.0×20.5cm (중간본 기준)
(1568년 초간본 1매, 1686년
중간본 258매, 1802년 3간본 391매)

抄千字文

1610년, 18판

河西先生集

1686년 26.4×19.0cm 7책

五經百篇

1797년 46.1×29.5cm
5권5책 御定書 내사본

6. 달성 도동서원

● 현판·기문

道東書院

李滉 1607년 245×109cm
사액현판

道東書院

裵大維 1610년 250×98cm 사액현판

中正堂

李觀微 18세기 103×52cm

傳教

82×31cm

書道東書院額板下

鄭述 64×38cm

示玄風學者

金安國 14×46cm

規目

210×52cm

白鹿洞規學者十訓

120×39cm

國忌

148×29cm

居仁齋

105×54cm 동재

居義齋

99×55cm 서재

喚主門

93×45cm 외삼문

水月樓

1974년 178×73cm 문루

水月樓上樑文

李源祚 1849년 136×55cm

水月樓重修上樑門

李鍾祥 1863년 131×57cm

水月樓重建記

鄭華植 1974년 111×47cm

水月樓重建顛末小記

金殷永 1974년 121×48cm

● 고문서

院任案

1604~1965년 23.1×33.3cm 1책

院任錄

1638~1965년 25×35cm 3책

入院錄

1610~1907년 26.6×44.6cm 4책

道東書院院生案

戊辰~戊申 27×32.5cm 9책

道東書院院生案

乙卯, 己丑 29×35.6cm 7매

道東書院募入案

戊午~壬戌 26.9×25.3cm 3책

奴婢案

1628~1702년 23.9×33.5cm 1책

奉安時諸執事分定記

1610~1803년 23.3×34cm 1책

參祭錄

1611~1908년 20.1×24.8cm 13책

尋院錄

1606~1904년 신해~신묘
24×34.5cm 24책

謁祠錄

1692~1870년 임신~신유
20×24.9cm 36책

祭文

1605~1720년 23.8×33.1cm 1책

文敬公宗家祭需節目

丁酉 29.5×30.7cm 1매

傳掌記

甲戌~癸巳 21×24.2cm 1책

雜物傳掌記

1718~1752년 21×24.3cm 1책

別祠奉安時諸執事分定記

1695~1810년 22.3×35.2cm 1책

敦祠錄

1720~1848년 21×24.5cm 3책

道東書院奠物單子

1892년 56.2×46.7cm 1매

墓享時(時到記)

壬戌 10월 28×41.5cm 1책

笏記[墓祭]

15.5×24.5cm 9매

祭儀[金先生祠祭儀]

18×27cm 2책

道東書院重勅時文蹟

1604~1720년 22.5×36.5cm 1책

重修物力都摠

1803년 22×34.7cm 1책

道東書院重創事蹟誌

1803년 21×28cm 1책

廟室移建時到記

1840년 1책

重修物力都摠冊

1858년 29.3×33.5cm 1책

重修時執事分定冊

1858년 1책

倉庫, 庫室重修記

戊辰 2책

月次鐵物錄

丙辰~己卯 21×22.2cm 1책

奴婢賣買文書

1729년 1매

道東書院資費案

戊午~癸亥 28×25.1cm 2책

道東書院田畝大帳

辛丑 31.3×35.7cm 1책

庚子量田查案

戊午 1책

院田收稅記

壬午 24×33cm 1책

田畝成冊

乙丑·丁卯·戊辰 1책

本院土地臺帳

乙巳~丁卯 1책

道東書院田畝結卜大帳

癸未 1책

邑西部員藪坪查斥賣冊

丁酉 1책

道東書院結卜區別成冊

乙未 2책

道東書院土地賭租代金記

辛巳 1책

本院糧米賭地散責合責區分記

庚辰 1책

道東書院土地賭租賣買責

己卯 1책

基地稅太定式

戊辰 1책

書院土地契約書案

辛卯 1책

道東書院入金記

己丑 1책

本院賭地冊

壬寅 1책

馬山賭地冊

戊戌~己亥 4책

屯租記

甲申~辛卯 5책

屯穀及現穀收支記

辛亥 1책

現穀及食床記

戊申, 甲辰 28.5×31cm 2책

補院契案(節目, 收錢錄)

壬戌~辛酉 29×32.8cm 5책

補院契追入抄案

庚子 29×31cm 1책

補院契追入出物錄

壬辰 26.5×24cm 1책

育英齋完議節目

1787~1789년 24×35cm 1책

學楔案

1854~1867년 29×32cm 1책

門樓契案

1904~1905년 1책

焚香錄

1907~1915년 1책

各處通文臚草

22×29.6cm 1책

別補(正案冊)

戊午~乙未 11책

(本院)春正冊

戊午~丙子 4책

(本院)正案

丁未~1907년 23.5×30.5cm 20책

看穗記

甲子~戊申 5책

傳掌記

己未, 甲戌~癸巳 21×24cm 2책

雜物傳掌記

1623년, 1693~1752년 21×24cm 2책

道東書院書冊目錄

丁亥~최근 31×27.5cm 5책

書冊出納置簿

庚午 23.5×34.5cm 1책

院中物件記

甲子~壬午 4책

庚子移安院會下記

1책

道東書院用下記

己丑~辛卯 1책

倉庫門間重建下記冊

壬子~丁未 2책

文敬公宗家祭需節目

丁酉 정월 1매

本院收債冊

己酉~丁巳 1책

庚子量田畚案

21×36cm 1책

春正冊

丙子~庚辰 19.5×28cm 1책

堂會日記

己卯 21×31.5cm 1책

食床記

己丑 26.5×25cm 1책

儒錢名帖

辛巳 18.5×20.5cm 1책

上書

1664년 303×78cm 1매

瞻謁單子

18×28.5cm 1매

鄉錄

1621년 23.5×35.5cm 1책

鄉案

1621~1694년 40×30cm 3책

鄉案(上)(下)

1621~1851년 25×42cm 2책

鄉案設立初定規騰草

1786년 157×42.6cm 1매

景賢錄本院保有及頒帙記

庚辰 1책

景賢錄重刊時下記

己亥 21×22cm 1책

畢齋金善生門人錄分冊記

乙亥 1책

畢齋門人錄·下記正案冊

甲戌 1책

● 책 판

景賢錄(舊)

金夏錫 62×21.8cm 16판

景賢錄(新)

金夏錫 52.3×20.9cm 2판

景賢續錄(舊)

金夏錫 59×21cm 9판

景賢續錄補遺(舊)

金夏錫 61.6×21.8cm 10판

景賢續錄補遺(新)

金夏錫 53×21.6cm 12판

成化十六年庚子三月初三日

司馬榜目

경자 58.4×16.3cm 10판

佔畢齋金先生門徒錄添刊辨破錄

金聚東 等 1875년
54.6×20.5cm 7판

佔畢齋先生門人錄

54.2×20.5cm 5판

● 금석문

寒暄堂金先生神道碑 張顯光

道東書院事蹟碑

7. 안동 병산서원

● 현판·기문

尊德祠

171×82cm 사우

屏山書院

226×78.3cm 사액현판

立教堂

177.5×80.5cm 강당

明誠齋

88×37.3cm 동쪽 협실

敬義齋

84×40cm 서쪽 협실

動直齋

91×40cm 동재 편액

靜虛齋

87×38cm 서재 편액

藏書室

107×50.5cm

晚對樓

202×78.5cm 문루

復禮門

183×67cm 외삼문

藏板閣

98.5×31cm 장판각

典祀廳

68.5×28cm

屏山尊德祠復享記

李埈 1730년 130×47cm

尊德祠享祀執事分定(1)

83×29.5cm

屏山書院 尊德祠從祀位執事分定(2)

82.5×29.5cm

● 고문서

入院錄

1592~1718년 20.8×33.5cm 1책(115장)

院任錄

1592~1640년 27×32.7cm 1책(13장)

院任錄

1592~1807년 22.5×26cm 1책(118장)

院任錄

1652~1672년 27×32.7cm 1책(16장)

院任錄(一)

1592~1716년 29×38cm 1책(41장)

院任錄(二)

1717~1806년 29×38.3cm 1책(46장)

院任錄(三)

1807~1885년 29×37.7cm 1책(41장)

院任錄(四)

1887~1918년 29.5×38.5cm 1책(36장)

執事錄(1)

1614~1639년 29.5×26.5cm 1책(34장)

執事錄(2)

1658~1665년 22.5×23.6cm 1책(26장)

執事錄(3)

1666~1698년 22.5×23.6cm 1책(79장)

執事錄(4)

1723~1735년 21.6×27.5cm 1책(48장)

焚香錄

1823~1826년 17.7×23.5cm 1책(45장)

奴婢案

1663년 20.5×27cm 1책(9장)

奴婢案

1666~1669년 20×28.3cm 1책(22장)

奴婢案

1738년 20.4×25.5cm 1책(18장)

奴婢案

1762년 19×31cm 1책(11장)

院奴婢推刷案

1739년 19×25.7cm 1책(12장)

院奴婢推刷案

1750년 19.3×25cm 1책(15장)

院奴婢推刷案

1756년 19×27cm 1책(14장)

居齋案

1781~1782년 21.2×30.8cm

1책(26장)

講案

1789년 21×31.5cm 1책(12장)

傳與記

丁亥~戊申 20.8×31.8cm

1책(16장)

傳與記

1615~1617년 24.1×15.5cm

1책(5장)

祭器目錄

奉安錄 1610~1614년 24.5×39cm

1책(24장)

院案要覽(1)

1841년 20×28.3cm 1책(49장)

[鑰店穀數定賭記]

院案要覽(2)

1853년 21×30cm 1책(54장)

院案要覽(3)

1883~1896년 21.3×30.3cm

1책(56장)

屏山書院延額時事實

1851년 28×31.8cm 1책(6장)

各房雜物未收都重記

戊午 22.5×30cm 1책(13장)

祭物儀式

17.5×26.7cm 1책(11장)

祭需物目

己酉 12.4×25cm 1매 절첩본(作帖)

復享時祭文·獻官·執事案

1629년 25×28cm 1책(10장)

鄉錄

1589년 31×40.5cm 1책(17장)

疏草

1595년 134×27cm 1매

辨誣錄

1691년 20.5×31cm 2책

鄭經世祭文

己亥 22.5×34.7cm 1책(11장)

龍庭對策

21.2×30.8cm 1책(43장)

齋舍洞完文

壬戌 28×30.5cm 1책(7장)

通報

甲午 24×27cm 1장

望記

1897년 56×92cm 1장

| | |
|----------------|------------------------------|
| 上樑文 | 1771년 62×119cm 1책(2장) |
| 洞案 | 1618년 22×45.5cm 1매 절첩본 |
| 霜臺契帖 | 1634~1731년 21.7×34.3cm 5책 |
| 星廳完議 합철 屏山書院記事 | 1718년 21.3×30.8cm 1책(13장) |
| 慶老會案(二) | 1804~1811년 29×32.2cm 1책(37장) |
| 屏山書院藏 契約 | 庚午 18.5×27.5cm 1책(11장) |
| 契約 | 壬申 21.8×46cm 1매 절첩본 |
| ● 책 판 | |
| 西厓先生文集(初刊) | 柳成龍 1632년 62×21.2cm 30장 |
| 西厓先生別集(初刊) | 柳成龍 1632년 62.8×21.2cm 9장 |
| 懲毖錄 | 柳成龍 1647년 58×22.7cm 239장 |
| 懲毖錄(2권본) | 柳成龍 未詳 58×20.8cm 2장 |
| 西厓先生年譜(初刊) | 柳軫 1702년 60×22.7cm 17장 |
| 西厓先生年譜(重刊) | 柳軫 미상 53.9×22.5cm 74장 |
| 修巖集(初刊) | 柳軫 1734년 57.1×22cm 48장 |

| | |
|------------|----------------------------|
| 修巖先生年譜(重刊) | 柳軫 1773년 58×23.0cm 31장 |
| 修巖先生文集(重刊) | 柳軫 1773년 58×23.0cm 67장 |
| 西厓先生文集(重刊) | 柳成龍 1894년 54.7×23.0cm 408장 |
| 西厓先生別集(重刊) | 柳成龍 1894년 53.4×23.2cm 83장 |
| 陶山及門諸賢錄辨訂 | 1916년 62.3×20.4cm 55장 |
| 陶山及門錄追辨 | 1916년 58.8×20cm 1장 |
| 永慕錄 | 柳成龍 미상 59.5×20.9cm 54장 |

8. 정읍 무성서원

| | |
|--------------|-----------------------|
| ● 현판 기문 | |
| 武城書院 | 1696년 102×60.5cm 사액현판 |
| 泰山祠 | 黃 煜 181×50cm 사우 |
| 講修齋 | 1884년 63.5×25.5cm 강당 |
| 絃歌樓 | 孫秉浩 1904년 147×50cm 문루 |
| 講堂重勅記 | 金 玟 1828년 90×34.5cm |
| 武城書院崔先生文集重刊記 | 朴海彦 1834년 94.5×38.5cm |
| 武城書院重修記 | 金光欽 1847년 91×34cm |
| 武城書院重修記 | 宋持灝 1854년 88×37cm |
| 武城書院重修記 | 宋鍾壽 1875년 93×35cm |
| 武城書院重修記 | 宋程淳 1879년 84×31cm |
| 武城書院復戶保奴還復記 | 金稷欽 1882년 96.5×33.5cm |
| 武城書院院誌開刊記 | 奇亮衍 1884년 77.5×30.5cm |
| 武城書院重修記 | 金永朝 1886년 90×32.5cm |
| 武城書院重修記 | 金光欽 1888년 88.5×34.5cm |

| | |
|-------------|------------------------|
| 武城書院重修記 | 尹濟翼 1892년 106.5×32.5cm |
| 武城書院重修記 | 尹 秉 1895년 120×30.5cm |
| 武城書院賢宇重修記 | 閔申鎬 1901년 99.5×33.5cm |
| 武城書院記 | 金麟基 1906년 79.5×30.5cm |
| 武城書院重修記 | 金秉述 1906년 93×26.5cm |
| 武城書院重修記 | 李在宇 1917년 144×45cm |
| 賢宇重修及典祀所勅建記 | 金煥豊 1930년 104×39cm |
| 武城書院重修記 | 金煥一 1932년 103×38cm |
| 武城書院慕賢記 | 柳源模 1953년 84×33cm |
| 武城書院院址復舊記 | 金煥豊 1937년 115×42cm |
| 武城書院椅盤重修記 | 金 澤 1927년 105×34.5cm |
| 武城書院墻垣重修記 | 金煥豊 1928년 95×41cm |
| 武城書院祭器改修記 | 金麟基 1967년 100×38.5cm |
| 武城書院絃歌樓記 | 金奎弘 1891년 122×31cm |
| 武城書院絃歌樓勅建記 | 閔正植 1891년 99×39.5cm |
| 武城書院絃歌樓重修記 | 鄭寬永 1903년 120×50.5cm |

| | |
|------------|----------------------------|
| 絃歌樓重修記 | 高元勳 1936년 142×41cm |
| 武城書院記 | 金直述 1902년 89×25cm |
| 武城書院重修記 | 權直相 1904년 102×34cm |
| 武城書院記 | 金思謙 1916년 82×24cm |
| 武城書院講修齋重修記 | 金麟基 1965년 85×36cm |
| (無題 記文) | 宋興燮 1977년 89×38cm |
| 金榮得讚揚文 | 金榮基 1994년 86×41cm |
| ● 고문서 | |
| (泰山書院)院儒案 | 1618~1620년 23×19cm 1책(24장) |
| (泰山書院)院生錄 | 1622~1659년 27×19cm 1책(4장) |
| 武城書院院生案 | 1773년 28×13cm 1책(5장) |
| 武城書院院生案 | 1800년 27×11cm 1책(8장) 노비안 |
| 完文 | 1838년 25×16cm 1책(8장) 절목 |
| 完文 | 1845년 21×18cm 1책(7장) 절목 |
| 尋院錄 | 1612~1732년 33×14cm 1책(61장) |

| | |
|-------------|---|
| 尋院錄 | 1732~1771년 27×12cm 1책(17장) |
| 尋院錄 | 1780~1828년 33×17cm 1책(34장) |
| 尋院錄 | 1813~1831년 34×16cm 1책(8장) |
| 尋院錄 | 1831~1876년 33×15cm 1책(16장) |
| 奉審錄 | 1875~1915년 33×14cm 1책(41장) |
| (武城書院) 延額記事 | 1696년 36×14cm 1책(58장) |
| (武城書院) 重修日記 | 1783년 37×17cm 1책(17장) 扶助記, 獻官執事記, 奉安日記 |
| 武城書院祭物冊 | 1734년 28×22cm 1책(3장) |
| ● 전적 책판 | |
| 桂苑筆耕集 | 1834년 30.5×20.3cm (2권 2책) 목활자본 |
| 武城書院院誌 | 1884년 30.5×20.3cm (2권 2책) |
| ● 금석문 | |
| 領相李公最應不忘碑 | 69×155×39cm |
| 縣監徐侯灝淳不忘碑 | 58×158×53cm |
| 縣監李侯定植不忘碑 | 68×161×48cm |

| | |
|-----------------|-------------------------|
| 前監役丁文述重修義助碑 | 金煥豊 1917년 80×147×45cm |
| 前議官李慶熙不忘碑 | 金煥豊 1925년 67×160×44cm |
| 通政大夫前祕書監丞申谿熙不忘碑 | 金煥豊 1925년 60×142×50.3cm |
| 士人金麟基不忘碑 | 金煥珪 1929년 64×180×43.5cm |
| 前參奉朱燦馨紀功碑 | 李炳觀 1930년 64×181×44cm |
| 武城書院廟庭碑 | 金 晔 1958년 78×183×56cm |
| 武城書院廟庭碑創建義捐芳名錄 | 金鍾元 1960년 75×159×44cm |
| 武城書院史蹟指定紀念碑記 | 金麟基 1969년 77×213×52cm |
| 武城書院重修紀念碑 | 金麟基 1968년 88×207×48cm |
| 進士崔永大永世不忘碑 | 金宗漢 1987년 81×190×52cm |
| 丙午倡義紀蹟碑 | 金成淵 1992년 146×331×75cm |

9. 논산 돈암서원

● 현판, 기문

| | |
|---------|---|
| 遯巖書院 | 1660년, 85×230cm 宋時烈 사액 현판 |
| 崇禮祠 | 1990년대, 65×200cm 사우 편액 |
| 養性堂 | 1602년 추정, 55×150cm 강당 편액 |
| 凝道堂 | 년대 불명, 80×185cm 강당 편액 |
| 靜會堂 | 17세기 초 金禮山 |
| 藏板閣 | 한말 이후, 장판각 편액 |
| 居敬齋 | 현대, 동재 |
| 精義齋 | 현대, 서재 |
| 山仰樓 | 문루 |
| 養性堂記 | 1603년, 45×100cm 鄭曄 차 |
| 養性堂記 | 1602년, 金長生 書 |
| 遯巖書院上樑文 | 1633년, 37×103cm, 金尙憲 찬 |
| 養性堂題詠 | 17세기 전반 창건 10영, 45×120cm 10영 |
| 養性堂十詠 | 17세기 후반 45×150cm, 李端夏, 黃赫, 張維, 梁慶遇 등 |

雅閑亭題詠

1881년, 40×127cm,
金國光, 宋翼弼, 崔昌煥 외

養性堂後記

1883년 金尙鉉 찬

題凝道堂壁右

1903년 俞一濬, 서원운영 절목 등

本院扶助記(癸亥)

1923년

(무제)書院扶助記

1924년 金在夏

本院扶助記(甲子)

1924년

本院扶助記(乙丑)

1925년

養性堂重修補助

1927년, 申錫順

養性堂重修補助記

1927년

遯巖書院重修記

1955년, 朴有鎭

養性堂重修記

1956년, 黃澤秀

崇慕契員名單

20세기, 4매

(무제)遯巖書院扶助錄

20세기

(무제)本院扶助記

20세기, 2매

扶安郡儒林

20세기 부조록.

養性堂移建記

1971년, 宋在晟 찬

孔孟程朱之道

1988년, 40×100cm, 金永玩 찬

山仰樓重建上樑文

2006년

● 고문서

金長生 文廟配享 教旨

1717년 88×630cm

遯院舊蹟

1632년 66.5×42.5cm 창건
通文(尹恠 등 56인, 宋浚吉 필)

(愼獨齋先生奉安時)儒生來會錄

1658년 37×26.5cm 유생 323명

遯巖書院齋任案

1738년~1846년 36.5×24.5cm

院長 掌議, 有司, 直月 명단

齋中記簿 戊午

34.5×20.5cm 書冊 祭器 목록

遯巖書院田畝量案

1781년(1798년 개장) 35.5×25.5cm

遯巖書院 學契案

1886년 32.5×23cm

院中賭地記

19세기 전답 총록

節目

1892년 37.0×25.2cm

● 전적, 책판

喪禮備要

1648년 2권 2책 51×34cm 申義慶 찬,
金長生 증보, 金集 교정, 목판본

家禮輯覽

1685년 10권 6책 60.5×30.5cm
목판본

沙溪遺稿, 沙溪年譜

1792년 6책 유고 50×31.5cm,
년보 50.5×23 목판본

沙溪全書

1922년 4간본 51권 24책
50×28cm, 목판본

疑禮問解

1646년 김집 편집 4권4책

儀禮問解續

1646년 김집 편찬 2책

愼獨齋遺稿

1710년, 15권 7책

愼獨齋全書

1924년, 20권 9책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기록문화와 제향

| |
|--|
| <div>발행</div> <div>이배용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div> |
| <div>진행</div> <div>(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사무국</div> |
| <div>후원</div> <div>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영주시, 안동시, 경주시, 논산시, 장성군, 정읍시, 함양군, 달성군</div> |
| <div>집필</div> <div>이해준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이수환 (영남대학교 교수) 이병훈 (영남대학교 연구원) 김희태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박진재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실장)</div> |
| <div>발행일</div> <div>2021. 12.</div> |
| <div>주소</div> <div>(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0286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83 논현빌딩 802호</div> |
| <div>전화 및 팩스</div> <div>02-3673-5441, 02-3673-5444</div> |
| <div>홈페이지</div> <div>k-seowon.or.kr</div> |
| <div>디자인·편집</div> <div>그래픽코리아</div> |
| <div>일러두기</div> <div>이 책은 한국 서원의 유·무형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 발행된 한국의 서원 도록 3종(현판과 기문, 고문서, 고서, 책판, 제향의례)의 주요 내용들을 간추려 새롭게 개정증보판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9개 서원이 위치한 14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만들어졌으며, 책에 사용된 사진은 도록 3종에 사용된 출처와 같다.</div> |

